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박사학위논문

한국어 ‘-게’ 구문의 역사적 연구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장 고 은

한국어 ‘-게’ 구문의 역사적 연구

지도교수 장 윤 희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장 고 은

장고은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

부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국문초록

한국어 ‘-게’ 구문의 역사적 연구

장고은

본고는 중세 한국어와 근대 한국어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게’ 구문이 보이는 통사·의미적 특성과 그 역사적 발달 과정을 구문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게’ 구문이란 ‘V_1P-게 V_2’ 구성이라는 형식을 공유하고 타동성(transitivity)과 결과사건과 원인사건이라는 사건 구조의 측면에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일련의 구문을 가리킨다. 본고는 중세 한국어 시기부터 ‘-게’ 구문이 보인 원형적 구문의 양상과 그것이 확장해 가는 모습을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예문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V_1P-게 V_2’ 구문이 보이는 사동 구문과 결과 구문, 판단 구문과 목적 구문 사이의 연관성을 논의하였다.

각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연구 대상,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제2장 기본적 논의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어미 ‘-게’의 문법적 특징을 논의하고 ‘V_1P-게 V_2’ 구문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중세 한국어에서 ‘-게’ 부사형은 주로 ‘결과’(result)의 의미를 표시하는 구문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부터 제6장은 각각 사동 구문, 결과 구문, 판단 구문, 목적 구문을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게 ᄒᆞ-’로 나타나는 사동 구문의 통사 의미적 특징을 구문 구조와 피사동주의 격 실현과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게 ᄒᆞ-’의 선대형인 14세기 음독 구결 자료의 ‘-ᄉᆞᄫᅳ-’는 피사동주가 주로 도구격으로 실현되었고, 15세기 이후 주격, 목적격, 혹은 여격이나 도구격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V_1P-게 V_2’ 결과 구문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논하였다. V_2의 성격에 따라 상태 변화를 수반하는 타동사가 쓰이는 경우를 전형적인 결과 구문으로 보고 그 통사·의미적 특성을 살폈다. V_2가 자동사인 경우도 비전형적인 결과 구문으로 다루었다. V_2가 ‘굴-’인 경우 역시 결과 구문의 틀에서 해석하여 현대 한국어의 ‘-게 굴-’ 구문이 보이는 다층적 성격이 통시적 변화의 산물임을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V_1P-게 V_2’ 판단 구문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논하였다. 판단 구문

의 ‘-게’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판단 결과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결과 구문과 관련성을 주장하였다. V_2에 ‘너기-, 싱각ᄒᆞ-’ 등의 사유 동사가 오는 전형적인 판단 구문의 경우를 살펴보고, 심리 형용사와 ‘-게’가 결합하여 판단 구문의 용법이 확장해 가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V_1P-게 V_2’ 목적 구문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논하였다. 중세 한국어의 목적 구문은 V_2가 이동의 타동사, 화법 동사인 경우로 이는 사동 구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게’가 목적의 연결어미로 발달해 가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제7장은 결론으로 지금까지 밝힌 주요점을 요약, 정리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구문, 구문문법, 사동 구문, 결과 구문, 결과, 판단, 목적, ‘-게’, 부사형
학 번 : 2012-30806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연구 방법 ····· 7
1.3. 선행연구 검토 ····· 12
1.4. 논의의 구성 ····· 13
1.5. 인용 자료 ····· 14

2. 기본적 논의 ····· 19
2.1. 중세 한국어의 '-게'의 특징 ····· 19
2.2. 중세 한국어 'V_1P-게 V_2' 구문의 유형과 특징 ····· 23

3. 'V_1P-게 V_2' 사동 구문 ····· 44
3.1. '-게 ᄒᆞ-' 사동 구문의 선대형 ····· 44
3.2. '-게 ᄒᆞ-' 사동 구문 ····· 57

4. 'V_1P-게 V_2' 결과 구문 ····· 64
4.1. V_2가 타동사인 경우 ····· 64
4.1.1. V_2가 상태 변화 타동사인 경우 ····· 64
4.1.2. V_2가 제조 동사인 경우 ····· 75
4.2. V_2가 자동사인 경우 ····· 78
4.2.1. V_2가 자동사인 경우 ····· 78
4.2.2. 피동적 '-게 ᄒᆞ-' 구문 ····· 83
4.3. '-게 굴-' ····· 86

5. 'V_1P-게 V_2' 판단 구문 ····· 93

5.1. V_2가 사유 동사인 경우 ····· 93
5.1.1. '-게 너기-' ····· 93
5.1.2. '-게 싱각ᄒᆞ-' ····· 101
5.2. '-게' 판단 구문의 확장 ····· 106

6. 'V_1P-게 V_2' 목적 구문 ····· 111
6.1. V_2가 이동의 타동사인 경우 ····· 111
6.2. V_2가 화법 동사인 경우 ····· 116
6.3. '-게' 목적 구문의 확장 ····· 124

7. 결론 ····· 130

참고문헌 ····· 134
Abstract ····· 147

표 목 차

[표 1] 타동성의 열 가지 변수 ····· 9

그 림 목 차

[그림 1] 목적의 개념 구조 ····· 34
[그림 2] 목적 의미의 하위 유형 ····· 35
[그림 3] 의도 목적의 개념 구조 ····· 38
[그림 4] 기대 목적의 개념 구조 ····· 38

1. 서론

1.1. 연구 목적

본고는 중세 한국어와 근대 한국어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게'[1] 구문, 즉 'V_1P-게 V_2'[2] 구성이 보이는 통사·의미적 특성과 그 역사적 발달 과정을 구문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 문법사 논의에서 '구문'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서술어가 가지는 논항 구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문 문법(construction grammar)에서 정의한 '구성 요소의 개별 의미의 합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진 그 이상의 단위'(Goldberg 1995)를 가리키는 것이다. 물론 서술어의 논항 구조 역시 구문 문법에서 말하는 '구문'의 특별한 한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고에서 '-게' 구문을 정의할 때에는 '구문'의 이러한 두 가지 용법을 모두 사용할 것이다. 즉 '-게' 구문이란 'V_1P-게 V_2'으로 나타나는 V_2의 논항 구조를 가리키기도 하며, 이러한 논항 구조들의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V_1P-게 V_2' 구성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V1P-게 V2' 구성은 통사·의미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면모를 보이므로 각각 별개의 구문으로 다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것이 'V1P-게 하-'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사동 구문과 'V1P-게 V2'에서 'V1P-게'가 결과 표시부로 해석되는 결과 구문이다. 그리고 '여기-', '굴-', '생기-' 등의 동사가 보이는 'V1P-게 V2' 구성도 개별 구문으로 관심을 받아 왔다. 'V1P-게'가 후행절의 [목적]으로 해석되는 명백한 복문 구

---

1) 부사형 어미 '-게'는 역사 문헌 자료에서 '-게', '-긔', '-긔' 등 다양한 수의적 변이형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기술의 편의상 해당 형태소를 제시할 때 '-게'를 대표형으로 제시한다.

2) 기술의 편의상 '-게'에 선행하는 용언을 V_1이라 하고 후행하는 용언을 V_2라 지칭한다. 이때 'V'는 동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 계사를 아우르는 용언의 의미로 사용한다. 한편 각 서술어의 논항을 지칭할 때에는 동사의 인덱스를 활용하여, V_1의 주어인 경우 NP_1, V_2의 주어인 경우는 NP_2라 하기로 한다.

성인 경우는 부사절의 접속과 관련하여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통사·의미적 양상에도 불구하고 'V1P-게 V2' 구성이 가지는 근원적인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본고의 관점이다. 본고는 'V1P-게 V2' 구성이 보이는 통사·의미적 특성을 타동성(transitivity)과 사건 구조(event structure)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통시적 관점에서 'V1P-게 V2' 구성이 발달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한국어의 'V1P-게 V2' 구성이 보이는 다양한 성격이 구문 간의 친연성에 관련한 것임을 조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게' 구문에 대하여 현대 한국어의 예를 통해 살펴보면 아래의 (1)과 같다.

(1) 가. 어머니가 아이를 밥을 먹게 했다.
나. 어머니가 떡을 얇게 썰었다.
다. 아이가 (나를) 귀찮게 굴었다.
라. 철수는 아이를 착하게 여겼다.
마. 차가 지나가게 길을 비켰다.

(1가)는 '-게 하-' 사동 구문의 예, (1나)는 '-게' 결과 구문의 예, (1다)는 '-게 굴-' 구문의 예, (1라)는 '-게' 판단 구문의 예, (1마)는 [목적]의 부사절의 예이다. 이들이 보이는 통사·의미적 특징은 이들을 별개의 구문으로 다룰 만큼 모두 다르지만, 이들에서 'V1P-게 V2' 구성이라는 형식적 공통점 뿐 아니라 통사·의미적 공통점도 찾을 수 있다. (1가)~(1라)의 경우 주 서술어인 V2는 타동사이며, 문장에는 두 개체(entity)가 등장한다. V2의 주어인 NP2는 유정성이 높은 행위주(agent)이다. 반면 V1의 주어인 NP1은 V2의 사건에 의해 영향을 입는 존재로 전체 사건의 대상(theme)에 가깝다. NP2는 의도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라는 점에서 유정성이 높은 존재이고, NP1은 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유정성을 띠며 사건을 발생시키려는 의도가 없고 비자발적으로 사건을 겪으며 V2의 사건의 영향을 입는 존재이다. 이를 'V1P-게'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면 V1P는 낮은 유정성을 지닌 비자발적으로 사건을 겪는 존재인 NP1과 관련된 사건이나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1마)의 경우 NP2 즉 후행절의 주어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위를 하는 주체이며, 선행절의 주어는 상대적으로 능동성이 없다는 점에서 (1가)~(1라)의 개체의 특성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1)의 '-게' 구문들은 타동성의 측면에서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또한 (1)의 문장들이 보이는 시간 역전적인 사건 구조에도 주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사가 연속된 구성은 도상성(iconicity)의 원리에 따라 선행 사건을 앞에 두고 후행 사건을 뒤에 두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V1-어 V2' 구성으로 나타나는 '철수가 항아리를 파묻었다.'와 같은 문장의 경우 V1 사건인 파는 행위와 V2 사건인 묻는 행위가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물론 'V1-어 V2' 구성 중에도 V2가 선행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철수가 영희를 알아보았다.'와 같은 문장의 경우 '보는' 사건이 선행하고 '아는' 사건이 후행하는 것이므로 V2와 V1의 사건의 순서가 역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V1-어 V2' 구성에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그러나 '-게' 구문은 항상 시간 순서에 역행적인 면모를 보인다. 예를 들어 (1나)에서 V2 사건인 써는 행위가 먼저 일어나고 그 결과 V1 사건인 얇다는 결과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문면에 뒤따르는 V2가 시간적으로는 선행 사건이고, 문면에 앞에 오는 V1이 시간적으로 후행 사건이라는 특징이 있다. 사동 구문과 결과 구문의 경우는 V2를 원인 사건, V1을 결과 사건이라고 분석할 수도 있다. (1마)에서도 V1P가 나타내는 '목적'은 그 실현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3)]

(1)을 '-게' 구문으로 보아야 하는 또 다른 근거로 형용사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게' 부사형의 문법적 성격과 그 통시적 발달을 들고자 한다.

(2) 가. 어머니가 떡을 얇게 썰었다.
나. 기차가 빠르게 달린다.
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넜다.
라. 이러한 사건이 드물게 일어났다.

3) [목적]과 [결과]는 언어 외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하면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게' 부사절 논의에서도 (1마)와 같은 용법을 [결과]로 기술하기도 하였다(서정수 1996, 이은경 2000, 윤평현 2005 등).

마. 이 아이가 가엽게 양친을 여의었다.

(2)는 현대 한국어에서 형용사와 결합한 '-게' 부사형이 다양한 문법 층위에서 사용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2가)는 VP 내부의 논항인 '떡'의 상태와 관련되고, (2나)는 문장의 주어인 '기차'의 달리는 양상을 묘사한다. (2다)는 문장의 주어인 '철수'의 태도와 관련되고, (2라)는 사건 명제의 빈도를 나타낸다. (2마)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관련한다. Jackendoff(1972)에서는 통사·의미적 해석에 따라 부사를 분류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나)는 방식 부사(manner adverb), (2다)는 향주어부사(subject-oriented adverb), (2라)는 빈도 부사, (2마)는 향화자부사(speaker-oriented adverb)에 해당한다. 이 논의에서 (2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이는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적 차이에 기인한다. (2가)와 같은 문장의 영어 대당 표현은 'He hammered the metal flat.'과 같이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영어에서 이러한 형용사의 쓰임과 관련하여는 결과 구문(resultative construction)의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Halliday 1967). 즉 두 개의 서술부로 이루어진 구문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문법의 관점에서 보면 (2가)와 같은 부사어는 일단 '부사형'의 모습을 띠고 있으므로 부사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2라)나 (2마)와 같은 명명 방식을 사용하여 '향대상부사(theme-oriented adverbial)'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theme)의 상태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V1P-게 V2' 구문 속의 일부 요소로서, 그 의미는 전체 구문 속에서만 온전히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2)와 같이 '-게' 부사형이 다양한 문법 층위에 작용하는 현대 한국어와 달리 중세 한국어에서는 주로 (2가)와 같은 쓰임만 발견된다. 즉 목적어의 상태와 관련된 '향대상부사'로만 사용되며, 'V1P-게 V2'의 구문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중세 한국어에서 '-게' 부사형이 (2나)~(2마)와 같은 언어일반적인 부사의 분류에 속하는 용법을 보이는 예는 극히 드물다.[4] (2가)와 같은 '-게' 부사형의 성격은 일찍이 임홍빈(1976)에서 [+대상성]이라고 명명한 부사형 어미 '-게' 의미적 특징과

4) 중세 한국어에서 이러한 경향의 예외적인 경우는 많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맞닿아 있다. 본고는 '-게' 부사형이 [+대상성]의 의미적 특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2가)와 같은 'V1-게 V2' 구성이라는 구문 속에서 결과 상태를 기술함으로써 가지게 된 특징이라고 본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부사형 어미 '-게'와 이에 결합하는 용언을 분석하여 '-게' 및 그 부사형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게' 부사형이 성상 형용사나 '잇-'과 같은 소유 소재 형용사와 먼저 결합하고 심리 형용사와 나중에 결합하게 되었다는 분석(방영심 2008)은 '-게'와 결합 용언간의 의미적 관련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게'의 [결과성]이라는 자질과 성상 형용사나 소유 소재 형용사, 색채 형용사 등의 의미적 특성에 의해 이러한 결합이 먼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결합 역시 '-게' 구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즉 (2가)와 같은 '-게' 부사형은 이것을 일부로 하는 결과 구문의 구문적 특성상 결과를 표시하며, 그 결과 사건에 해당하는 'V1P'의 서술어는 성상 형용사나 색채 형용사 등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속성과 관련한 형용사가 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전형적인 결과 구문의 경우 타동사에 의해 대상이 완전히 영향을 입게 되고, 영향을 입게 된 대상의 결과 상태는 주로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속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게'가 특정 형용사와 먼저 결합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용언의 의미적 특성과 부사형 어미 '-게'의 속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V1-게 V2' 구문의 속성에 의한 것이다. '-게'가 구문의 요소에서 벗어나 다양한 부사적 쓰임을 보이는 (2나)~(2마)의 '-게' 부사형에 이르러서야 '-게'와 그 어기의 결합적 속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1)의 '-게' 구문의 예들의 이러한 공통점보다는 사동 구문, 결과 구문, 절 접속이라는 굵직한 연구 주제 아래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현대 한국어의 공시적 연구에서 (1가)의 '-게 하-' 사동은 사동사 사동과의 통사·의미적 비교를 중심으로 일찍부터 깊이 있게 연구되어 왔다. 소위 단형 사동문과 장형 사동문이라고도 하는 두 종류의 사동문의 동의설과 이의설,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 차이, 피사동주의 격표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1나)의 '-게' 결과 구문은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어 결과 구문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었다. 이 과정에서 결과 부사의 개념과 영어와 다른 한국어 결과

구문의 특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1다)의 '-게 굴-', (1라)의 '-게 여기-', 등도 개별적인 구문으로 다루어져 왔고, 보조용언 혹은 필수적 성분으로 나타나는 부사어에 대한 연구에서 언급되어 오기도 하였다. (1마)와 같은 쓰임은 부사형 어미 혹은 연결어미의 연구에서 다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역사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통시적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통시적 연구에서도 각 주제별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사동 구문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주로 사동사 사동문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중세 한국어의 '-게 ᄒᆞ-' 구문은 현대 한국어의 '-게 하-' 구문과 형태뿐 아니라 통사, 의미적으로도 거의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동사 사동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덜하였다. 한편 (1나)와 같이 형용사와 결합하는 '-게'의 경우, 주로 '-게' 부사형과 '-이' 부사형의 의미 차이 및 '-이' 부사형에서 '-게' 부사형으로의 통시적 변화 등을 주제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결과 구문의 관점에서 검토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대 한국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중세 한국어의 '-게' 결과 구문의 예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개별 구문으로 다루어진 (1다), (1라) 등의 경우도 '여기-' 사유 동사 구문에 대해서는 통시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지만 다른 구문들의 통시적 발달 과정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1마)와 같은 목적의 연결어미 '-게'의 용법은 중세 한국어에는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바, 주로 'V1-게 V2' 구성의 일부 요소로 쓰이던 '-게'가 연결어미의 용법으로 확장해 가는 양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처럼 '-게'와 관련한 구문이나 '-게' 부사형과 관련된 연구가 다양한 주제 하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져 온 이유 중 하나는 현대 한국어의 어미 '-게'와 그것이 이루는 구문이 역사적 변화의 산물로서 복잡하고 다양한 층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한국어의 공시적인 분석만으로는 이들의 공통점을 파악하거나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어사적 관점을 도입할 때 우리의 통합적 연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15세기의 '-게' 부사형은 (2가)와 같이 결과 사건의 대상의 상태를 기술하는 것에서 출발하였고 이러한 '-게' 부사형은 항상 'V1-게 V2'의 구문 안에서만 발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2가)와 같은 '-게' 부사형의 기원적 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부사형이 포함된 'V1-게

V2' 구문은 앞서 (1)에서 살펴보았듯 다양한 모습을 보이지만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같은 형식을 공유하고 유사한 의미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게' 구문으로 묶고 그것의 15세기 한국어에서의 공시적 양상, 그리고 통시적 변화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는 '-게' 구문이라 명명한 'V1게 V2' 구성을 통시적으로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우선 한국어의 사동 구문과 결과 구문 및 개별 'V1-게 V2' 구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나아가 기존의 연구에서 사동 구문, 결과 구문 등의 주제 아래 다루지 못하였던 예들도 'V1-게 V2' 구성이라는 형식에 주목함으로써 연구의 대상으로 포괄하여 살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게' 구문의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이에서 비롯한 부사형 어미 '-게' 및 연결어미 '-게', 선어말어미 '-겠-' 등의 이해도 도모할 수 있다.

1.2. 연구 방법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V_1P-게 V_2' 구성에 대하여 우리는 '구문(construction)'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동사가 연속되어 나타나는 구성이 그 의미나 통사적 긴밀도에 따라 다양한 문법적 성격을 띠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어에서 'V1+어미+V2'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구성은 두 동사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형태론적 구성인 합성동사에서부터 동사 연속 구성(serial verb construction), 본동사-보조동사 구성, 상위문과 하위문의 내포문 구성, 절과 절의 접속 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법적 층위에 속할 수 있다.

구문이란 그 개별 구성 요소의 의미의 합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위를 말한다(Goldberg 1995: 4). 구문 문법에서는 구문 역시 언어 화자들의 언어 지식을 이루는 요소로 등재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언어 습득에 대한 연구를 통해 Clark(1978), Slobin(1985), Bowerman(1989) 등은 구문 구조가 인간의 경험에 기반한 의미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였다(Goldberg 1995: 5). 우리는 'V_1P-게 V_2' 형식 역시 구문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보이고자 한

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V1-게 V2' 구문의 문법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는 원형 이론(prototype theory)의 관점에서 '-게' 구문이 가지는 가장 원형적인 특징을 탐색한다. 즉 V1과 V2 두 가지의 사건이 존재하며, V2는 V1에 시간적으로 선행하고, V2가 V1의 원인 사건에 해당한다는 특징을 공유하는 'V1-게 V2'를 모두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원형적 '-게' 구문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로부터 사동 구문, 결과 구문, 판단 구문, 목적 구문 등의 하위 유형이 파생되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전형적인 '-게' 구문이 보이는 구문 구조는 아래와 같다.

(3) [NP2가 NP1을 [(NP1이) V1]-게 V2][5)]
NP2가 V2함으로써 그 결과 NP1이 V1하다.

(3)과 같은 구문 구조를 가지는 문장은 [NP1이 V1]이라는 구조를 가지는 문장과 대비하여 동사 V2와 그 동사의 주어 NP2가 추가되었고, NP1이 V2의 목적어로 실현된 것이다. 이러한 논항 수의 증가는 타동성(transitivity)의 증가로 이어진다. 추가된 논항 NP2는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이자 높은 유정성을 띠는 개체이고, NP1은 V2 사건의 영향을 입는 비자발적인 참여자가 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유정성을 띠게 된다.

'-게' 구문이 가지는 전형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4) 가. 형식적 특징: 'V1P-게 V2'의 형식을 띤다.
나. 문법적 특징: 전형적으로 V2에 타동사가 쓰인다.
다. V2의 주어 NP2는 높은 유정성을 띤다.
라. V1과 V2의 주어가 반드시 다르다.

5) 본고는 'V1-게 V2' 구성을 구문의 관점에서 기술하며, 이와 같은 구문 구조의 표시는 서술어의 논항 구조를 분명히 하기 위해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 ]' 기호는 V1과 V2의 주술 관계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쓰인 것으로 그것이 반드시 통사론적으로 내포문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또한 '( )' 기호는 해당 성분이 서술어의 논항 구조상 필수 성분이지만 문면에 드러나지는 않음을 나타낸 것으로 그것이 통사론적으로 생략된 성분이라는 함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마. 시간적 선후관계: V1은 후행사건, V2는 선행사건이다.
바. 인과적 관계: V1은 결과 사건, V2는 원인 사건이다.
사. V1P의 결과 상태는 V2의 목표에 해당한다.

(4가)의 특징은 '-게' 구문을 형식적으로 구분해 주는 가장 눈에 띄는 기준이다. 여기에서 V1, V2란 용언을 가리키는 것으로, 동사뿐 아니라 형용사, 계사도 아우르는 표현이다. (4나)는 전형적인 V2는 타동사, 그 중에서도 대상(theme)의 상태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타동사라는 점을 말한다. (4다)의 특징은 (4나)와 연결되는데, 타동사 V2의 주어인 NP2는 행위주가 되어 V1의 주어인 NP1에 영향을 입힌다. 영향을 입는다는 측면에서 NP1은 대상의 의미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라)는 연결어미 '-게'가 보이는 통사적 특징 중 하나로 선후행절의 주어가 비동일주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항상 다르다. (4마)는 '-게' 구문을 이루는 두 사건의 시간 위치상의 특징이다. V1이 가리키는 사건과 V2의 사건의 시간 순서를 말할 수 있다면, V1의 사건은 V2의 사건에 시간적으로 후행한다. 일반적으로 동사가 연속된 구성은 언어적 도상성에 따라 선행 사건과 후행 사건의 순으로 표현되는 반면, '-게'에 의해 연결된 구성은 후행 사건과 선행 사건의 순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4바)는 사건 구조의 특징을 보인 것으로, 시간 순에서 선행하는 V2의 사건은 원인사건, 후행하는 V1의 사건은 결과 사건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결과 구문의 경우는 이러한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만 사동 구문과 목적 구문의 경우는 인과 관계의 성립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 (4사)는 선후 관계와 인과관계로 아우를 수 없는 [목표] 의미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3), (4)의 원형적 특징을 공유하는 'V1-게 V2' 구성을 '-게' 구문으로 묶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타동성(transitivity)에 있다. 이는 Hopper and Thompson(1980)에서 제시한 높은 타동성을 띠는 문장이 가지는 10가지 변수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표 1> 타동성의 열 가지 변수 (Hopper and Thompson 1980)

Components	**HIGH**	**LOW**

of T		
Participants (참여자 수)	2 or more participants, A and O 둘 이상의 참여자, 즉 A와 O	1 participant 하나의 참여자
Kinesis (서술어 특성)	Action 행위	Non-action(=state) 비행위(=상태)
Aspect (서술어의 상)	Telic 끝점이 있는 동작	Atelic 끝점이 없는 동작
Punctuality (서술어의 순간성)	Punctual(예: kick) 순간적	Non-punctual(예: carry) 비순간적
Volitionality (의도성)	volitional 의도적	Non-volitional 비의도적
Affirmation (긍정문)	Affirmative 긍정문	Negative 부정문
Mode (법)	realis 현실	Irrealis 비현실
Agency (A의 행위성)	A high in potency	A low in potency
Affectedness of O (O의 영향입음)	O totally affected	O not affected
Individuation of O (O의 개별성)	O highly individuated	O non-individuated (include reflexive)

전형적인 '-게' 구문은 참여자 수, 서술어의 특성, 의도성, A의 행위성, O의 영향입음, O의 개별성에서 높은 타동성의 변수들을 보이고 있다. 즉 둘 이상의 참여자 NP1과 NP2가 사건 구조에 등장하며, 서술어는 대상의 상태변화를 가하는 타동사이다. 타동사의 주어 A, 즉 NP2는 높은 행위성을 가지며 타동사의 목적어 O, 즉 NP1에게 영향을 입힌다. NP1은 NP2와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이며, 타동사의 행위의 결과 상태변화를 겪게 되어 큰 영향을 입는다. 현대 한국어에는 의도성 표지는 없으나, 문맥상 NP2의 의도성이 잘 드러난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타동성 변수를 보이는 비전형적인 결과 구문과 판단 구문 등에서도 그것은 O 즉 대상의 영향입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타동성을 공유하고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이라는 두 미시 사건의 결합으로 해석되는 'V1P-게 V2' 구성을 우리는 '-게' 구문으로 정의하고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전형적인 '-게' 구문의 구문 구조에 비추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각 구문들의 구체적인 구문 구조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5) 가. [NP2가 NP1을 [(NP1이) V1]-게 ᄒᆞ-] (사동 구문)
NP2가 시킴으로써 그 결과 NP1이 V1하게 (의도)하다.

나. [NP2가 NP1을 [(NP1이) V1]-게 V2] (결과 구문)
NP2가 V2함으로써 그 결과 NP1이 V1의 상태에 이르다.

다. [NP2가 NP1을 [(NP1이) V1]-게 V2] (판단 구문)
NP2가 V2함으로써 그 결과 (인식 속에서) NP1이 V1하다(고 생각하다).

라. [NP2가 [NP1이 V1]-게 V2] (목적 구문)
NP2가 V2함으로써 그 결과 NP1이 V1하기를 희망하다.

우리는 'V1-게 V2' 구성을 구문으로 다루므로 그 구성의 일부인 어미 '-게'의 문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 '-게'는 최현배(1937)에서 감목법(자격법)의 일종인 어찌꼴, 그 중에서도 둘째 어찌꼴(제2부사형)이라고 하여 '-아/어, -지, -고'와 더불어 부사형 어미로 기술한 이래 부사형 어미,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 등으로 논의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게'의 문법적 성격 이전에 V1과 V2가 가리키는 사건의 관계와 타동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5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역사 자료 말뭉치 자료에서 이들 대상을 확보하고 이들을 V2에 따라 하위분류한다. 우리는 역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현대적인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살피기 위하여 노력한다. 특히 '-게' 구문의 경우 현대 한국어와 형태상 동일하기 때문에 현대적인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한문 원문과의 대조의 방식을 통해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한다.

1.3. 선행 연구 검토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게' 구문 즉 'V1-게 V2' 구성에 관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는 개별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게 하-' 구성으로 나타나는 사동 구문은 사동을 다루는 연구에서, 결과 부사어로 쓰이는 '-게'에 대하여는 결과 구문의 연구에서, 연결어미 '-게'의 용법을 다루는 연구는 부사절에 관한 논의에서 이루어졌다. 각각의 연구에서의 주된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사동은 일찍부터 주목하여 온 연구 주제로 최현배(1937/1971), Shibatani (1973, 1975), Yang(1972), 류성기(1992ㄴ, 1995), 서정수 (1988, 1990), 김성주 (1996, 2003) 등에서 다루어졌다. '-게 하-' 사동문은 흔히 장형 사동이라 불리며 사동사 사동문인 단형 사동과의 비교를 통하여 연구되어 왔다. 두 가지 사동 구문의 의미에 관하여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동시성과 시차성, 강제와 허용 등의 개념이 도입되었다(Shibatani 1975, 김규철, 이지수 등). 피사동주가 목적격으로만 나타나는 사동사 사동문과 달리 '-게 하-' 사동은 피사동주가 목적격 뿐 아니라 주격, 여격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격 현상을 통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변형 생성문법, 관계 문법 등을 도입하여 동일한 기저문의 변형으로 설명하고자 하기도 하였다(Yang 1975, 김정대, 김성주 1996, 2003 등). 한편 김영희(1993)은 무가설 이론에 따라 피사동주의 격은 기저에서부터 다른 것이 표면에 나타난 것이라 하기도 하였다.

사동에 관한 통시적 관점의 연구로는 김석득(1979), 류성기(1988, 1992ㄱ, 1992ㄴ), 유경종(1993), 권재일(1991), 송창선(1993), 이정택(1994, 1996), 최동주(2000), 박소은(2011)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최동주(2000)은 전기 중세 한국어 자료부터 근대 한국어 자료에 이르기까지 사동사 사동문과 '-게 ᄒᆞ-' 사동 구문의 통사적 특징을 결합하는 용언과 피사동주의 격 표시 양상을 중심으로 면밀히 밝혔다.

결과 구문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주로 현대 한국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와시오 류이치(1997), 박소영(2001, 2003), 오충연(2010), 홍기선(2011), 심지영(2016) 등을 들 수 있다. 와시오 류이치(1997)은 결과 구문의 유형을 3단계로 분류하여 강(strong) 결과 구문, 약(seak) 결과 구문, 의사(spurious) 결과 구문을 구분하였고 일본어와 한국어는 주로 약 결과 구문과 의사 결과 구문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박소영(2001, 2003)은 '-게' 부사어를 결과부사(형)으로 정립하고 한국어 결과 구문의 기본적 특징을 제시하였다. 심지영(2016)은 결과 구문의 정의를 의미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연구의 시야를 넓힘으로써 그동안 관련을 짓지 못하던 다양한 구문을 결과 구문의 개념 아래 포착하였다.

연결어미 '-게'의 용법과 관련하여 현대 한국어의 논의에서 [결과](서정수 1995, 윤평현 1988, 2005, 이은경 2000), [목적](박진희 2011) 등으로 기술되어 왔다. 중세 한국어를 다룬 허웅(1975)에서는 [미침법]의 연결어미로 파악하였다.

한편 '-게' 자체의 통시적 변화에 대하여는 그 형태, 의미가 현대 한국어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크게 논의된 바가 없다. '-이'계 부사어와 '-게'계 부사어의 의미 차이 및 '-이'계 부사어가 '-게' 계 부사어로 바뀌는 양상에 대하여도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이광정(1983), 박성현(1989), 방영심(2003, 2008) 등이 그 예이다.

본고는 현대 한국어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중세 및 근대 한국어의 'V1-게 V2' 구성이 보이는 '-게' 구문의 특징과 역사적 발달 양상을 통합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4. 논의의 구성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15세기 한국어에 나타나는 '-게' 부사형의 성격과 'V1P-게 V2' 구문의 특징을 공시적인 관점에서 살피고 '-게' 구문의 유형을 분류한다. 이에 따라 사동 구문, 목적 구문, 결과 구문, 판단 구문을 나누고 통시적 연구를 위한 기초적 틀을 마련한다.

제3장에서는 ‘-게 ᄒᆞ-’로 나타나는 ‘-게’ 사동 구문에 대하여 다룬다. ‘-게 ᄒᆞ-’의 선대형인 음독 구결 자료의 ‘-ᄉᆞᄭᅳ-’의 통사론적 특징과 15세기 이후 ‘-게 ᄒᆞ-’의 통사론적 특징을 구문 구조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V1P게 V2’ 결과 구문의 통사·의미적 특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V2의 성격에 따라 상태 변화를 수반하는 타동사가 쓰이는 경우를 전형적인 결과 구문으로 본다. V2가 제조동사인 경우, V2가 자동사인 경우, V2가 ‘굴-’인 경우 역시 결과 구문의 구문 구조의 틀에서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V1P-게 V2’ 판단 구문의 통사·의미적 특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판단 구문과 결과 구문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후대에 나타나는 ‘-게’ 판단 구문이 발달하는 양상을 다룬다. V2에 ‘너기-’, ‘싱각ᄒᆞ-’ 등 사유 동사가 오는 전형적인 판단 구문의 경우를 살펴보고, 심리 형용사와 ‘-게’가 결합하여 판단 구문의 용법이 확장해 가는 양상을 다룬다.

제6장에서는 ‘V1P-게 V2’ 목적 구문의 통사·의미적 특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중세 한국어의 목적 구문은 V2가 이동의 타동사, 화법 동사인 경우로 제한되며, 이들 동사의 의미적 특성상 사동 구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을 논의한다. 또한 ‘-게’와 결합하는 V1P의 문법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게’가 목적의 연결어미로 발달해 가는 양상을 살펴본다.

제7장은 결론으로 지금까지 밝힌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남은 문제를 논한다.

1.5. 인용 자료

본고는 ‘21세기 세종계획 국어 역사자료 말뭉치’와 이를 정비한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 결과물을 활용하였다. 말뭉치 검색은 서울대학교 박진호 교수의 검색 프로그램인 Uniconc를 활용하였다. 《월인석보》와 《석보상절》과 같은 불경 언해 문헌의 경우, 내용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저경을 참고하여 그 원문을 제시하였다.[6] 본고에서 인용하는 문헌 자료의 목록과 연대, 약호는 다음과 같다.

<한글문헌>

(15세기)

문헌명	연도	약호
석보상절	1447	석상
월인천강지곡	1447	월곡
월인석보	1459	월석
능엄경언해	1461	능엄
묘법연화경언해/법화경언해	1463	법화
상원사어첩・동중창권선문	1464	상원
금강경언해	1464	금언
선종영가집언해	1464	영가
원각경언해	1465	원각
구급방언해	1466	구방
목우자수심결	1467	목우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1467	몽법
분류두공부시언해-초간본	1481	두시-초
삼강행실도-런던대본	1481	삼강-런
금강경삼가해	1482	금삼
남명집언해	1482	남명
불정심다라니경/관음경언해	1485	관음
구급간이방언해	1489	구간
진원권공	1496	권공
육조법보단경언해	1496	육조

(16세기)

문헌명	연도	약호
속삼강행실도	1514	속삼
몽산법어-고운사본	1517	몽법-고
번역노걸대	1517	번노
번역박통사	1517	번박
번역소학	1518	번소
이륜행실도-옥산서원본	1518	이륜-옥
정속언해-이원주교수본	1518	정속-이
간이벽온방	1525	간벽
훈몽자회-예산문고본	1527	훈몽

6) 中華電子 佛典協會(http://www.cbeta.org/)를 참고하였다.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1541	우마
분문온역이해방	1542	분문
구황촬요	1554	구촬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송광사본	1563	은중
칠대만법	1569	칠대
신증유합	1576	신합
경민편-중간본	1579	경민-중
주자증손여씨향약언해-화산문고본	1579~74	여씨-화
속삼강행실도-중간본	1988	속삼-중
천자문-석봉천자문	1583	천자-석
소학언해	1588	소언
시경언해	1588	시언
논어언해	1590	논어
맹자언해	1590	맹언
순천김씨언간	16세기	순천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16세기	장수
양호당이덕열언간	159-	양호당언간

(17세기)

문헌명	연도	약호
언해두창집요	1608	두창
언해태산집요	1608	태산
연병지남	1612	연병
동의보감탕액편	1613	동의
동국신속삼강행실도	1617	동신
마경초집언해	1623~49	마경
분류두공부시언해-중간본	1632	두시-중
가례언해	1632	가언
신전자취염소방언해	1635	염소
화포식언해	1635	화포
두창경험방	1636~74	두경
권념요록	1637	권념
벽온신방	1653	벽신
어록해-초간본	1657	어록-초
경민편-개간본	1658	경민-개
여훈언해	1658	여훈

신간구황촬요-윤석찬교수본	1660	신구-윤
어록해-개간본	1669	어록-개
노걸대언해	1670	노언
첩해신어-원간본	1676	첩신-초
박통사언해	1677	박언
신간구황촬요-가람문고본	1686	신구-가
역어유해	1690	역어
계축일기	17세기	계축
서궁일기	17세기	서궁
서전언해	17세기	서전
현풍곽씨언간	17세기	곽씨
언해납약증치방	17세기	언납

(18세기)

문헌명	연도	약호
오륜전비언해	1721	오전
삼강행실도-영조판	1726	삼강-영
여사서언해	1736	여사
어제내훈언해	1737	어내
어제소학언해	1744	어소
동문유해	1748	동해
개수첩해신어	1748	첩신-개
지장경언해	1752	지장
염불보권문-동화사본	1764	염보-동
박통사신석언해	1765	박신
염불보권문-홍률사본	1765	염보-홍
청어노걸대	1765	청노
한청문감	1770?	한청
십구사략언해	1772	십구
삼역총해-중간본	1774	삼역
역어유해보	1775	역보
염불보권문-해인사본	1776	염보-해
재물보	1780	재물
자휼전칙	1783	자휼
병학지남	1787	병학
몽어유해	1790	몽해
인어대방	1790	인어
첩해몽어	1790	첩몽

무예도보통지	1790	무예
고산유고	1791~98	고산
증수무원록언해	1792	무언
중간노걸대언해	1795	중노
경신록언석	1796	경신
오륜행실도	1797	오륜

(19세기)

문헌명	연도	약호
태상감응편	1852	태상
쥬년쳠례광익	1865	쥬년
과화존신	1880	과화
한불자뎐	1880	한불
조군영적지언해	1881	조군
셩교졀요	1882	셩교
척사윤음	1882	척사
진교절요	1883	진교
징보언간독	1886	징보
예수성교전서	1887	예수
사민필지	1891	사민
셩경직히	1892	셩경
텬로력뎡	1894	텬로
신정심상소학	1896	심소
대죠션독립협회회보	1896	독회
독립신문	1896	독립
대조선독립협회회보	1897	대회
쥬교요지	1897	쥬교
매일신문	1898	매일
신약전서	1900	신약
청어노걸대	19세기	청노
태평광기언해, 금	19세기	태평

<구결자료>

《楞嚴經》 -한글박물관본	14세기 경	능엄(한글박물관)
《梵網經菩薩戒》	14세기 경	범망

2. 기본적 논의

제2장에서는 15세기 한국어에 나타나는 '-게' 구문을 공시적으로 분석하고 하위 유형을 분류하여 통시적 논의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다. 2.1에서는 15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V1-게' 부사형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것이 'V1-게 V2' 구문 안에서 보이는 [결과]와 [방식]의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2.2에서는 'V1-게 V2' 구성을 크게 사동 구문, 결과 구문, 판단 구문, 목적 구문으로 나누고 각각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 3장 이후의 논의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2.1. 중세 한국어 '-게'의 특징

논의에 앞서 중세 한국어의 어미 '-게'의 수의적 변이형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게'는 '-긔', '-ᄀᆡ' 등의 다양한 수의적 변이형을 보인다. '-게'와 '-긔, -ᄀᆡ'의 차이에 대하여 각각 신형과 구형의 이형태로 본 견해(이기문 1972, 안병희 1967)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광호(1991)에서는 사동의 의미 차이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고영근(1962/1995)에서는 이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밝힐 수 없으며 수의적 변이 관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긔'와 '-ᄀᆡ'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모음조화에 따른 변이형을 가지는 것으로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ᄀᆡ'의 용례는 《월인석보》의 '오시 ᄌᆞᄆᆞᄀᆡ 우르시고'<8: 101>, 《석보상절》의 '드트리 ᄃᆞ외ᅀᅵ 붓아디거늘'<6: 30b> 등 두 예 외에는 거의 확보되지 않는다. 본고는 15세기에 나타나는 '-게'와 '-긔', '-ᄀᆡ'를 모두 같은 문법 기능을 하는 한 형태소의 수의적 변이형으로 본다.

다음으로 중세 한국어의 어미 '-게'의 일반적 용법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허웅(1975: 601-605)에서는 '미침법'의 연결어미로 '-게'와 '-ᄃᆞ록(애)'[7]를 들

7) '-도록'은 15세기 '-ᄃᆞ록'으로도 나타나며 이미 이 시기부터 후행 모음의 원순성의 영향을 입은 '-도록' 형태가 공존하였다. 이 밖에도 '-ᄃᆞ로개', '도로개' 등의 형태도 등장한다. 본

었다. ‘미침법’이란 “어떠한 상황(경지)에 미침(이름)을 나타내는 이음법”이라고 정의하였다. ‘-게’의 의미를 따로 기술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음 일을 계속함을 나타내며 줄기에 바로 붙는다”는 특징을 가진 ‘도록’과 비슷한 뜻을 가졌다고 하였다. 또한 ‘-게’의 특색으로 “도움풀이씨 ‘ᄒᆞ다’, ‘몯ᄒᆞ다’, ‘아니ᄒᆞ다’, ‘말다’, ‘ᄃᆞ외다’가 이어나는 일이 많다”(허웅 1975: 603)고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사동 구문과 결과 구문, 목적 구문을 큰 틀의 ‘-게’ 구문으로 묶어 보고자 하는 본고의 태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위 유형들의 차이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1) 가. 그듸 가아 아라듣게 니르라 <석상 6: 6>
나. 硏은 다ᄃᆞᆮ게 알씨라 <月釋 序 18>
다. 慈悲ᄂᆞᆫ 衆生ᄋᆞᆯ 便安케 ᄒᆞ시ᄂᆞᆫ 거시어늘 <석상 6: 5>
라. 三乘ᄋᆞᆯ 크게 여ᄅᆞ시며 =大啓三乘 <月釋 序 7a>

(1)은 허웅(1975)에서 미침법의 ‘-게’의 예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미침법이라는 같은 용법 아래에서 다루기보다는 더 세분화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1가)의 경우는 V1이 ‘알아듣도록, 알아듣게 하기 위해’ 말하라는 V2의 목적으로 해석되며, (1나)는 ‘안 결과, (궁극적인 智에) 다다르다’라는 V2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다)는 ‘중생을 편안하게 하다’라는 사동 의미를 나타낸다. (1라)는 앞의 세 예와 달리 ‘크다’를 별개의 사건으로 보기 어렵고, 결과나 목적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이 경우 ‘크게’는 정도부사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같은 구성을 보이지만 (1)의 예들이 보이는 구조적 차이를 드러내어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세 한국어의 어미 ‘-게’의 쓰임의 특징은 이것이 ‘V1-게 V2’의 구문 속에서 사용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3장부터 6장에서 이러한 구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렇지만 15세기의 ‘-게’의 용법 중에서 ‘-게’ 구문의 것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예 역시 존재한다. 우선 ‘-게’가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가 그러하다.

고에서는 기술상의 편의를 위하여 이 형태소의 대표형으로 ‘-도록’을 사용한다.

(2) 가. 八十 小劫이 ᄎᆞ게 ᄂᆞᆷ 爲ᄒᆞ야 펴 니ᄅᆞ더니 (滿八十小劫히 爲人演說ᄒᆞ더니) <법화1: 112a>

가'. ᄒᆞᆫ 히를 ᄎᆞ게 솔ᄀᆞ티 퍼러ᄒᆞ도소니 ᄒᆞᆫᄢᅴ 菊花를 기들워 누러ᄒᆞ리로다 (滿歲如松碧 同時待菊黃) <두시 18: 23a>

나. 淨水ᄒᆞᆫ 盞ᄋᆞ로 一日 一夜를 디나게 菩薩ㅅ 알ᄑᆡ 노ᄒᆞᆫ 後에 合掌ᄒᆞ야 머거지이다 請ᄒᆞ야 <月釋 21: 168a> (以淨水一盞, 經一日一夜, 安菩薩前, 然後合掌請服,)

다. 坐榻을 ᄀᆞᄉᆞᆯᄒᆡ 나게 ᄃᆞ랏ᄂᆞ닐 그르리로다 (解榻秋露懸) <두시 22: 54b>

(2)는 'V1P-게'가 시간 명사를 포함하여 명백한 시간적인 [도급]의 의미로 해석되는 예들이다. 주로 'ᄎᆞ-', '디나-', '나-' 등 시간 경과의 의미를 가지는 용언이 V1에 해당한다. (2가)의 'ᄎᆞ-'는 자타양용동사로, (2가')과 같이 시간 명사를 목적어로 취하기도 한다. (2나)의 '디나-'도 15세기에 자타양용동사 용법을 보이는 것인데(장윤희 2002, 황국정 2009), '-게'와 결합하는 경우는 (2나)와 같이 목적어를 취하는 것만 나타난다. (2다)에서는 시간 명사가 처격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들 V1은 한문 원문의 '萬', '至', '盡', '經' 등에 대응된다. 이들은 일견 V2의 사건이 지속되는 동안 V1의 경지에 이른다는 시간적 배경의 [도급] 의미에 매우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가)에서 '팔십 소겁이 찰 때'라는 시간은 '남을 위하여 펴 말하는' 사건이 지속되어 다다른 시간을 말한다. V2에 쓰이는 '-어ᄒᆞ-'(2가'), '-어잇-'(2다) 등의 구성도 이러한 [+지속성]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본고는 (2)과 같은 경우는 '-게' 구문이 보이는 전형적인 양상, 즉 타동성이나 사건구조의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게'는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어미 '-게'로 보고자 한다.[8)]

8) 이러한 [도급]의 '-게'의 수의적 변이형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언급해 두고자 한다. 앞서 밝혔듯 '-게'와 '-긔'는 15세기에 거의 같은 용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동 구문, 결과 구문, 목적 구문 등에서 용법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2)와 같은 시간적 배경의 [도급] 의미의 경우 모두 예외 없이 '-게' 형만 쓰이고 '-긔' 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자료상의 한계일 수도 있고 유의미한 빈칸일 수도 있다. '-게'의 기원을 선어말어미 '-거-'와 부사형어미 '-이'의 결합으로 본 서태룡(1997) 등의 선행연구도 있는 만큼, '-게'의 시간적 용법과 '-긔', '-게'의 수의적 변이형의 문제, '-거-'와 의 관련성

다음은 'V1-게'가 정도 부사로 사용된 예이다. 정도 부사(degree adverb)란 어떤 속성의 정도를 보이며, 정도의 높음 혹은 낮음을 보이는 부사이다(홍사만 2002). 중세 한국어의 '-게' 부사어가 이러한 정도부사적인 쓰임을 보이는 예에는 '크게'가 있다. '크-'는 15세기에 '-이' 파생부사인 '키'와 '-게' 결합형인 '크게'의 두 가지 부사형을 보인다.

(3) 가. 小乘은 밧긜 向ᄒᆞ야 求ᄒᆞᆯᄊᆡ 甚히 <u>크게 어렵거니와</u> (小乘은 向外求索故로 甚大艱難커니와) <법화 1: 203a>
나. 三乘ᄋᆞᆯ <u>크게 여ᄅᆞ시며</u> 八敎ᄅᆞᆯ 너비 부르샤 (大啓三乘ᄒᆞ시며 廣演八敎ᄒᆞ샤) <월석 序 7a>

(4) 가. 所願이 ᄆᆞᅀᆞᆷ 조차 <u>키 가ᅀᆞ며로ᄆᆞᆯ</u> 닐위리니 <능엄 4: 62b>
나. 大集은 <u>키 모ᄃᆞᆯᄊᆡ니</u> 부톄 一切 大衆을 ᄀᆞ장 모도아 니ᄅᆞ샨 經이라 <석상 6: 46a>

(3)은 '크게'의 예이며 (4)는 '키'의 예이다. 동사와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으며, 피수식어의 정도가 큼을 의미한다. '크게'와 '키' 사이의 통사·의미적 차이를 논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박성현(1989: 48)에서는 '크-'의 부사형 '키'와 명사형 '킈'의 발음상의 유사성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크게' 형을 부사형으로 널리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 바 있다. 이를 검증하기는 어려우나 15세기의 '-게'의 용례 중 (3)과 같이 정도 부사의 용법을 보이는 경우는 '크게'가 유일하다. 17세기 이후 '젹게', '넘게('너무'의 의미)' 등이 더 나타난다. 정도 부사로 쓰이는 '크게'는 '-게' 결과 구문의 결과 사건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수식 용법을 보이는 '크게' 류의 부사어는 우리의 논의에서 제외한다.

또 다른 경우는 'V1-게'가 [방식] 부사로 쓰이는 경우이다.

(5) 가. 如來ㅅ 廣大ᄒᆞᆫ 나라해 <u>어위에 거러</u> ᄒᆞ마 能히 부텨와 活計 ᄒᆞᆫ가지어니 (<u>闊步</u>如來廣大刹ᄒᆞ야 旣能與佛同活計어니)<금삼 3: 46b>

등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연구가 필요하다.

나. 法이 나 업슨 ᄃᆞᆯ 보면 주검 ᄀᆞᆫ거늘 疑心 갓ᄀᆞᆫ ᄆᆞᅀᆞᄆᆞᆯ 브터 <u>거츠리 혜여</u> 窮究ᄒᆞ야 묻ᄂᆞ니 이 니ᄅᆞ샨 너흐루미며 더욱 <u>갓ᄀᆞ리 거츨에 보ᄂᆞ니</u> 이 니ᄅᆞ샨 헤드루미라 (觀法無我ᄒᆞ면 猶如死屍어ᄂᆞᆯ 由疑倒心ᄒᆞ야 <u>妄計</u>窮詰ᄒᆞᄂᆞ니 是謂嘈囋이며 轉<u>見倒妄</u>ᄒᆞᄂᆞ니 是謂狼藉也ㅣ라<법화 2: 111b>

(5가)의 '어위에 거러'는 '闊步'를 언해한 것이다. '어위-'는 V2인 '걷-'의 결과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걷는 모습을 묘사한다. [방식] 부사라고 할 수 있다. 한문 원문도 수식어-피수식어의 어순을 이루고 있다. (5나)의 '갓ᄀᆞ리 거츨에 보다'는 '見倒妄'를 언해한 것인데, 어떠한 대상에 대해 그것이 '거꾸로 망령되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봄의 [방식]이 거꾸로 되고 망령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바로 앞의 문장의 '거츠리 혜여'(妄計)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5)는 [방식]으로 쓰인 '-게'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5세기의 '-게'가 [방식]으로 쓰인 매우 드물다.

마지막으로 V1과 V2가 의미상 대등하게 연결된 경우이다.

(6) 白僵은 <u>희게 쌋쌋ᄒᆞᆫ</u> 형상이오 <증수무원록 1: 47b>

(6)은 18세기 <증수무원록>의 예로 한문 원문의 '白僵'에 대한 주석문이다. '白'과 '僵'은 의미상 대등 관계에 있으나 이를 'V1-게 V2' 형식으로 언해하였다. 중세 한국어에는 이러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역시 '-게' 구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2.2. 중세 한국어의 'V_1P-게 V_2' 구문의 유형과 특징

이 절에서는 중세 한국어 '-게' 구문의 하위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게' 구문의 분류에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후행 서술어인 V2의 의미 및 논항 구조이다. 우리는 앞서 1.2에서 전형적인 '-게' 구문의 구문 구조와 특징에 대해 살

펴보았다. 그것을 다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7) [NP2가 NP1을 [(NP1이) V1]-게 V2]
NP2가 V2함으로써 그 결과 NP1이 V1하다.

(8) 가. 형식적 특징: 'V1P-게 V2'의 형식을 띤다.
나. 문법적 특징: 전형적으로 V2에 타동사가 쓰인다.
다. V2의 주어 NP2는 높은 유정성을 띤다.
라. V1과 V2의 주어가 반드시 다르다.
마. 시간적 선후관계: V1은 후행사건, V2는 선행사건이다.
바. 인과적 관계: V1은 결과 사건, V2는 원인 사건이다.
사. V1P의 결과 상태는 V2의 목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구문 구조와 특성과 아울러 각 구문이 보이는 유형별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3장 이후의 논의의 기초를 다지고자 한다.

2.2.1. 'V1P-게 ᄒᆞ-' 사동 구문의 특징

사동 구문의 구문 구조는 '-게' 구문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인다.

(9) [NP2가 NP1을 [(NP1이) V1]-게 ᄒᆞ-]
NP2가 시킴으로써 그 결과 NP1이 V1하게 (의도)하다.

흔히 사동주(causer)와 피사동주(causee)로 불리는 두 참여자의 관계는 의도를 가지고 사동 사건을 일으키는 NP2와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 피사동 사건을 일으키는 NP1로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동은 원인과 결과라는 두 미시사건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거시사건(Comrie 1980)이나 시간적으로 밀접한 두 사건 사이의 원인(cause)과 결과(effect) 관계를 지칭한다(Shibatani 1976: 48)는 논의에서 보듯 두 사건의 존재와 그 관계

성에 의해 정의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두 사건이 두 개의 서술어로 나타나는 'V1P-게 ᄒᆞ-' 구성은 원인 사건에 해당하는 'ᄒᆞ-'와 결과 사건에 해당하는 'V1P'이 언어화되어 있으므로 사동의 의미적 구조가 통사적으로 투명하게 반영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유형론적 관점에서 문장의 결합가(valency)를 변화시키는 기제에 관하여 연구한 Dixon(2002)의 관점에서 사동은 기저의 S 논항을 O 기능을 하도록 하고 새로 도입하는 논항이 A 기능을 하게 하여 결합가를 늘리는 기제로 정의된다. 다음은 Dixon(2002)에서 제시한 원형적 사동의 특징이다.

(10) 가. 기저의 자동사 절에 적용되어 타동사 절을 만든다.
나. 기저의 S 기능의 논항(피사동주)이 O 기능을 한다.
다. 새로운 논항(사동주)이 도입되어 A 기능을 한다.
라. 사동의 명시적인 형식적 표지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동의 원형적 성격에 비추어 보아도 'V1P-게 ᄒᆞ-' 구성은 원형적 사동에 부합한다. (10가)와 같이 V1이 자동사일 때 뿐 아니라 타동사문, 계사문일 때에도 결합하고, (10나)와 같이 피사동주의 격이 목적격으로 나타난다. 한국어에서는 피사동주가 주격이나 여격, 조격으로도 나타나므로 이는 더 포괄적인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게 ᄒᆞ-' 구성은 (10다)와 같이 새로운 논항 NP2를 도입하고 (10라)와 같이 '-게 ᄒᆞ-'라는 명시적인 표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게 ᄒᆞ-' 구성은 의미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사동의 원형적 특징을 보이는 전형적인 사동 표지라 하겠다.

15세기 '-게' 구문의 용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V2가 'ᄒᆞ-'인 '-게 ᄒᆞ-' 사동 구문이다. 어미 '-게'가 사용된 3,500여 예 중 '-게 ᄒᆞ-' 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900여 예로 87.1%나 된다. 이는 현대 한국어의 '-게'의 쓰임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유혜원(2007: 30)에서는 현대 한국어 말뭉치 분석을 통해 연결어미 '-게'의 쓰임을 분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게'의 전체 출현 빈도 중 '-게 하-'로 나타나는 비율이 동사의 경우 30.81%, 형용사의 경우 7.32%라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중세 한국어의 '-게'의 용례 중 '-게 ᄒᆞ-' 구문의 상대적 빈도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V1-게 ᄒᆞ-' 사동 구문에 해당하는 15세기 예문을 살펴보겠다.

(11) 가. 내 이제 方便을 ᄒᆞ야 이 藥ᄋᆞᆯ 먹게 호리라 <월석 17: 20b> (我今當設方便, 令服此藥。)

나. 王ᄉᆞ 病을 내 어루 고티ᄉᆞ보리니 나ᄅᆞᆯ 닐웨만 王이 ᄃᆞ외에 ᄒᆞ쇼셔 <釋詳 24:50b> (妾能治王必使得差。願聽我七日爲王。)

(11가)는 V1이 타동사인 경우, (11나)는 자동사인 경우이다. 이외에도 형용사, 계사와도 결합할 수 있었다. 사동 구문은 V2로 'ᄒᆞ-'가 쓰인다는 형식적 특성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분류해 내기 수월하다.

다음의 예는 표면 구조상 'ᄒᆞ-'가 쓰이지 않았지만 문맥상 사동으로 볼 수 있는 예이다.

(12) (王이) 다리옛 고기ᄅᆞᆯ 손소 버혀 매ᄅᆞᆯ 주신대 매 ᄉᆞᆯ보ᄃᆡ 고깃 므긔 비두리와 ᄀᆞᆮ게 주쇼셔 <월석 11: 4b> (自割股肉與鷹。鷹語王言：「王雖以熱肉與我, 當用道理, 令肉輕重得與鴿等, 勿見欺也！)

(12)는 'ᄀᆞᆮ게 주-'라는 동사 연속 구성이 나타난 것이다. 이를 결과 구문과 같이 "준 결과 무게가 비둘기와 같아졌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비둘기와 무게가 같도록/같을 정도로 베어내어 주십시오"와 같이 '같게 만드는' 동작 동사가 더 요구되며 그것은 'ᄒᆞ-'로 볼 수 있다. 한문 원문에도 사동표지 '令'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ᄒᆞ-'를 복원할 수 있고 원문에 사동표지가 사용된 경우는 사동 구문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아래의 (13)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

(13) 가. 橙ᄂᆞᆫ 音欹라 甫 自註蜀人이 以橙로 爲薪ᄒᆞᄂᆞ니 三年에 可燒니라 十畝陰ᄋᆞᆫ 十畝애 시므게 보내라 ᄒᆞ논 마리라 <두시 18: 22b>

나. 그러나 諸法行이 心地 平히 ᄃᆡ니게 뵈샬 아니니 업스실ᄊᆡ 이에 ᄆᆞᄎᆞ매 持地

로 讚ᄒᆞ야 나토시니라 (然이나 諸法行이 無非示使平持心地 故로 此애 終以持地로 讚顯하시니라) <법화 7: 103a>

(13가)의 '시므게 보내-'와 (13나)의 '디니게 뵈-'의 경우는 모두 V1에 동사가 쓰였는데, 결과 구문으로도 사동 구문으로도 해석하기 어렵다. "보낸 결과 심었다", "보인 결과 심지를 평히 지녔다"와 같이 결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12)와 같이 'V1-게' 뒤에 'ᄒᆞ여'를 복원할 수도 없다. (13나)에는 원문에 '使'가 쓰이고 있지만, 그것이 사동사 '示'와 맞물려 '-게 보이-'로 언해되었다. (13가)의 의미는 "심기 위해/심도록 보내다", "심지를 평히 지니도록/지니게 하기 위해 보이다"와 같이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13)과 같은 예문은 제6장에서 살펴볼 'V1-게 V2' 목적 구문의 예로 분류한다. 이때의 '보내-', '뵈-'를 추상화하면 '-게 ᄒᆞ-'의 'ᄒᆞ-'가 보이는 대동사로 치환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매우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는 '-게 ᄒᆞ-' 구성의 'ᄒᆞ-'는 구체적인 동작 동사의 대동사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13)과 같은 목적 구문 및 [목적]의 연결어미 '-게'에 대해서는 2.2.4 및 제6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한편 (14가), (14나)와 같이 표면상 '-게 ᄒᆞ-' 구성처럼 보이지만 사동 구문이 아니라 결과 구문으로 보아야 하는 예가 존재한다.

(14) 가. 蜣螂 세 낫 ᄂᆞᄅᆞᆯ 섯거 ᄀᆞ로ᄃᆡ ᄀᆞ장 ᄀᆞᄂᆞᆯ에 ᄒᆞ야 헌 ᄯᅡ해 ᄇᆞᄅᆞ면 (蜣螂三枚生用右件藥相和研令極細塗所傷處) <구방 하 2b-3a>

가'. ᄇᆡᆨ번을 ᄀᆞᄂᆞᆯ에 ᄀᆞ라 빗복 가온ᄃᆡ 녀코 (白礬細末置臍中) <구간 3: 91a>

나. 새박 너추ᄅᆞᆯ ᄃᆡ허 ᄌᆞᆫᄒᆞᆰ ᄀᆞᆫ게 ᄒᆞ야 (蘿蔴草擣如泥) <구간 6: 68a>

나'. ᄯᅩ ᄌᆞ葱 ᄒᆞᆫ 우후믈 ᄌᆞᆫᄒᆞᆰ ᄀᆞᆫ게 디코 (又方胡蔥一握搗如泥) <구방 하 76b>

이들은 결과 구문의 원인 사건에 해당하는 V2가 전치되고 결과 사건이 뒤따르는 구조로 나타난다. 이때의 'ᄒᆞ-'는 전치된 V2의 대용어에 해당한다. 우리는 (14)의 문장들은 결과 구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동의 의미가 없는 '-게 ᄒᆞ-' 구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

다.

(15) 가. 그 남진이 부방 가게 ᄒᆞ여 길 나갈 제 (其夫ㅣ 當行戍ᄒᆞ야 且行時예) <번소 9: 55a>
나. 또 예 바티ᄂᆞᆫ 쓸 ᄎᆡᆺ원 히여 ᄂᆡ월 초싱의 서울로 가게 ᄒᆞ여시니 이제ᄂᆞᆫ 동ᄂᆡ 쌀 ᄐᆞ라 간ᄂᆞ니라. <순천 57: 4>

(15)는 사동의 의미로 쓰이지 않은 '-게 ᄒᆞ-' 구성의 예이다. 15세기 예문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우며 주로 (15나)와 같이 언간 자료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NP1이 V1]의 주술 구조를 결과 표시부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V2가 자동사인 비전형적 결과 구문의 하나로 다루고자 한다.

2.2.2. 'V1P-게 ᄒᆞ-' 결과 구문의 특징

결과 구문 역시 전형적인 양상을 보인다.

(16) [NP2가 NP1을 [(NP1이) V1]-게 V2]
NP2가 V2함으로써 그 결과 NP1이 V1의 상태에 이르다.

(16)은 V2에 상태변화를 수반하는 타동사가 오는 결과 구문의 구문 구조를 보인 것이다. 이때 NP2는 전형적으로 높은 유정성을 지니며 NP1은 전형적으로 무정물로 나타나 영향을 입어 변화하는 대상이 된다. 이 역시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이라는 사동 구문의 구조와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17) 가. John hammered the metal flat.
나. John wiped the table clean.
(18) 가. 철수가 금속을 평평하게 두드렸다.
나. 철수가 식탁을 깨끗하게 닦았다.

(17)은 영어의 전형적인 타동사 통제 결과구문(transitive control resultative)의 예이고 (18)은 현대 한국어의 전형적인 타동사 결과 구문의 예이다. 원인 사건인 V2에 의해 대상에 해당하는 NP1은 상태의 변화를 입어 V1이 가리키는 결과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현대 한국어의 'V1-게 V2' 결과 구문의 'V1-게'의 문법적 지위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2차 서술어로 보는 견해(김영희 1976), 소절(small clause)로 보는 견해(장영준 2011), 소절로 볼 수 없으며 결과 부사(어)로 보는 견해(박소영 2001, 2003) 등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게' 결과 구문 외에도 '-로' 결과 구문, 'V1-어 V2' 결과 구문 등 결과 구문의 관점을 넓힌 심지영(2016)에서는 이러한 형식적 특성을 넘어서 사건의 구조 즉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이 개념적으로 융합하여 단문 구조 안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결과 구문을 정의하여 '의미 구조'를 중심으로 결과 구문의 연구 범위를 확장하였다. 기존의 영어의 결과 구문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온 결과 구문의 정의가 한국어나 중국어의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영(2016)에서는 기존의 한국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어 결과 구문의 연구 성과에 유형론적 관점과 중국어학의 연구 성과까지 아우름으로써 한국어 결과 구문의 논의를 확장시켰다. 결과 구문을 이렇게 사건 관계의 의미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논의의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심지영(2016: 84)에서는 'XP-게 V'형 결과 구문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아래의 네 가지를 들었다.

(19) 가. 하나의 단문 구조 안에 원인행위(선행행위)와 그 결과를 나타내는 서술 성분이 있는가.
나. 결과 표시 요소가 논항인가.
다. 결과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읽히는가.
라. 결과 구문의 기본 의미 구조인 [X causes Y to become Z by V-ing]를 만족시키는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심지영(2016)에서는 한국어의 'V1P-게 V2' 구문을 다음의 10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인접한 성격의 방식 구문, 묘사 구문을 구분하였다. 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20)과 같다.[9)]

(20) 'V1P-게 V2' 구문의 하위 유형 (심지영 2016)
<결과 구문> (resultative construction)
V1이 형용사인 경우
④ 철수가 나무토막을 매끈하게 사포질했다.
⑤ 어머니가 케이크를 맛있게 구우셨다.
⑥ 철수가 식빵을 얇게 잘랐다.
⑦ 학생들이 교실 바닥을 더럽게 닦았다.
⑧ 학생들이 교실 바닥을 힘들게 닦았다.
⑨ 학생들이 선생님을 훌륭하게 여겼다.
⑩ 아이가 강아지를 못살게 굴었다.
⑪ 반죽이 동그랗게 부풀었다.
V1P가 자동사절인 경우
⑫ 철수가 목이 쉬게 울었다.
⑬ 철수가 숨이 넘어가게 달렸다. (밑줄은 필자)
<방식 / 묘사 구문> (manner / depictive construction)
⑭ 학생들이 책상을 서투르게 닦았다.
⑮ 어머니가 커피를 뜨겁게 드셨다.

심지영(2016)에서는 'V1P-게 V2' 구성을 크게 결과 구문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사동 구문, 방식 혹은 묘사 구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결과 구문을 V1의 성격에 따라 형용사 결과 구문, 자동사절 결과 구문으로 나누었다. 형용사 및 자동사절 결과 구문의 경우 V1P가 나타내는 결과 사태의 성격 혹은 후행하는 동사의 성격에 따라 10가지의 하위 유형을 나누었다. 방식 구문은 비록 형식은 결과 구문과 동일한 'V1-게 V2' 구성을 사용하나, 그 사건 구조는 결과 구문과 달

9) 문장 유형 앞의 동그라미 번호는 심지영(2016)의 예문 번호를 나타낸다.

리 단순하며 V1은 부가적인 성격을 띤다. 묘사 구문은 ⑮의 '커피'와 '뜨겁다'의 관계처럼 주술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방식 구문과 묘사 구문에 대해 심지영(2016)에서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결과 구문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V1의 내용이 V2의 행위가 개념화자에게 불러일으킨 주관적 생각과 태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결과 구문의 구조와 모종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고는 관점에 동의하여 심지영(2016)의 분류를 대체로 받아들이되 기술의 편의를 위하여 V2와 V1의 형태통사적 특성에 따라 분류를 세분화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20)의 예문을 재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21) 'V1P-게 V2' 결과 구문의 하위 유형

<결과 구문>

V2가 타동사인 경우

④ 철수가 나무토막을 매끈하게 사포질했다.

⑤ 어머니가 케이크를 맛있게 구우셨다.

⑥ 철수가 식빵을 얇게 잘랐다.

⑦ 학생들이 교실 바닥을 더럽게 닦았다.

⑧ 학생들이 교실 바닥을 힘들게 닦았다.

V2가 자동사인 경우

⑪ 반죽이 동그랗게 부풀었다.

⑫ 철수가 목이 쉬게 울었다.

⑬ 철수가 숨이 넘어가게 달렸다.

V2가 '굴-'인 경우

⑩ 아이가 강아지를 못살게 굴었다.

<판단 구문>

⑨ 학생들이 선생님을 훌륭하게 여겼다.

가장 큰 차이점은 ⑨의 '여기-' 구문을 별도의 판단 구문으로 분류해 낸 것이다. V2의 행위에 의해 대상이 영향을 입는 결과 구문의 다른 예문과 달리 '여기-' 구문의 대상은 직접적인 영향을 입지 않는다. 심지영(2016: 111)에서는 이때의 'A-게'

는 V2의 인식 작용의 끝에 대상에 대해 가지게 된 인식 내용을 표시한다고 보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 역시 일종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다만 역사적으로 심리 형용사와 '-게'가 결합하는 '-게 여기-'와 같은 구문이 근대 한국어 시기 이후 쓰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판단 구문으로 설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V2의 성격에 따라 타동사인 경우와 자동사인 경우를 나누고, 타동사인 경우 대상의 상태 변화를 유발하는 타동사(④, ⑥, ⑦, ⑧)인 경우와 대상이 V2의 결과 산출되는 제조동사(⑤)인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다. 한편 V2가 자동사인 경우 비대격 동사(unaccusative verb)로 쓰인 경우(⑪)와 비능격 동사(unergative)인 경우(⑫, ⑬)를 다룬다. 한편 V2가 '굴-'인 경우(⑩)는 통사적으로 두 가지 통사구조를 보이는 바, 별도의 결과 구문 유형으로 다룬다.

2.2.3. 'V1P-게 ᄒᆞ-' 판단 구문의 특징

전술한 바와 같이 판단 구문도 결과 구문과 같은 구문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22) [NP2가 NP1을 [(NP1이) V1]-게 V2]
NP2가 V2함으로써 그 결과 (인식 속에서) NP1이 V1하다(고 생각하다).

즉 NP2의 인식 속에서 NP1의 표상된 개념은 인식의 결과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결과가 V1과 같다는 것이다. 일찍이 김영희(1976)에서는 이러한 문장은 기저의 단언 서술어가 있는 약한 단언문[10]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23) 가. 그가 십대를 못마땅{히, 하니, 하게} 여긴다.
나. 그가 십대를/십대가 못마땅하다고 여긴다.

10) 김영희(1976)에서는 Hopper(1973)의 논의를 받아들여 약한 단언 서술어(assertive predicate)과 강한 단언 서술어를 나누었다. 전자에는 '여기-', '보-', '간주하-'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말하-', '단정하-', '주장하-' 등이 있다.

(23가)의 밑줄 친 부사어는 문장에서 필수적인 성분이며 이는 심리 판단 부사어(psychological judgement adverbials)[11]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23나)와 같이 단언서술어를 상위 서술어로 하는 보문화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목적어는 내포 서술어의 의미상 주어이며, 주어로 실현될 수도 있다. (23나)에서 보듯 NP1이 주어로도 실현될 수 있음은 [NP1이 V1]이라는 구문 구조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중세 한국어에는 판단 구문의 양상을 보이는 '-게' 구문은 극히 드물다. 다음은 15세기의 '-게 너기-'의 유일한 예이다.

(24) 師想은 道行을 크게 너기샤 ᄀᆞᄌᆞᆨᄒᆞ샤ᄆᆞᆯ ᄉᆞ랑ᄒᆞ샤미라 (師想은 則景其道行ᄒᆞ샤 而思齊也ㅣ시니라) <법화 5: 45b>

2.2.4. 'V1P-게 ᄒᆞ-' 목적 구문의 특징

마지막으로 목적 구문의 구문 구조는 다음과 같다.

(25) 가. [NP2가 [NP1이 V1]-게 V2]
나. [NP1이 V1게] [NP2가 V2]
NP2가 V2함으로써 그 결과 NP1이 V1하기를 희망하다.

'-게' 구문의 구문 구조에 비추어 '-게' 목적 구문의 구문 구조는 (25가)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통사적으로는 (25나)와 같이 [목적]의 선행절과 그 수단을 나타내는 후행절의 절 접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우리는 (25가)의 관점에서 'V1P-게 V2' 목적 구문으로 볼 수 있는 예들을 살펴볼 것이다. 실제로 역사 자료에서 '-게'가 연결 어미로 사용되는 것은 16세기에 단초가 나타난 이후 후대의 일이

11) Dowty(1972: 51)에서 'I consider him alive.'와 같은 문장의 형용사 'alive'에 대해 심리적 판단을 표현한다고 한 바 있다(김영희 1976 재인용).

므로 이러한 관점의 분석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5가)의 구문 구조는 일견 [목표](goal) 역을 논항으로 가지는 이동 동사의 논항 구조와 대비할 수 있다. 비록 목적 구문에 대한 기술은 아니지만 박소영(2001: 60)에서는 전형적인 결과 구문의 논항 구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목표] 역을 설정하여 기술한 바 있다.

(26) 행동주 [대상, 목표]

박소영(2001)에서는 결과 구문을 이루는 V2의 논항 구조가 (26)과 같으며, 결과부사어는 V2의 [목표] 논항이라고 하였다. 이때의 [목표] 역을 가지는 (26)의 논항 구조는 '보내다, 놓다, 나르다' 등의 이동 동사가 보이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 하였다. 실제로 역사 자료에서 목적 구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게' 구문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V2가 '보내-'일 때라는 점은 결과 구문과 목적 구문 사이의 친연성을 확인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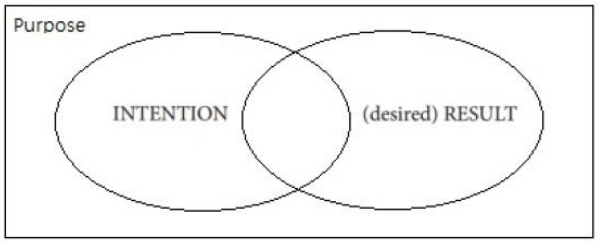
한편으로는 '목적'과 '의도', 그리고 '결과'라는 개념들은 언어 외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Schmidtke-Bode(2009: 19)에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목적(purpose)의 개념 구조를 도식화하였다.

<Intention> → <action> → <(desired) result>
|_____|

<그림 1> 목적의 개념 구조 (오윤경 신연수 2015: 269에서 재인용)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도는 어떠한 행위를 발생시키고, 그 행위가 결과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의도가 반드시 결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Schmidtke-Bode(2009: 19)에서는 '의도성, 목표 방향성, 미래 지향성, 가상적인 결과 상태' 등을 목적의 핵심 개념이라고 파악하였다(오윤경 신연수 2015: 270).

오윤경・신연수(2015)에서는 '목적'을 '의도'에 가까운 목적인 경우와 '(기대되는) 결과'에 가까운 경우로 나누었다. 이를 아래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 2> 목적 의미의 하위 유형(오윤경 신연수 2015: 270)

여기에서 한국어의 '목적'과 관련된 연결어미들은 두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의도'에 가까운 목적을 나타내는 '-러', '-려고', '-고자'와 '결과'에 가까운 목적을 나타내는 '-도록'과 '-게'로 양분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통사적인 차이를 보인다.

(27) 가. 철수는 과제를 하려고 도서관에 갔다.
가'. *철수는 과제를 못 하려고 도서관에 갔다.
나. 철수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하도록 설정해 놓았다.
나'. 철수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설정해 놓았다.

(28) 가. 철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중이다.
가'. *철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고 노력중이다.
나. 나는 철수가 탈출하도록 도와주었다.
나'. 나는 철수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29) 가. 영희는 남자친구를 사귀려고 소개팅을 했다.
가'. *영희는 남자친구를 사귀려고 철수가 소개팅을 주선했다.
나. 철수는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도록 열심히 공부했다. (이상 오윤경 신연수 2015: 274-278에서 인용)
나'. 철수가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도록 엄마는 철수를 여러 학원에 보냈다.

(27)에서 보듯 '-도록'은 능력 부정의 '못'과 공기할 수 있으나 '-려고'는 그럴 수 없다. 이는 '의도'라는 화자의 양태 의미와 화자의 능력이 부정되는 '못'의 의미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박진희 2011: 190). 또한 (28)에서 보듯 '-도록'은 가능 표현과 공기할 수 있으나 '-려고'는 그럴 수 없다. 이것은 '-도록'이 가지는 '불확실한 기대, 예상 가능한 기대'의 의미와 관련된다. (29)에서 보듯 '-려고'는 항상 선·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하는 제약이 있으나 '-도록'은 선후행절의 주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오윤경·신연수(2015)에서는 '-도록'이 보이는 [목적] 의미는 의도성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성에 초점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도록'의 결과적인 의미는 어디까지나 [목적] 의미가 가지는 함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과는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음도 언급하였다. '-도록'이 나타내는 결과는 결과 그 자체를 나타내기보다는 목표된 상태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였다.

(30) 가. 물이 잘 빠지도록 철수가 하수구를 고쳤으나 여전히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
나. 배탈이 나지 않도록 날것을 먹지 않았으나 결국 배탈이 났다. (오은경 신연수 2015: 280)

(30)은 '-도록' 절이 주절의 사건에 의한 예상되는 결과를 나타내지만 후행 문맥에 의해서 결과취소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전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구성에서도 결과 취소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결과의 취소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목적과 결과 의미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박진희(2011)에서는 [목적]과 [결과]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목적절의 상위문은 '행위성'을 띠어야 한다고 하였다.

(31) 가. 누구나 다 보게 큰 글씨로 써 붙였다.
나. 누구나 다 보게 창밖에 걸려 있었다. (박진희 2011: 201)

박진희(2011)에서는 (31가)는 [목적]으로 (31나)는 [결과]로 해석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상위문의 행위성 차이라고 하였다. (31가)는 상위문이 능동적인 행위성을 보이고 있고 (31나)에서 상위문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 기준 역시 [목적]과 [결과]를 구분하는 데에 적절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결과] 역시 상위문의 행위성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와 [목적]의 가장 큰 차이는 상위문 혹은 주절의 사건이 목적절의 사건이 발생하는 직접 원인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다. (31나)에서 '누구나 다 보게'는 '창 밖에 걸려 있는' 사건을 원인 사건으로 하는 결과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것이 저절로 걸리게 되었든, 누군가가 일부로 걸었든 그 자체가 '누구나 다 보는' 사건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또 다른 행위주, 즉 '누군가'가 보는 의지적 행위가 필요하다. A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자연발생적으로 B 사건이 일어나는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를 [결과]로 보고 A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경우를 [목적]으로 본다. 따라서 (31)의 '-게'는 모두 목적 구문의 예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앞서 오윤경・신연수(2015)에서 분류한 '의도'에 가까운 목적과 '결과'에 가까운 목적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재고를 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의도 목적(intentional purpose)'과 '희망/기대 목적(desired/expected purpos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12)]

의도 목적이란 주절의 사건과 목적절의 사건이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 주절의 사태가 발생하면 목적절의 사태가 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주절 주어의 의도, 계획, 목적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므로 '의도 목적'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주절과 목적절의 밀접성은 이 두 절이 동일 주어를 취한다는 점에서 매우 명확히 드러난다. 앞서 살펴본 '-러', '-려고', '-고자' 외에 '-기 위해' 등의 구성이 대표적인 의도 목적의 표지이다.

이에 반하여 기대 목적이란 주절의 사건과 목적절의 사건 간에 개연성은 존재하

12) 이를 직접 목적(direct purpose)와 간접 목적(indirect purpose)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 언어학계에서 '직접 목적', '간접 목적'이라는 용어는 널리 사용되는 '직접 목적어(direct object)', '간접 목적어(indirect object)'라는 용어와 혼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의도 목적'과 '기대 목적'이라는 술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지만 주절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여 목적절의 사태가 달성된다는 보장은 낮은 경우를 가리킨다. 이때의 주절 주어도 의도를 가지고 주절 사건을 일으키지만 의도를 관철시키려 하기보다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하는 정도에 머무르므로 이를 '기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게'와 '-도록'은 바로 이러한 기대 목적의 대표적인 표지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의도 Intention> ⇒ <행위 action> ⇒ <결과 (desired) result>
|_____|

<그림 3> 의도 목적의 개념 구조

<의도 Intention> → <행위 action> -- <결과 (desired) result>

<그림 4> 기대 목적의 개념 구조

<그림 3>과 <그림 4>에서 의도와 행위 사이에는 매우 높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의도 목적과 달리 기대 목적의 경우 행위와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고 간접적인 개연 관계(--)만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대 목적'의 의미로 [목적] 술어를 사용하여 '-게' 목적 구문을 기술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려고'와 '-도록'의 예를 통해 이러한 구분의 정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2) 가. 철수는 과제를 하려고 도서관에 갔다.
나. 철수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하도록 설정해 놓았다.
다. 철수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설정해 놓았다.

(32가)는 의도 목적의 예로, '철수가 과제를 하다'라는 목적절의 사건과 '철수가 도서관에 가다'라는 사건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철수'의 의도는 매우 강하

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절 사태가 발생하면 목적절의 사태가 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지, 그것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함의되지 않는다. (32나)와 (32다)는 기대 목적의 예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하다/게시하지 못하다'라는 목적절의 사건과 '철수가 페이지를 설정해 놓았다'라는 주절의 사건 사이에는 목적절의 사태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철수의 의도와 기대만이 작용할 뿐, 주절 사태의 발생에 의해 목적절의 사태가 일어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이때 목적절의 사태는 주절 주어에 의해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사건에 해당한다. 능력 부정의 '못'이나 의지 부정의 '안'이 결합한 경우 역시 ^V1P의 사태가 주절 주어에 의해 바라마지않는 사태인 것이다.

기대 목적은 '-을 수 있-'과 같은 가능의 양태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다.

(33) 가. 나는 철수가 탈출하도록 도와주었다.
나. 나는 철수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것은 곧 기대 목적이 '기대' 즉 개연성 및 가능성과 관련된 개념임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오연수 신연수(2015: 276)에서도 '-도록'과 '-을 수 있-'의 공기에 대하여 언급하였지만 이 논의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 '-도록'이 가지는 '불확실한 기대, 예상 가능한 기대'에서 비롯한 것으로 의도성에 초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울릴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33)에서 '철수가 탈출하는 상황'은 '내'가 바라는 상황이며 여기에 '나'의 의도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나'는 목적절의 상황이 발생하기를 기대하고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접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뿐이다.

기대 목적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기대 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기대에도 사용될 수 있다.

(34) 가. 철수는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도록 열심히 공부했다.
나. 철수가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도록 엄마는 철수를 여러 학원에 보냈다.

(34가)는 목적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모두 '철수'로 동일한 경우이고 (34나)는 목적절의 주어인 '철수'와 주절의 주어인 '엄마'가 다른 경우이다. 이때 '철수가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다'라는 목적절의 사태가 발생하기를 기대하는 주체는 주절의 주어 즉 (34가)에서는 '철수'이며 (34나)에서는 '엄마'이다. 즉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여부는 기대 목적의 의미에서 중요한 변수가 아니며 주절 주어의 기대와 관련되는지가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와 같이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절 표지가 의도 목적과 기대 목적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여러 언어에서 발견된다. 영어와 일본어에서도 각각 'in order to'와 'so that', '為に'와 'ように'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Mali어에는 세 가지의 목적절 표지가 나타난다(Dixon & Aikhenvald 2009).

(35) 가. va "in order to"
나. iva "intending to" intentional purpose
다. diva "so that" controlled purpose

이중 (35가)는 기본적인 목적 표지로 수혜격/처격의 전치사 pa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35나)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지 i와 목적 표지 va가 합성된 것으로 보이며 주체의 소망, 의도, 계획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35다)는 등위 접속사 da와 의도 목적의 iva가 합성된 것으로 주절은 주체의 소망, 계획에 대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 혹은 그러한 지식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언어에는 사동 구문이 존재하지 않는데 diva를 사용하여 사동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

'-도록'이 보이는 이러한 기대 목적으로서의 특성은 그 기원적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연주(2017: 264-8)에서는 '-도록'이 [결과적 한계]에서 [목적]의 의미로 중의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도록'에 선행하는 절이 나타내는 내용이 발화 상황에서 바람직하게 여겨질 때며 다른 하나는 의무를 부과하는 맥락에서 쓰일 때라고 강조하였다.

(36) 가. 흰 ᄀᆞᄅᆞ ᄒᆞᆫ 근을 누른 밀을 ᄉᆞᆯ혀 ᄯᅥᆨ ᄆᆡᆼ그라 <u>ᄇᆡ 브ᄅᆞ도록 머그면</u> 가히 ᄇᆡᆨ 날이라도 ᄇᆡ 아니 고프고 <보유-윤,4b> (석주연 2006: 57)

나. 뒤흐로 塞北 ᄯᅡ희 깁히 드러 <u>遼東의 다ᄃᆞᆺ도록</u> 텬하의 ᄇᆡᆺ겨 ᄆᆞ음으로 ᄒᆡᆼᄒᆞ는 거시 진짓 큰 ᄉᆞ나희 ᄉᆡᆼ각이라 <삼역 8:15b> (정연주 2017: 263-4)

(37) 가. 오래 셔아 이셔 ᄇᆞ라더니 그 ᄯᅳ니미 <u>몯 보ᄃᆞ록</u> 가ᄃᆡ 乃終내 도라보디 아니ᄒᆞ야시ᄂᆞᆯ <석상 11: 29b> (佇立良久, 女去不現, 竟不迴顧。)

나. 입시우리 ᄆᆞᄅᆞ며 이비 <u>ᄆᆞᄅᆞᄃᆞ록</u> 브르다가 몯호라 (脣燋口燥呼不得) <두시 6: 42a> (정연주 2017: 264)

(36)은 '-도록'이 [결과적 한계]의 의미로도 [목적]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근대 한국어의 예문이다. (36가)에서 'ᄇᆡ 브ᄅᆞ도록'이나 (36나)의 '遼東의 다ᄃᆞᆺ도록'은 발화 상황에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누구도 바라지 않는 상황을 목적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37)가 바로 그러한 상황에 해당한다. (37가)에서 'ᄆᆞᆫ 보ᄃᆞ록'이나 (37나)의 'ᄋᆡ비 ᄆᆞᄅᆞᄃᆞ록'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결과적 한계] 용법으로 쓰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목적]으로 쓰이는 '-도록'은 (37가)와 같이 《신간구황촬요》와 같은 실용서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실용서의 특징은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라'와 같은 지시 혹은 권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의무를 부과하는 상황과 [목적] 의미로의 발달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대 한국어의 '-도록'이 [목적]을 넘어 [사동], [권장], [의지표명] 등 다양한 의미를 담당하는 현상에 대하여 구문 문법적 측면에서 분석한 정연주(2017)에서는 '-도록'의 이러한 발달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38) 가. 'S{결과상태}-도록 VP{의무성 행동}'의 상황이 반복된다.

나. "결과상태"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점"으로 추론된다.

다. 이러한 정보가 누적되면서 전체 덩어리로서 [목적] 의미가 저장된다.

라. [NP(행위자)-이 S{목적내용}-도록 VP{목적적 행동}] 구문이 덩어리로 운

용된다.

마. VP{목적적 행동} 자리에 올 요소가 대략 예측됨으로써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포괄동사인 '하다'가 그 잉여성을 띠게 된 동사구 자리를 채운다.

바. 목적내용의 주체와 목적적 행동의 주체가 다른 경우 자연스럽게 시키는 상황으로 해석되어 [사동]의 의미를 가진다.

사. 목적 내용과 목적적 행동의 주체가 청자인 경우 [권장]의 의미를 가진다.

아. 목적 내용과 목적적 행동의 주체가 화자인 경우 [의지 표명]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분석은 '-도록 하-'의 역사적 발달 과정과도 부합한다.

그런데 '-게'와 '-도록'이 현대 한국어에서 기대 의미 및 사동과 같은 거의 유사한 의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게 하-' 및 기대 목적의 '-게'가 보이는 통시적인 발달 양상은 '-도록'이 보이는 것과 정반대의 방향성을 보인다.

(39) 가. [NP2(사동주)-이 [NP1(피사동주)이/을/로 V1]s-게 ᄒᆞ-] 구문이 [사동]의 의미로 널리 쓰인다.

나. NP2이 사동의 주체로서 사동 행위을 함으로써 NP1이 그것을 하도록 하게 하는 의미이다.

다. V2 자리에 'ᄒᆞ-' 대신 구체적인 목적적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쓰이면서 S{피사동사건}에 [목적]의 의미가 저장된다.

라. S{목적내용}-게 VP{목적적 행동}이 [목적]으로 쓰이면서 '-게'가 [목적]의 연결어미 용법을 획득한다.

마. 목적 내용과 목적적 행동의 주체가 청자인 경우 [명령]의 의미를 가진다('ᄒᆞ게'체의 발달)

바. S{결과상태}-게 VP{타동적 행동}의 상황이 반복되며 [결과]의 의미를 가진다.

즉 '-도록'은 [결과]→ [목적]→ (구문화)→ [사동] 등의 구문적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변화를 겪은 것에 비하여 '-게'는 [사동](구문)→[목적], [사동]→[결과]의 반대 방향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6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3. ‘V1P-게 V2’ 사동 구문

제3장에서는 사동의 의미를 가지는 ‘V1P-게 ᄒᆞ-’를 대상으로 그 통사·의미적 성격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V1P-게 ᄒᆞ-’의 형식을 가지고 사동의 의미를 보이는 것을 사동 구문으로 다룬다. 따라서 V1이 동사이든, 형용사이든, 계사이든 관계없이 이러한 형식적 기준을 갖춘 것을 ‘V1P-게 ᄒᆞ-’ 구문으로 다룬다. ‘V1P-게 ᄒᆞ-’ 구문은 ‘-게’ 구문 중 가장 먼저 등장한 구문으로 가장 원형적인 것에 가깝다. 3.1에서는 한글 문헌 이전의 차자표기 자료에 나타나는 ‘-게 ᄒᆞ-’의 선대형을 살펴본다. 3.2에서는 15세기 이후의 ‘-게 ᄒᆞ-’ 사동 구문에 대하여 살펴본다.

3.1. ‘-게 ᄒᆞ-’ 사동구문의 선대형

‘-게 ᄒᆞ-’ 사동 구문이 문헌 자료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려 시대 후기 음독 구결 자료로 알려져 있다. ‘-게’의 최초의 용례로 추정되는 것이 균여향가에 1예 존재하나[13], 그 외에는 향가나 고려시대 이두, 석독구결 자료에 ‘-게’ 혹은 ‘-게 ᄒᆞ-’ 구성이 사용된 예가 없다(서태룡 1997: 668, 최동주 2000: 306). 박성현(1989: 47)에서는 “이두 체계의 완성 당시에는 ‘-게 ᄒᆞ-’와 ‘-게’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표기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그들의 존재가 미미했음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그러던 것이 14세기 경 기입된 것으로 알려진 《楞嚴經》(한글박물관본), 《楞嚴經》(기림사본), 《梵網經菩薩戒》 등의 음독 구결에는 비교적 활발

13) <청불주세가(請佛住世歌)>의 제7, 8구의 ‘伊 知皆矣 爲米 / 道尸 迷反 群良 哀呂舌’에 나타나는 ‘知皆矣 爲米’가 이에 해당한다. ‘이 알긔 ᄃᆞ외매 / 길 이븐 물 슬흘쎠’(양주동 1954), ‘뎌 알기 ᄃᆞ뷔매/ 길 이반 물아 셜ᄇᆞ리여’(김완진 1980) 등의 해독에서 보듯 많은 연구자들이 ‘알게 되매’ 정도로 해독하였다. ‘皆矣’라는 표기에 대하여 황선엽(2007: 286)에서는 보통 “다, 모든”과 같이 훈독자로 읽는 ‘皆’가 문법 형태소를 나타내는 것이 독특하며, ‘矣’가 말음첨기로 쓰인 것은 이를 분명히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한편 ‘知皆矣 爲米’의 ‘爲’를 해석함에 있어 황선엽(2002)에서는 중세 한국어에서도 ‘-게 ᄃᆞ뷔-’가 보조용언을 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을 들어 ‘ᄒᆞ-’로 읽어 사동 구문으로 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하게 표기에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이 새로운 언어 형식이 당대 언어 생활에 널리 쓰이게 되었음을 방증한다.

현전하는 最古의 음독구결 자료는 13세기 말의 것으로 추정되는 《능엄경》(한글박물관본)이다.[14] 본고에서는 《능엄경》(한글박물관본)(이하 《능엄경》)과 《梵網經菩薩戒》(이하 《범망경》)[15]에 나타난 음독 구결을 중심으로 '-게 ᄒᆞ-' 사동 구문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능엄경》에서 '-게 ᄒᆞ-'의 대응 형식은 모두 'ᄒᆞᄉᆞ ㅅ-'로 현토되고 있다.

(1) 가. 於是ㅏ 是首楞之大定ㅅㅅ 資般若之大慧ㅅㅅ 使定慧ㅈ 均等ㅅㅈ 學行ㄴᄆᆞ 兩全ㅅㅋ 而究竟ㅅㅋ 趣於一乘實相ᄉᆞ ㅅㄷㅌ <능엄(한글박물관) 1: 3a>

나. 告阿難言ㅅㅎㅁ 吾 今ㅋ 爲汝ᄆᆞ 建大法幢ㅅㅋ 亦令十方一切衆生ᄆᆞ 獲妙微密性淨明心 得淸淨眼ᄉᆞ ㅇㅐㅅ <능엄(한글박물관) 1:14a>

다. 而世尊ㄴ 大慈ᄆᆞ 復欲持戒衆生ㄴ 謹潔無犯ㅅㅈ 眞修行者ㄴ 不遭枝岐ᄉᆞㅇㅐㅅㅅㅅㅎ <능엄(한글박물관) 1:3b>

(2) 가. 依法ㅁ 不依人ㅅㅋ 直使無明生死ᄆᆞ 畢竟滅盡ㅇㅁ <능엄(한글박물관)01:1a>

---

14) 이에 대한 자세한 서지사항은 남풍현(1995)을 참고할 수 있다. '안동본', '박동섭 소장본', '소곡본' 등으로도 불리던 이 책은 권두에 建炎 元年(1127) 及南이 撰한 <수능엄경요해서>를 가지고 있으며, 北宋本의 계통을 잇는 매우 이른 시기의 간본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1200년대에 간행된 중국의 판본으로 보이며, 기림사의 비로자나불복장전적 중 이 책을 국내에서 1309년에 복각한 것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 책이 국내에 들어온 것은 1309년 이전으로 보이며, 남풍현(1995)에서는 이 자료에 기입된 음독구결을 13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한글박물관본의 구결과 차이를 보이는 기림사본 <능엄경>도 존재한다. 이 책은 1401년에 만들어진 목판본이다. 이 책에 구결을 기입한 시점은 간행 직후로 보이나 그 언어의 성격은 그보다 앞선 시기의 언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정재영 1995: 3). 기림사본 <능엄경>은 권2, 권3, 권4의 3권 3책으로 되어 있는데, 선행 연구에 따르면 권2, 3과 권4의 구결이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게' 사동 구문과 관련하여도, 권2, 3에서는 주로 '-ᄉᆞ ㅅ-'로 나타나는 반면 권4에서는 '-ᄉᆞㄴ ㅅ-'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정재영 1995: 5). 한글박물관본과 기림사본의 구결은 서로 계통이 다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 두 자료의 사동 구문의 차이에 대하여는 후고를 기약하겠다.

15)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서지사항은 이승재(1990), 정재영(1996)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책은 大德 丙午(1306) 鐵山紹瓊의 後識가 붙어 있으며, 嚴仁燮本, 국립도서관본, 한국학중앙연구원본의 세 이본이 존재한다. 정재영(1996)에서는 글자의 마모 정도나 구결의 차이 등을 근거로 엄인섭본이 가장 앞선 자료이며 나머지 자료는 그 후쇄본으로 파악하였고, 이들 모두 14세기 길지 않은 시간 속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

나. 佛之威神ᄭᅴ 令諸世界ᄭᅴ 合成一界ᄭᆞᄂᆞᆯᄒᆞ <능엄(한글박물관) 1:11b>

(1)은 《능엄경》 권1에 나타난 '-ㅽ ᄭᆞ-'의 예이다. (1)의 원문에는 모두 사동표지 '使', '令' 혹은 원망을 나타내는 '欲'이 쓰이고 있다. 《능엄경》에서 사동표지가 원문에 있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2)와 같이 '-게 ᄒᆞ-'가 현토되지 않는다. 따라서 (1)과 같이 원문에 사동표지가 있음에도 '-ㅽ ᄭᆞ-'가 현토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ㅽ ᄭᆞ-'가 현토된 경우는 (1가), (1다)와 같이 사동표지와 그것이 지배하는 동사구가 거리가 멀거나, (1나)와 같이 사동표지가 직접인용문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아래의 (3)은 '-게 ᄒᆞ-'의 용례로 보지 않는다.

(3) 가. 如是ㅽᄂᆞᄉᆞᆡ 世尊ᄒᆞ <능엄(한글박물관) 1: 14b>
가'. 올ᄒᆞ시이다 世尊하 <능엄 1: 99a>
나. 故ᄭᅴ 再與辯之ᄭᆞᄌᆞ 使明淨也ㅽᄉᆞᆫᄒᆡ <능엄(기림) 2: >
나'. 故ᄭᅴ 再與辯之ᄭᆞᄉᆞᆫ 使明淨也ㅽᄉᆞᆫᄒᆡ <능엄(한글박물관) 2: >
나''. 이런ᄃᆞ로 다시 ᄀᆞᆯ히샤 ᄇᆞᆯᄀᆞ며 조케 ᄒᆞ시니라 (是爲覺心餘塵일ᄉᆡ 故로 再與辯之ᄒᆞ샤 使明淨也케 ᄒᆞ시니라) <능엄 2: 96a>

(3가)는 의미상 사동과 관련이 없다. 소위 확인법의 '-거-'와 관련된 것으로 '-거오이다' 정도로 해석된다. (3나)는 최동주(2000: 310)에서 '-ㅽ ᄭᆞ-'의 'ᄭᆞ'가 생략된 것으로 파악한 기림사본 《능엄경》의 예이고 (3나')는 이에 대응되는 한글박물관본의 예이다. 그러나 이 둘 모두 사동과 관련이 없는 '*-거샷다'의 표기로 보인다. 음독구결의 특성상 '使明淨也'의 구를 한 단위로 읽었으며 그 원문에 우연히 사동표지 '使'가 쓰였을 뿐이다.

'-게 ᄒᆞ-'의 표기와 관련하여 정재영(1995)에서 밝혔듯, 《능엄경》(기림사본) 권4의 경우에는 '-ㅽᄂᆞᆫ ᄭᆞ-'만 나타난다.

(4) 가. 唯願如來 不捨大悲ᄭᆞᄉᆞᆫ 示我在會 諸蒙暗者ᄭᆞᄉᆞᆫ 捐捨小乘ᄆᆞ 畢獲如來無餘涅槃本發心路ㅽ ᄭᆞ小ᄒᆞ <능엄(한글박물관) 4:11b>
나. 唯願如來ᄂᆞ 不捨大悲ᄭᆞᄉᆞᆫ 示我在會ᄀᆞᄒᆞ 諸蒙暗者ᄭᆞᄉᆞᆫ 捐捨小乘ᄆᆞ 畢獲如來

無餘涅槃本發心路ㅊㄴ ㅅ小ㅎ <능엄(기림) 4:32a>

(4)는 동일한 구문에 대한 한글박물관본과 기림사본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한글박물관본에서는 (4가)와 같이 '-ㅊ ㅅ小ㅎ'로 현토되어 있는데, 기림사본에서는 (4나)와 같이 '-ㅊㄴ ㅅ小ㅎ'로 현토되어 있다. 이처럼 한 자료 내에서는 통일된 표기를 보이며 문헌별로 상이한 분포를 보이는 '-ㅊ ㅅ-'와 '-ㅊㄴ ㅅ-'에 대하여 본고는 이들이 모두 동일하게 '-게 ᄒᆞ-'의 소급형을 표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한편 《범망경》의 이본에서는 더욱 다양한 표기가 등장한다.

(5) 若佛子 以惡心故ᄆᆞ 自身ㅣ 謗三寶ㅊㅌ 詐現親附ㅅㅋ 口便說空ㅊㅌ 行在有中ㅅㅋ 爲白衣ᄆᆞ 通致ㅅㅋ 男女ㅣ 交會ㅅㅋ 婬色ㅋ 縛著{ㅊㅋ ㅅㅎ/ㅊㅣ ㅅㅎ/ㅊ ㅅㅎ} 於六齋日ㅅ 年三長齋月ㅋ 作殺生劫盜ㅅㅋ 破齋犯戒者ㄱ 犯輕垢罪。<범망 28a>[16]

(5)는 《범망경》의 이본에 나타난 '-게 ᄒᆞ-'의 표기를 보인 것이다. 이들 표기에 대하여 정재영(1996: 154-155)에서는 엄인섭본에 나타나는 '-ㅊㅋ ㅅ-'를 '-긔 ᄒᆞ-'로 판독하고, 국립중앙도서관본의 '-ㅊㅣ ㅅ-'를 '-게 ᄒᆞ-', 한중연본의 '-ㅊ ㅅ-'를 '-거 ᄒᆞ-'로[17] 각각 판독하고, 이들이 15세기의 '-긔 ᄒᆞ-', '-게 ᄒᆞ-' 구문에 대응되는 것이라고 하였다.[18]

각 이본에 나타나는 이표기를 정리하면, 가장 앞선 자료로 여겨지는 엄인섭본에는 '-ㅊㅋ ㅅ-', '-ㅊ ㅅ-' 두 가지 표기가 병행되고 국중도본에는 '-ㅊㅣ ㅅ-'만 나타나며, 한중연본에는 '-ㅊ ㅅ-'만 쓰이는 점을 알 수 있다.

---

16) 정재영(1996)의 부록을 활용하였으며, 현대어역은 정재영(1996)과 불교기록유산아카이브(http://dongguk.vacusoft.co.kr/content/view?dataId=ABC_IT_K0527_T_002)를 참조하였다. 세 이본에서 구결자가 달리 나타나는 경우 정재영(1996)에서 '엄인섭본/국중도본/한중연본' 순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식을 따랐다.

17) 어말어미 '-거'에 대하여 허웅(1975: 604)에서는 '됴히 쳐 ᄉᆞᆯ찌거 ᄒᆞ야 두고' <월석 23:73>의 예를 두고 "우발적인 오용 또는 인쇄상의 잘못"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16세기 번역노걸대의 '둘흘 ᄒᆞ야 짐 보거 ᄒᆞ고' 가 이현희 (1995ㄴ)에서 언급된 바 있다. (정재영 1996: 154 각주 20번)

18) 정재영(1996)은 <부록>으로 《범망경》의 판독 원문을 싣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재영(1996: 154)에 언급된 'ㅊㅅ ㅅ-'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14세기 음독 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ㅊ ㅅ－', '－ㅊㄴ ㅅ－', '－ㅊㅋ ㅅ－', '－ㅊㅐ ㅅ－' 등의 다양한 이표기는 모두 15세기의 '－게 ᄒᆞ－'에 해당하는 형식을 표기한 것이며, 이때 'ㅊㄴ', 'ㅊㅐ', 'ㅊㅋ' 등은 '－게'의 말음을 첨기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19] 이하에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 형식을 지칭할 때 '－ㅊ ㅅ－'를 대표 표기형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범망경》의 '－ㅊ ㅅ－' 현토 양상을 살펴보면 《능엄경》과 달리 한문 원문에 사동표지가 없는 경우에만 나타나고 있다.

(6) 가. 若父母兄弟死亡之日ㅐ ᄉᆞᆺ ㅅㄱ//ㅐ ㅇㅓㅊㄱ 應請法師ㅅㅋ 講菩薩戒經ㅅㅋ 福資亡者ㅅㅋ//ㅐ 得見諸佛ㅅㅋ 生人天上ㅊㅣㅊㅒ/ㅊㅐㅣㅊㅒ/ㅊㅅㅊㅆ 若不爾者ㄱ 犯輕垢罪 <범망>

(부모와 형제의 제삿날에는 응당 법사를 청하여 보살계와 경전을 읽어 죽은 이의 내생의 복을 빌어주어 (죽은 이가) 모든 부처님을 뵙고 인간과 천상에 나게 해야 할 것이니라. 만약 위와 같이 하지 않으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나. 若佛子 以惡心故ᄲᅳ 自身ㅐ 謗三寶ㅊㅒ 詐現親附ㅅㅋ/ㅅㅎ/ 口便說空ㅊㅒ 行在有中ㅅㅋ 爲白衣ᄲᅳ 通致ㅅㅋ 男女ㅐ//0 交會ㅅㅋ 飪色ㅋ 縛着ㅊㅋㅅㅎ/ㅊㅐㅅㅎ/ㅊㅅㅎ 於六齋日ㅅ/0/0 年三長齋月ㅋ 作殺生劫盜ㅅㅋ 破齋犯戒者ㄱ 犯輕垢罪。<범망 28a>

(불자들아, 나쁜 마음으로 자신이 삼보를 비방하면서도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하며, 입으로는 공(空)하다고 말하면서 행은 유(有)에 있고, 속인으로 다스리게 하고 남녀가 만나 음란한 일에 집착하게 하며, 6재일(齋日)과 3장재월(長齋月)에 살생과 도둑질을 해서 재(齋)를 깨뜨리고 계를 범하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다. 汝等一切大衆若國王王子百官比丘比丘尼信男信女ㅐㅅ//ㅐ 受持菩薩戒者ㄱ 應受持讀誦解說書寫{ㅣㅊㅒ}//0 佛性{ㅐ}//0 常住{ㅅㅎ}//0 戒卷{ㅐ}ㅅㅋ//ㅅㅋ流通三世ㅅㅋ 一切衆生ㅐ 化化不絕ㅅㅋ 得見千佛ㅅㅋ 佛佛ㅐ 授手ㅅㅋ//0 世世ㅋ 不墮惡道八難ㅁ 常生人道天中ㅊㅋㅅㅆ/ㅊㅐㅅㅆ/ㅊㅅㅆ <범망 43b>

(너희 대중들과 임금과 임금의 아들과 벼슬아치와 비구와 비구니와 믿음이 있는 남자와 믿음이 있는 여자 등, 보살계를 받은 모든 사람은 부처님의 법이 항상 머무는 이 계를

19) 서태룡(1997: 667-8)에서는 '-게'가 '-거-'와 '-이'의 통합형일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마땅히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석하여 설하고, 붓으로 써서 삼세에 유통하고, 일체 중생이 교화됨이 끊어지지 않아, (삼세의 일체 중생이) 천불을 뵙고, 부처와 부처가 손으로 주어서, (삼세의 일체 중생이) 세세에 악도 팔난에 떨어지지 않고 人道나 천상에 나게 하라/남을 득하게 하라.)

(6)은 《범망경>에서 '-ㅅ ㅅ-'가 사용된 예들이다. 모두 한문 원문에는 직접적인 사동 표지는 없다. (6가)와 (6다)에 사용된 '得V'은 "(피사동주가) V함을 얻게 하다"의 사동의 문맥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즉 (6가)에서는 '죽은 부모와 형제'가 '부처님을 뵙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남'을 얻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고, (6다)에서는 '일체중생이' '천불을 뵙고 세세 악도팔난에 떨어지지 않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남'을 얻게 하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처럼 사동표지인 '使'나 '令'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문맥상 사동 의미를 나타내야 할 때 '-ㅅ ㅅ-'를 사용하였다. (6나)에서는 '爲AB'가 사용되고 있다. 이 문장은 '白衣가 다스림'으로 인하여 '남녀가 만나 (남녀가) 음란한 일에 집착함'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즉 직접적인 사동행위로 인하여 '(남녀가) 음란한 일에 집착함'이라는 결과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白衣가 다스림'을 허용함으로서 간접적으로 후행하는 결과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일종의 간접 사동의 문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6)에서 살펴본 《범망경》의 '-ㅅ ㅅ-'는 모두 한문에 직접적인 사동 표지는 없으나 사동의 문맥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반면 《범망경》의 원문에 '使', '令'의 사동표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별다른 구결토가 동반되지 않는다.

(7) 가. 若佛子常應發一切願ㅅㅋ 孝順父母師僧三寶ㅅㅎ 願得好師同學善友知識ㅐ 常教我大乘經律 十發趣 十長養 十金剛 十地ㅅㅋ 使我ㅱ//0 開解ㅅㅋ 如法修行ㅅㅓㅂ 堅持佛戒ㅅㅋ 寧捨身命ㅐㅎㄱㅜ//ㅐㅓㄱㅜ 念念ㅋ 不去心ㅅㅓㅅ <범망 30b>

(만일 불자라면 항상 마땅히 일체의 원을 발하여서 부모와 스승 삼보에 효순하고, 좋은 스승과 동학 좋은 벗과 지식 등이 항상 나에게 대승경률과 십발취 십장양 십금강 십지 등을 가르치고 나로 하여금 깨우쳐 법대로 수행하게 할 것을 원할 것이니, 불계를 굳게 지

켜 차라리 육신의 생명을 버릴지언정 잠시라도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 而菩薩ㄱ 應代一切衆生ㅅㆍㅋ 受加毁辱ㅅㆍㅋ 惡事ㅅㄱ 自向己ㅁㅗㅍ/ㅁ 好事ㅅㄱ 與他人ㅅㅓㅎㅏㄴ/ㅅㅓㅎㅏㅌ/ㅅㅓㅓㄴ 若自揚己德ㅁ 隱他人ㅋ 好事ㅅㆍㅋ 令他人ᄴ 受毁者ㄱ 是菩薩波羅夷罪 <범망 12b>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나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신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남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만약에 자기의 공덕을 스스로 높이고 남이 잘한 일은 감추어서 남으로 하여금 비방을 당하게 하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이다.)

(7)은 원문에 '使', '令'이 사용된 예로, 구결토에는 '-게 ᄒᆞ-' 형식이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음독구결의 현토 양식과 일치한다. 따라서 (6)과 (7)을 통해 《범망경》에서는 원문에 사동 표지가 있으면 그대로 읽었고, 원문에 사동표지는 없으나 사동의 의미를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ㅅ ㅅ-'를 기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능엄경》 한글박물관본의 '-ㅅ ㅅ-' 기입 양상은 중간적 성격을 띤다. 앞서 (3)에서 언급하였듯 원문의 사동표지 '使', '令' 혹은 '敎'가 사용될 때에는 대체로 구결이 현토되지 않으나, (1가)와 같이 사동표지가 지배하는 동사구가 길거나 (1나)와 같이 직접인용문일 경우에는 '-ㅅ ㅅ-'가 현토되었다. 물론 원문에 사동표지가 없으나 문맥상 사동의 의미를 띠는 경우에도 '-ㅅ ㅅ-'를 현토하였다. 한글 창제 이후의 《능엄경언해》의 한글 구결은 《능엄경》 한글박물관본의 현토 양상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20] 따라서 《능엄경》의 구결 현토 방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범망경보살계》와 《능엄경》 한글박물관본의 '-게 ᄒᆞ-' 표기 양상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구결이 기입되는 시점에 '-게 ᄒᆞ-'는 명백한 사동 형식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음독 구결 자료에 나타난 피사동주의 격 실현 양상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한국어 사동문의 통시적 변화를 연구한 최동주(2000: 310)은 기림사본 <능엄

20) 기림사본《능엄경》2,3,4와《능엄경언해》2,3,4의 '-게 ᄒᆞ-' 현토 양상을 비교한 최동주(2000: 310)에서는 전자의 '-ㅅ(ㆍ) ㅅ-'가 15회 나타나는 데에 비하여 후자의 '-게 ᄒᆞ-'는 94회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음독구결 시기가 '-게 ᄒᆞ-'가 쓰이기 시작한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경> 권2, 3, 4를 대상으로 하여 '-게 ᄒᆞ-' 사동문의 15예 중 피사동주가 실현된 9예는 모두 '로'격으로 실현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8) 가. 使定慧ᄅᆞ 均等ᄋᆞᄉᆞ 學行ᄂᆞᆷ 兩全ᄋᆞᄋᆞ 而究竟ᄋᆞᄋᆞ 趣於一乘實相ᄉᆞ ᄋᆞᄂᆡᄒᆡ <능엄(한글박물관) 1: 3a>

가'. 定과 慧왜 고ᄅᆞ며 學과 行괘 둘히 오라 究竟ᄒᆞ야 一乘實相애 가게 ᄒᆞ시니 (使定慧ㅣ 均等ᄒᆞ며 學行이 兩全ᄒᆞ야 而究竟ᄒᆞ야 趣於一乘實相케 ᄒᆞ시니) <능엄 1:20a>

나. 唯願世尊ㅅ 大慈 哀愍ᄋᆞᄉᆞᆫ 開示我等 奢摩他路ᄋᆞᄉᆞᆫ 令諸闡提ᄆᆞᆷ 隳彌戾車ᄉᆞᄅᆞ 小ᄆᆞᆷ <능엄(한글박물관) 1: 77a>

나'. 願ᄒᆞᄉᆞᆸ노니 世尊이 大慈로 어엿비 너기샤 우리 等의게 奢摩他ㅅ 길흘 여러 뵈샤 모ᄃᆞᆫ 闡提로 彌戾車ᄅᆞᆯ 헐에 ᄒᆞ쇼셔 (唯願世尊이 大慈哀愍ᄒᆞ샤 開示我等에 奢摩他路ᄒᆞ샤 令諸闡提로 隳彌戾車케 ᄒᆞ쇼셔)<능엄 1: 77a-b>

(8)은 《능엄경》(한글박물관)의 예이다 (8가)에서 '定慧'에 'ᄅᆞ', '學行'에는 'ᄂᆞᆷ'가 현토되고 (8나)에서는 '諸闡提'에 'ᄆᆞᆷ'가 현토되어 있는데 모두 '로'를 현토한 것이다. '정혜'와 '학행'은 무정물이고 '나'는 유정물이다. 유정성에 관계없이 모두 '로'로 나타나는 점을 알 수 있다. (8나)에서는 사동주 '世尊'에 'ㅅ'가 현토되어 주격으로 나타났음도 확인할 수 있다.

《범망경》에서는 '-게 ᄒᆞ-' 구문에 피사동주가 직접적으로 실현된 문장은 보이지 않는다. 《범망경》에 나타난 사동문의 피사동주 실현 양상은 아래와 같다.

(9) 가. 而菩薩ㅣ/ㅐ/ㅓ 入一切處山林川野ᄋᆞᄋᆞᄀᆞ 皆使一切衆生ᄆᆞᆷ 發菩提心ᄂᆞᄋᆞᄉᆞᆷ <범망 41a>

(보살은 모든 산과 숲 하천 들에 들어가거든 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令他人ᄆᆞᆷ 受毁者ㅓ 是菩薩波羅夷罪。<범망 12b>

(남으로 하여금 비방을 당하게 하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이다.)

(10) 若佛子 以惡心故ᄆᆞ 自身ㅣ 謗三寶ㅊㅌ 詐現親附ᄂᆞᆼ/ᄂᆞᄉᆞ/ 口便說空ㅊㅌ 行在有中ᄂᆞᆼ 爲白衣ᄆᆞ 通致ᄂᆞᆼ 男女ㅣ//0 交會ᄂᆞᆼ 婬色ᄋᆞ 縛著ㅊㅋᄂᆞᄉᆞ/ㅊㅣᄂᆞᄉᆞ/ㅊᄂᆞᄉᆞ 於六齋日ㅅ/0/0 年三長齋月ᄋᆞ 作殺生劫盜ᄂᆞᆼ 破齋犯戒者ㄱ 犯輕垢罪。<범망 28a>

(불자들아, 나쁜 마음으로 자신이 삼보를 비방하면서도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하며, 입으로는 공(空)하다고 말하면서 행은 유(有)에 있고, 속인으로 다스리게 하여 남녀가 만나 (남녀로 하여금) 음란한 일에 집착하게 하며, 6재일(齋日)과 3장재월(長齋月)에 살생과 도둑질을 해서 재(齋)를 깨뜨리고 계를 범하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다.)

(9)는 원문에 사동표지 '使', '令'이 쓰인 사동문이고 (10)은 '-게 ᄒᆞ-'가 쓰인 사동문이다. (9)에서 피사동주는 모두 유정물이며 'ᄆᆞ(로)'로 나타나고 있다. (10)에서는 피사동주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문맥상 '남녀'가 이에 해당하며 '음색(婬色)에 집착[縛著]'하는 것이 결과 사건에 해당한다. 사동문의 바로 앞에 '男女ㅣ 交會ᄂᆞᆼ'가 있으므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사동의 영역이 [交會하여 음색에 집착하-]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 [남녀가 [교회하여 음색에 집착하-]-게 하며]와 같이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녀가 교회하여] [(*남녀로) [(남녀가) 음색에 집착하게] 하며]'와 같이 두 절이 연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기 사동문의 피사동주가 주격으로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사동의 영역은 후자와 같이 '婬色ᄋᆞ 縛著(ᄂᆞ-)'에 걸리는 것으로 본다.[21]

---

21) 이와 관련하여 한중연본 <범망경>의 '亡者ㅣ'라는 현토는 이것이 후대에 기입된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예라 할 수 있다.

若父母兄弟死亡之日ㅣᄉᆞᆺㄱ//ㅣㅊㅊㄱ 應請法師ᄂᆞᆼ 講菩薩戒經ᄂᆞᆼ 福資亡者ᄂᆞᆼ//ㅣ 得見諸佛ᄂᆞᆼ 生人天上ㅊㅣㅊㅌ/ㅊㅣㅣㅊㅌ/ㅊᄂᆞㅊㅅ 若不爾者ㄱ 犯輕垢罪
(부모와 형제의 제삿날에는 응당 법사를 청하여 보살계와 경전을 읽어 죽은 이의 내생의 복을 빌어주어 (죽은 이가) 모든 부처님을 뵙고 인간과 천상에 나게 해야 할 것이니라. 만약 위와 같이 하지 않으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福資亡者'에 대해 엄인섭본과 국중도본에서는 'ᄂᆞᆼ를 현토하여 이 구절 전체를 나열되는 동사구로 해석하였으나, 한중연본에서는 '亡者ㅣ 得見諸佛ᄂᆞᆼ 生人天上ㅊᄂᆞㅊㅅ'와 같이 현토하여 '亡者'를 '-게 ᄒᆞ-' 구문의 피사동주로 해석하였다. 피사동주가 주격으로 나타나는

이와 같이 《능엄경》과 《범망경》의 예는 14세기의 사동문에서 '-게 ᄒᆞ-' 사동이든 한국어 사동 표현으로 굳이 풀지 않은 한문의 사동문이든 피사동주가 나타날 때 '로'로 현토함이 일반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상당히 개신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 그 이전 시기의 자료인 석독 구결 자료에서는 피사동주가 '로'로 나타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동주(2000: 307)에서는 석독구결의 피사동주 실현 양상에 대하여, 피사동주가 아예 나타나지 않거나 조사가 생략되어 실현 양상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다음은 최동주(2000)에서 제시한 석독 구결의 사동사 사동문에 나타난 피사동주의 격 표시 예이다.

(8) 가. 菩薩ㄱ 爲ᄀᆞ 老病死ㄷ 現ᄀᆞᄋᆞᆫ 彼 衆生ㄷ 悉ᄋᆞ 調伏 令ㅐᄅᆞᆫ <화엄 18:23>

나. 亦ㅅㄱ 復ᄋᆞ 共ㅌ 量 無ㅌㄱ 音樂ㄷ 作ㅅᄋᆞ 如來ㄷ 覺寤ㅅㅐㅂㅁㅇㄱ 佛ㄱ 卽ᄋᆞ 時ㅐᄎᆞᄋᆞㄱㅅㄴ 知ㄷᄋᆞ 衆生ㅋ 根ㄴ 得ㄷㅅㄱ 卽ᄋᆞ 定ㄴ 從ㅌ 起ㅅㄷㅜ (亦復共作無量音樂 覺寤如來 佛卽知時 得衆生根 卽從定起) <구인 3>

다. 四者 一切 衆生ㅋ 功德 善根ㄷ 成熟ㅅㅐ{爲欲}ㅅ 慈悲心ㄷ 發ㅅᄋᆞ<B금광 03:08-09>

(9) 大師ㅐ 正法ㄷ 建立ㅅ{爲欲}ㅅ 方便ㅡ 正等覺 成ㅣㄕㅅㄷ 示現ㅅㄷㅜ 云何ㅡᄒᆞ ㄕㅅㄱ 彼ㅡ 正ㅌ 修行ㅅᄋᆞᆫ 轉ㅅ{令}ㅐᄋᆞㅣㅊㄱㅐᄋᆞㅌㅁㅅㄷㅕㅅㅡ <유가 06:05>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어떻게 하면 그로 (하여금) 바로 수행하여서 전하게 할 것인가? " 하시는 까닭으로)

(8)은 피사동주에 'ㄷ(을)'이 결합한 예이다. (9)는 '로'가 통합된 예이다. '彼'는 '修行ㅅ-'와 '轉ㅅ-'의 의미상 주어에 해당하며 전체 문장의 피사동주로 파악된다.

최성규(2018: 293)에서는 차자표기 자료에서 주어로 보이는 '로'의 몇 예를 아래

현상은 15세기에서야 보이므로 이 구결토는 후대에 가필된 것으로 보인다.

와 같이 추가로 확보하였다.

(10) 가. 洑堤 傷故 所內使以 見令賜矣 <0798 永川菁堤碑貞元銘 1-3>

(남풍현(2005) 현대어역: 보의 뚝이 파손되었으므로 所內使로 하여금 보이시었다)

나. 去 甲寅年分 國朝以 誅流員將矣 奴婢等乙 公私 分屬 令是 事是 次 <1281 松廣寺奴婢文書>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2000/2011) 현대어역: 지난 갑인년 때 조정에서 주살, 유배된 관원 장군들의 노비들을 官과 個人에게 分屬시키신 때에)

다. 巾三矣 身以 矣亦中 仰 使內如乎在乙 <1281 松廣寺奴婢文書>

(최성규(2018): 건삼의 몸으로 하여금 나에게 우러르게 하였던 것을)

(11) 我ㅡ {於}彼 正審觀察ノ仝セ 心一境位ㄋナ 當ハ 障导乙 作ㅅリア 勿ノ矛ㄱリㄋセ丨ソア矢丨 <瑜伽 09:01-02>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나로 하여금 저 바로 살피고 관찰하는 심위경위에서 반드시 장애를 짓게 하지 말 일이다" 할 것이다.)

(10)은 이두 자료, (11)은 석독구결 자료의 예문이다. 향찰에는 '로'가 주격으로 쓰이는 경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11나)에서 '我'는 '짓다'(作)의 의미상 주어에 해당하며 전체 문장의 피사동주로 파악된다. (10)과 (11)의 문장들은 모두 사동문 혹은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볼 수 있으며, '로'로 현토된 명사들은 모두 사동문의 피사동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로'의 쓰임에 대하여 최성규(2018: 293-5)에서는 '로'의 '시작점', '종착점'과 같은 방향 의미에서 '도구, 수단'의 의미가 생겨난다고 하였다. 한편 (10), (11)과 같은 '로'를 '탈격'의 개념과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실제로 여러 언어에서 탈격 표지가 주체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22)23)]

---

22) 현대 한국어의 단체 주격 '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10)의 이두 자료에서도 '소내사'와 '국조'를 관직이나 관청으로 보아 단체 주격으로 볼 여지도 있다. 탈격 표지가 주격 표지로 발달하는 양상과 문법사적 의의에 대하여 논의한 김민국(2019)를 참고할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에서' '(이)서', '께서'를 대상으로 존재 구문에서 탈격이 주어 표지로 발달하였음을 논의하였다.

23) 볼리비안케추아어의 사동문의 경우에도 피사동주가 대격 혹은 조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자동사의 경우 원래의 S는 O로 나타나고 원래의 A는 대격 혹은 조격으로 나타나는데, 대격으로 나타날 때는 피사동주가 비자발성을 띠고 조격으로 나타날 때는 기꺼이 자발

이처럼 주어를 '로'격으로 표시하는 현상은 (10)의 이두자료의 예, (11) 및 앞서 살펴본 14세기 음독 구결의 예,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15세기 간경도감 언해 문헌과 《두시언해》 등의 후기 중세 한국어의 언해 자료에서 나타나며, 현대 한국어에서도 '-로 하여금'의 형식으로 의고적 표현으로써 쓰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사동문 혹은 사동과 관계된 문장에서 피사동사건의 주어를 표시하는 데에 쓰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쓰임은 한국어의 문법 내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한문의 언해와 관련 없는 한글편지에서는 사동문의 주어가 '로'로 나타나는 예가 거의 없으며, '-게 ᄒᆞ-'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V1-게 V2' 구문에서 NP1이 목적어 혹은 주어로 나타나는 경우는 있지만 '로'격으로 나타나는 예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게 ᄒᆞ-'가 처음 나타난 시기에 피사동주가 '로'격으로 나타난 것은 언어 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문의 구조를 우리말로 옮기면서 나타난 언어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게 ᄒᆞ-' 사동구문에서 피사동주가 왜 '로'격으로 나타났는지 명확히 답할 수 없다.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 왜 '을'격이나 '이'격이 쓰이지 못했는지 물을 수 있다. 구결문은 한문 원문에 한국어의 문법 요소를 기입한 것으로, 원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갖고 있다. 한문의 사동문은 전형적인 겸어문(兼語文) 구성을 이룬다. 겸어문이란 상위문의 목적어가 동시에 하위문의 주어가 되는 문장이다. 따라서 한문의 '使(V2) NP1 V1'과 같은 문장에서 NP1은 V1의 주어이자 '使'의 목적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겸어문에 토를 다는 과정에서 NP1에 '을'격을 표시하면 하위문에서의 NP1과 V1의 주술 관계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격을 표시하기에는 '使'와의 관계를 나타낼 동기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이 시기의 주격조사 '이'는 최성규(2018)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직 내포문의 주어에만 표시되었다. 따라서 '使 NP1 V1'에서의 'NP1 V1'은 내포문이 아니므로 NP1에 '이'를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음독 구결에서는 피사동주인 NP1에 주격이나 목적격을 부여할 수 없어 제3의 격인 '로'격을 부여하였다고 가설을 세울 수 있다.[24]

적으로 하는 경우를 나타낸다고 한다.(Dixon & Aikhenvald 2000)

24) 이에 대해서는 다른 겸어문의 현토 양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10)에서 살펴본 예문에서 "爲白衣ᄂᆞᆫ 通致ᄋᆞᄋᆞ" 부분은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한다.

비록 《두시언해》 이후 나타나는 예이지만 피사동주가 '로 ᄒᆞ여(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통사 구조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음독 구결문에서 비롯한 '-게 ᄒᆞ-' 사동문이 [NP2이 NP1로 [(NP1이) V1]-게 ᄒᆞ-]와 같은 통사 구조를 가지는 것은 한문을 직접 사용하는 구결문에서의 이해를 위한 것이었다. 한문을 떠나서 언해문만으로 보았을 때 '로'가 현토되는 논항을 상위문의 목적어이자 하위문의 주어로 이해하기 어려웠기에 이를 두 개의 절로 분리하고자 'ᄒᆞ여(곰)'과 같은 동사구를 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통사구조는 [[NP2이 NP1로 ᄒᆞ여(곰)] [(NP2이) (NP1을) [(NP1이) V1]-게 ᄒᆞ-]]와 같은 복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만일 [NP2이 NP1로 V1-게 ᄒᆞ-]와 같은 통사 구조를 사동 구문의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로'를 마치 피사동주의 표지인 것처럼 인식하였다면 이러한 형식이 다양한 자료에서 널리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석보상절》과 같은 초기 한글 문헌에는 피사동주가 '로'로 나타나는 예가 2예에 불과하고, 《능엄경언해》에 이르러서야 '로'로 나타나는 빈도가 현저히 높아진다는 것은 이것이 온전한 한국어의 구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최동주(2000: 316-317)에서 언급하였듯, 《능엄경언해》 권 2, 3, 4에서 원문에 사동표지 '使'나 '令'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게 ᄒᆞ-' 구문으로 언해된 예는 모두 30회에 이르는데, 이 중 피사동주가 나타난 15예는 모두 '을'격으로 나타나고 '로'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피사동주가 '로'로 나타나는 현상은 한문의 겸어문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피사동주가 '로'격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언어 내적인 해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사동 구문의 피사동주가 도구격(instrumental case)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언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의 흐름이 행위주(agent)에서 대상(patient)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도구 논항은 에너지의 흐름 상 그 둘의 사이에 놓이게 된다. 행위주의 에너지가 도구에 전달되고, 도구의 에너지가 다시 대상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동 구문의 피사동주의 성격 역시 이러한 도구 논항의 성격과 유사하다. 사동주에서 흘러나온 에너지가 피사동주를 거쳐 대상에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 구조 상 피사동주가 도구격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언어에서 관찰된다. 헝가리어에서는 피사동주가 대격 혹은 조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대격으로 쓰일 때는 직접 사동을, 조격으로 나타날 때는 간접 사동

을 의미한다고 한다(Dixon 2002).

음독 구결 자료와 언해 문헌에 나타나는 '로' 격에 대해 본고는 한문의 현토 혹은 언해라는 언어 외적 특수한 성격과 언어 내적인 동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고자 한다.

3.2. '-게 ᄒᆞ-' 사동 구문

이제 15세기 한글 문헌에 나타난 '-게 ᄒᆞ-' 사동 구문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2) 가. 내 이제 方便을 ᄒᆞ야 이 藥ᄋᆞᆯ 먹게 호리라 <월석 17: 20b> (我今當設方便, 令服此藥。)

나. 王ᄉᆞ 病을 내 어루 고티ᄉᆞ보리니 나ᄅᆞᆯ 닐웨만 王이 ᄃᆞ외에 ᄒᆞ쇼셔 <석상 24: 50b> (妾能治王必使得差。願聽我七日爲王。)

다. 곧 悉達太子ᄅᆞᆯ ᄇᆡ여 나하 世界ᄅᆞᆯ ᄇᆞᆰ긔 호니 이 ᄭᅮ믈 당다이 如來ᄉᆞ 涅槃相이샷다 ᄒᆞ더시니 <석상 23: 27b> (卽便懷妊悉達大子。爲世照明。今此五夢甚可怖畏。必是我子涅槃之相。)

라. 天下앳 치운 사ᄅᆞᄆᆞᆯ 키 그늘워 다 깃븐 ᄂᆞ치에 ᄒᆞ야 <두시 6: 43a> (大庇天下寒士俱歡顔)

(12가)는 타동사, (12나)는 자동사, (12다)는 형용사, (12라)는 계사와 결합하여 사동 구문을 이룬 '-게 ᄒᆞ-'의 예이다. 이처럼 15세기의 '-게 ᄒᆞ-'는 결합 어기의 제약 없이 모든 종류의 용언과 결합할 수 있었으며 그 빈도도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게'와 'ᄒᆞ-' 사이에 다른 문장성분이나 보조사가 개재하는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V1-게 ᄒᆞ-'는 명백한 사동 표지로써 문장에 사동주인 NP2를 더하고 'ᄒᆞ-'로 대표되는 사동 사건이 원인 사건으로써 V1의 피사동 사건이 결과 사건으로 발생한다는 사동의 의미를 투명하게 실현하는 기능을 하였다. 따라서 '-게 ᄒᆞ-'는 15세기 매우 생산적으로 사용된 사동 표지였다.

그렇다면 이제 15세기의 '-게 ᄒᆞ-' 사동 구문에서 피사동주가 나타나는 양상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최동주(2000: 315)에서는 '-게 ᄒᆞ-' 사동문 피사동주의 격 실현에 대하여, 음독 구결 시기에는 모두 '로(ᄶᅳ)'로 실현되던 것이 《석보상절》 등 후기 중세 한국어 초기 문헌에는 '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주격 조사가 통합된 예도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15세기의 '-게 ᄒᆞ-' 사동구문의 피사동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3) 가. 내 如來ㅅ 法身은 보ᅀᆞ뱃가니와 如來ㅅ 妙色身은 몯 보ᅀᆞ뱃노니 **나ᄅᆞᆯ** 如來ㅅ 妙色身ᄋᆞᆯ 보ᅀᆞᆸ게 코라 <월석 4: 31b-32a> (我雖已見如來法身。不見如來妙色之身。我現佛色身使我生愛敬心。若作此事。是名為上。)

나. 곧 悉達太子ᄅᆞᆯ 빅여 나하 **世界ᄅᆞᆯ** 붉긔 호니 <석상 23: 27a-27b> (卽便懷妊悉達大子。爲世照明。)

(14) 가. 내 盟誓ᄅᆞᆯ ᄒᆞ노니 像法 轉ᄒᆞᆯ 時節에 種種 方便으로 淨信ᄒᆞᆫ **善男子 善女人ᄃᆞᆯ히** 이 藥師瑠璃光如來ㅅ 일후믈 듣ᄌᆞᆸ긔 ᄒᆞ며 <석상 9: 20b> (我當誓於 像法轉時 以種種方便 令諸淨信善男子善女人等 得聞 世尊藥師琉璃光如來 名號。)

나. 이런 因緣으로 三寶四諦 샹녜 世間애 이셔 **衆生이** 歸依킈 ᄒᆞᄂᆞ니라 <석상 23: 8> (以是因緣, 三寶、四諦常住於世, 能令衆生深心歸依。)

(15) 이 陀羅尼ᄅᆞᆯ 닐어 **衆生ᄃᆞᆯ히그에** 만히 饒益긔 ᄒᆞᄂᆞ다 <석상 21: 24b-25a> (說是陀羅尼, 於諸衆生, 多所饒益。)

(13), (14), (15)는 최동주(2000)에서 제시한 예로 각각 피사동주가 목적격으로 나타난 예, 주격으로 나타난 예, 여격으로 나타난 예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1460년대 이후 간경도감 간행 문헌들에서는 '로'격으로 나타난 예가 많이 나타난다. 이를 문장 구조로 간략히 보이면 아래와 같다.

(16) 가. [NP2이 NP1을 [(NP1이) V1]-게 ᄒᆞ-]

나. [NP2이 (NP1을) [NP1이 V1]-게 ᄒᆞ-]

다. [NP2이 NP1익게 [(NP1이) V1]-게 ᄒᆞ-]
라. [NP2이 NP1로 [(NP1이) V1]-게 ᄒᆞ-]

우리는 '-게' 사동 구문이 '-게' 구문의 일환으로써 보이는 구문 구조에 관심을 가지므로 (16)의 통사구조의 기저 구조나 그 변형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표현형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앞서 14세기 음독 구결에 '-게 ᄒᆞ-'가 처음 등장하였을 때에는 피사동주가 (16라)와 같은 '로'격으로만 나타났으며, 이것은 한문의 겸어문이라는 언어 외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이는 초기의 한글 언해 문헌인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이나 한글 편지 자료에는 피사동주가 '로'로 나타난 예가 매우 드물고 《법화경언해》, 《능엄경언해》 등 불경 언해문이나 《두시언해》 등 언해 문헌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6다)와 같은 여격의 피사동주가 나타나는 경우는 (15)에서 보듯 그 예가 매우 드물며 피사동주가 문장에서 가지는 의미역을 '수혜주'라고 볼 여지가 있다. 우리는 (16) 중에서 특히 (16가)와 (16나)와 같이 피사동주가 목격격이나 주격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16가)와 같은 구문 구조는 우리가 '결과 구문'으로 명명한 'V1-게 V2'가 전형적으로 보이는 구조와 동일하다. NP1은 '-게 ᄒᆞ-' 구성의 목적어이자 V1의 의미상의 주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원인 사건인 사동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이라는 점도 동일하다. 반면 (16나)와 같은 구문 구조는 결과 구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4장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문장의 목적어로 나타나는 O와 V1의 주어인 NP1이 처소와 대상, 소유주와 소유물의 관계 등에 있는 경우 [NP1이 V1]의 주술 구조로 나타나는 예가 있지만 (16나)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16나)와 같은 구문 구조는 '-게' 사동 구문의 고유한 특징인 것이다. 이것은 '-게' 결과 구문의 경우 주로 NP1이 무정물임에 비해 '-게' 사동 구문은 NP1이 유정물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사동 구문의 피사동주가 (16가)와 같이 목적어로 나타나는 것은 사동 구문과 결과 구문의 구조적 유사성에서도 쉽게 그 공통성을 찾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비록 음독 구결의 '-게 ᄒᆞ-'에서는 피사동주가 목적어로 현토된 예가 보이지 않지만 석

독 구결의 사동사 사동문에서는 나타나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면 (16가)와 같은 구조로 나타나는 15세기의 사동 구문은 그 통사 의미적 구조가 가장 투명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16나)와 같이 주격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 시기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그 이전 시기의 자료인 석독 구결, 그리고 음독 구결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현상인데, 개신의 배경에는 주격조사 '이'의 분포가 확대된 것을 들 수 있다. 차자 표기 자료에서 내포절의 주어만을 나타내던 '이'가 15세기에는 내포절과 주절을 가리지 않고 주어를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가 일종의 주어의 '행위주다움'을 드러내는 표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행위주다움'이란 유정물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행위를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기 문헌인 《석보상절》의 피사동주가 주격으로 나타나는 예문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주어의 '행위주다움'과 연관될 여지가 있다. 《석보상절》에서 피사동주가 주격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크게 두 경우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피사동주가 유정물이고 V1의 의미적 성격이 피사동주의 의지와 관련 있는 경우이다. '듣다, 알다' 등의 지각, 인지동사, '得ᄒᆞ다' 등 피사동주의 의지적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듣다'와 대비되는 '보다'는 지각동사이지만 피사동주가 주로 목적격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피사동주가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동주가 '보여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7) 가. 너희ᄃᆞᆯ히 바다 디녀 닐그며 외와 이 法을 너비 펴아 **一切 衆生이** 다 드러 알에 ᄒᆞ라 <석상 20: 2a> (汝等應當一心流布此法, 廣令增益。)

나. 萬億世예 이 經을 너비 니ᄅᆞ샤 萬億衆을 敎化ᄒᆞ샤 正道애 住케 ᄒᆞ샤 **增上慢ᄒᆞᄂᆞᆫ 사ᄅᆞ미** 信伏ᄒᆞ야 좃긔 ᄒᆞ시고 **罪 ᄆᆞᄌᆞᆫ 사ᄅᆞ미** 도로 道果ᄅᆞᆯ 得긔 ᄒᆞ시니 긔 너비 利케 ᄒᆞ샤미라 <석상 19: 36b> (於萬億歲 廣說是經 化萬億衆 令住正道 使上慢者 信伏隨從 使畢罪者 還得道果 所謂廣利也)

(17)은 《석보상절》에서 피사동주가 주격으로 나타난 예이다. '드러 알-', '좇-', '得ᄒᆞ-' 등이 V1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주어의 행위주다움이 요구되는 동사들

의 경우 피사동주가 주어로 쓰이는 [NP1이 V1]가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순환론을 경계해야 한다. 피사동주에 주격 조사가 쓰이기 때문에 그 행위들을 의지적 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알에 ᄒᆞ-'는 '부텻 法을 ᄇᆞᆯ기샤 衆生ᄋᆞᆯ 알에 ᄒᆞ시며'<석상 13: 17b>와 같이 피사동주가 목적어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장은 'NP2이 V2-어 NP1을 [(NP1이) V1]-게 ᄒᆞ-'와 같은 결과 구문의 유형으로 분석되고 이때의 '衆生ᄋᆞᆯ'은 결과 구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의 법을 밝힌 결과 중생이 아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석보상절》에서 피사동주가 주어로 나타나는 경우의 두 번째 유형은 피사동주가 무정물이고 V1이 자동사 특히 비대격동사인 경우이다. 이때는 주어의 행위주다움이나 의지와 관련이 없다. 이 무정물은 소유자인 유정물의 소유물로 분석할 수 있다.

(18) 가. 이 經이 能히 一切 衆生ᄋᆞᆯ ᄀᆞ장 饒益ᄒᆞ야 제 願이 ᄎᆞ게 ᄒᆞᄂᆞ니 <석상 20: 24a-24b>(此經能大饒益一切衆生, 充滿其願。)

나. 내 일후믈 드르면 다 智慧 잇고 諸根이 ᄀᆞ자 病이 업게 호리라 <석상 9: 7a> (聞我名已 一切皆得端政黠慧 諸根完具 無諸疾苦。)

다. 내 오ᄂᆞᆫ 뉘예 賢聖을 맛나ᅀᅡ 禮數ᄒᆞ야 供養ᄒᆞᅀᅡᄫᅥ 내 양ᄌᆡ 端正ᄒᆞ며 尊코 노ᄑᆞᆫ 몸 ᄃᆞ외며 ᄒᆞ닗 저긔 蓮花ㅣ 바ᄅᆞᆯ 받긔 ᄒᆞ쇼셔 <석상 11: 41b> (『願我來世, 遭遇賢聖, 禮事供養, 使我面首端正, 尊榮豪貴, 若經行時, 蓮華承足。』)

(18가)에서 '제 願'은 '衆生'의 소유물에 해당하고, (18나)의 '智慧'와 '諸根', '病'은 '諸根이 갖추어지지 못한 이'의 소유물에 해당한다. (18다)의 '蓮花'는 예외적이다. 무정물이고 V1은 타동사인 경우이다. 이 문장의 '-긔 ᄒᆞ-'의 영역은 '[내 양ᄌᆡ 端正ᄒᆞ며...ᄃᆞ외며] [ᄒᆞ닗 저긔 蓮花ㅣ 바ᄅᆞᆯ 받-]'에 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화는 무정물의 피사동주로 여기에서는 주술 구조의 V1P 안에 나타났다. 이것은 전혀 행위주다움과 관련이 없다. '연화'가 주제어로서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석보상절》에는 그 예가 나타나지 않지만 계사문의 '-게 ᄒᆞ-' 사동의 경

우 선행하는 명사구는 모두 주격으로 나타난다.

(19) 가. 智ᄅᆞᆯ 두르혀 悲ᄅᆞᆯ 向ᄒᆞ야 眞과 俗괘 어울며 智와 悲왜 ᄒᆞᆫ가지에 ᄒᆞᆯ씨 이 일후미 廻向이며 <월석 2: 61a>

나. 世예 端正히 이셔 나ᄅᆞᆯ 일흐니도 오히려 能히 얼구리 이운 남기오 ᄆᆞᅀᆞ미 주근 ᄌᆡ에 커니 (世之端居喪我者도 尙尙能使形槁木而心死灰커니) <능엄 9:61a>

다. 너비 뎌ᄅᆞᆯ 休ᄒᆞ며 歇ᄒᆞ야 一念이 萬年이에 ᄒᆞᆯ디니 (普敎他ᄅᆞᆯ 休去歇去ᄒᆞ야 一念萬年ᄀᆞᆫ니)<金三5:40b>

(19)는 계사에 '-게 ᄒᆞ-' 사동이 쓰인 예로, '(대상) [NP이 NP이-]-에 ᄒᆞ-'의 구조로 나타난다. (19나)의 대상은 '나ᄅᆞᆯ 일흐니'이고 피사동주로 나타나는 '얼굴', 'ᄆᆞᅀᆞᆷ'은 그와 소유자와 소유물의 관계에 있다. (19다)에서 대상은 '뎌'이고 '一念'은 '뎌'의 소유물이라고 볼 수 있다. '-게' 결과 구문이나 사동 구문에 계사문이 쓰일 때 선행하는 명사구가 목적격으로 나타나는 예는 없다.

《석보상절》 이후 보다 다양한 환경의 '[NP1이 V1]-게 ᄒᆞ-' 구문이 나타난다. 이때에는 행위주다움보다는 강조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20) 가. 내 前生애 여러 가짓 罪 이실ᄊᆡ **아ᄃᆞ리** 이런 受苦ᄅᆞᆯ ᄒᆞ게 ᄒᆞ라 내 모ᄆᆞᆯ 엇뎨 드틀 ᄀᆞ티 ᄇᆞᅀᆞ디 몯관ᄃᆡ **내 아ᄃᆞ리** 목수믈 일케 ᄒᆞ야뇨 ᄒᆞ시더니 <월석 21: 219b> (『以我宿世有諸過惡, 今令子身受是苦也。今我身者, 何不碎末如塵, 乃令我子喪失身命。』)

나. ᄒᆞᆫ가지로 大乘을 주어 **사ᄅᆞ미** ᄒᆞ오ᅀᅡ 滅度 得게 마라 다 如來ㅅ 滅度로 滅度호리라 (等與大乘ᄒᆞ야 不令有人이 獨得滅度케 ᄒᆞ야 皆以如來ㅅ 滅度로 而滅度之호리라 ᄒᆞ고) <법화 2: 99a>

다. 내 곧 涅槃ᄒᆞ야 **네** 이 願을 어셔 ᄆᆞᆺ게 호리니 <월석 21: 130b> (吾卽涅槃, 使汝早畢是願,)

라. **내** 來世예 부텨 ᄃᆞ외에 ᄒᆞ고라 <월석 20: 114b> (令我來世得成作佛,)

(20가)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아들', (20나)에서 '사람이 혼자서 득도하지 않고 모두가', (20다)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너', (20라)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와 같은 강조의 문맥을 읽을 수 있다.

드물지만 V1이 형용사인 경우에도 피사동주가 주어로 나타난 경우가 있다.

(21) 覺心이 本來 조홀딘댄 알면 곧 반ᄃᆞ기 ᄒᆞᆫ가지니 ᄯᅩ 므슴 法이 더러여 **내 用心이** 부텻긔 <u>다ᄅᆞ게 ᄒᆞᄂᆞ니잇고</u> ᄒᆞ시니 (覺心이 本淨인댄 悟卽應同이니 更有何法이 染汚ᄒᆞ야 令我用心이 異佛이잇고 ᄒᆞ시니) <원각하3-1:5a>

이 때에도 '내 용심'의 행위주다움을 말할 수 없다. 여기에서도 깨달은 마음이 본래 한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닌) 내 용심'이 부처에게서 다를 수 없다는 강조의 문맥으로 읽을 수 있다.

4. 'V_1P-게 V_2' 결과 구문

제4장에서는 'V1P-게 V2' 결과 구문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기술한다. 결과 구문이란 V2의 동작 행위와 V1의 결과 상태가 하나의 문자 안에 언어화된 구문을 의미한다. 즉 V2는 원인에 해당하고 'V1P-게'는 결과에 해당한다. 이 장에서는 'V1P-게 V2' 결과 구문을 V2의 성격에 따라 타동사인 경우와 자동사인 경우로 나눈 후, 각각이 보이는 구문 구조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4.1은 V2가 타동사인 경우를 살펴본다. 크게 상태 변화를 수반하는 타동사인 경우와 제조동사인 경우를 살펴본다. 4.2에서는 V2가 자동사인 경우를 살펴본다. 크게 V2가 자동사 혹은 비대격동사인 경우와 사동의 의미가 없는 '-게 ᄒᆞ-' 구문의 예를 살펴본다. 4.3에서는 V2가 '굴-'인 경우를 'V1P-게 V2' 결과 구문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4.1. V_2가 타동사인 경우

4.1.1. V_2가 상태 변화 타동사인 경우

한국어의 결과 구문에서 V2가 타동사인 경우, 특히 대상(theme)에 영향을 입혀 그 결과 대상의 상태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는 가장 전형적인 'V1P-게 V2' 결과 구문을 형성한다. 이는 중세 한국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다음은 15세기에 나타난 '-게' 결과 구문의 예이다.

(1) 가. 빅번을 ᄀᆞᄂᆞᆯ에 ᄀᆞ라 빗복 가온ᄃᆡ 녀코 (白礬細末置臍中) <구간 3: 91a>
나. 예초 ᄡᅵ 숩 반 량을 누르게 봇가 ᄀᆞ론 ᄀᆞᆯ을 술 서 홉애 ᄌᆞ마 (酸棗人半兩炒令黃研末以酒三合浸汁) <구간 1: 13a>
다. 청믈 든 뵈예 소고ᄆᆞᆯ 탄ᄌᆞ만 케 ᄡᅡ (青布裹塩如彈子大) <구간 2: 27a>

(1)은 V2이 상태 변화를 수반하는 타동사이고 V1이 형용사인 경우에 해당한다. (1가)의 “가는” 사건은 대상을 가늘어지게 하고, (1나)의 “볶는” 사건은 대상을 누래지게 한다. (1다)의 “싸는” 사건은 대상이 탄자의 크기만 하게 되도록 만든다. 즉 V2의 행위 결과 그 영향을 입는 대상은 V1이 아닌 상태에서 V1의 상태로의 변화를 입는다. 이와 같은 중세 한국어의 전형적인 ‘-게’ 결과 구문의 구문 구조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2) [NP2이 NP1을 [(NP1이) V1]-게 V2]
NP2가 V2함으로써 그 결과 NP1이 V1의 상태에 이르게 하다.

즉 상태 변화를 수반하는 V2의 사건에 의한 결과가 ‘V1P-게’로 나타나며 이는 V2 사건의 [결과]에 해당한다. 이때 V1의 주어에 해당하는 NP1은 V2의 목적어로 나타나며, 이것은 타동사 V2에 의해 영향을 입는 대상(theme)이다.

중세 한국어에서 이와 같은 전형적인 결과 구문을 보이는 타동사는 아래와 같다.

(3) 가. 굻-, 글히-, 골-, 곩-, 너피-, 달오-, 달히-, 딯-, 버히-, 봊-, 비븨-, 비취-, 사홀-, 섞-, 십-, 솔-, 젖-, 치-, 티-, 펴-, 플-, 혀- 등
나. 굽-, 글히-, 골-, 돌-(秤), 둠그-, ᄇᆞᄅᆞ-, 솔-, 솖-, 딯-(찧-), 달히-, 메왓-, 비븨-, 사홀-(ᄊᆞ홀-), 치-, 티-, 펴- 등

(3가)는 15세기의 예이고 (3나)는 16세기의 예이다. (3)의 동사들은 모두 구체적인 동작 동사들이고 그 동작 행위에 의해 대상(theme)에 영향을 입혀 상태 변화를 유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때 V1P로 나타나는 결과 표시부의 내용은 대체로 V2의 의미로부터 예측 가능한 성격의 것이다. 앞서 (1가)에서 제시한 예문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4) 빅번을 ᄀᆞᄂᆞᆯ에 ᄀᆞ라 빗복 가온ᄃᆡ 녀코 (白礬細末置臍中) <구간 3: 91a>

‘골-’[末, 抹]의 동사 의미는 대상이 갈림에 따라 크기가 작아지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게 한다. 따라서 ‘ᄀᆞᆯ에’와 같은 결과 표시부는 동사 의미에 의해 예측 가능한 결과 상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V2와 결과 표시부의 예측 가능성과 관련하여 와시오 류이치(1997)은 결과 구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강(strong) 결과 구문, 약(weak) 결과 구문, 의사(spurious) 결과 구문이 그것이다. 결과 표현이 동사의 의미로부터 예측하기 어렵고 구문의 힘에 의해 결과로 해석되는 강 결과 구문과 달리, 약 결과 구문의 결과 표현은 동사의 의미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 않고 동사 의미가 가지는 변화 방향성의 함의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25] 이 중 한국어의 결과 표현은 주로 약 결과 구문과 의사 결과 구문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중세 한국어의 ‘-게’ 결과 구문의 결과 표시부 역시 동사인 V2의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예측 가능한 방향의 결과만을 표시한다는 점은 약 결과 구문의 유형을 보이며 이러한 점은 현대 한국어와 동일하다.

이러한 V1P이 가리키는 예측 가능한 방향성은 대상의 순수한 상태 변화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의 상태 변화에 대한 개념화자의 평가가 관여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심지영(2016: 107)은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상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거나 혹은 기대했던 바에 못 미치는 결과라고 생각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은 영어의 결과 구문과 대별되는 점이며 중국어의 결과 구문과는 유사한 점

25) 다음은 와시오 류이치(1997: 437-8)에서 영어, 한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를 중심으로 제시한 결과 표시부의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1)은 강 결과 구문, (2)는 약 결과 구문 (3)은 의사 결과 구문에 해당한다. 의사 결과 구문의 결과 표시부는 [방식]과 [결과]의 경계에 있다고 하였다.

(1) 가. The horses dragged the logs smooth.
나. *말이 통나무를 반들반들하게 끌었다.
다. *uma-ga maruta-o subesube-ni hikizut-ta.
라. *Les chevaux ont traîné les rondins lisses.

(2) 가. I painted the wall red.
나. 나는 벽을 빨갛게 칠했다.
다. boku-wa kabe-o akaku nut-ta.
라. *J‘ai peint le mur rouge.

(3) 가. He tied his shoelaces tight.
나. 나는 구두끈을 단단하게 매었다.
다. boku-wa kutu-no himo-o kataku musun-da.
라. J‘ai noue les lacets de mes chaussures bien serré.

이라 하였다.[26] 중세 한국어의 결과 구문도 개념화자의 평가와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다.

(5) 가. 굵게 ᄀᆞ로니 ᄒᆞᆫ 되ᄅᆞᆯ 됴ᄒᆞᆫ 술 두 되예 달혀 (用爲麤末每用藥一升無灰酒二升煎) <구간 3:42a>
나. ᄃᆞᆯᄀᆡ 앐 ᄆᆞᆯᄀᆞᆫ 므레 걸에 ᄆᆞ라 (濃調雞子清) <구방 하 13a>

(5가)의 대상은 가는 사건에 의해 처음보다 더 '굵어지는' 상태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 없다. '굵게'가 의미하는 바는 '갈다'라는 동작 행위에 의해 예상되는 대상의 상태 변화 양상이 있는데 그 정도가 화자의 기준에 비추어 그보다 상대적으로 굵다는 것이다. (5나)의 '걸에' 역시 마찬가지이다. 가루를 달걀물에 말면 가루의 결과 상태는 이전보다 '걸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기준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걸게 된 상태에 해당한다.

중세 한국어에서 V1P로 나타나는 용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6) 가. 굵-, ᄀᆞᄂᆞᆯ-, 누르-, 흑-, X만 ᄒᆞ-, 덥-, 븕-, 보ᄃᆞ랍-, 검-, 부드럽-, 두텁-, ᄀᆞᄃᆞᆨᄒᆞ-, 고ᄅᆞ-, 엷-, 고ᄉᆞ-, 구스-, 검븕-, 쟉-, 거츨-, 겉-, 후로로ᄒᆞ-, 麤ᄒᆞ- 등
나. 없-, 뼈디-, 닉-, 블거ᄒᆞ-, ᄆᆞᄅᆞ-, 므르-, 므르닉-, ᄇᆡ브르-, 나-, ᄉᆞ히-, ᄇᆞᄉᆞ바ᄆᆡ-, 고ᄅᆞ-, ᄒᆞ야디-, X ᄃᆞ외-, 다ᄃᆞᆫ-, ᄎᆞ- 등

(7) 가. ᄀᆞᄂᆞᆯ-, 겉-, 히-, 굵-, X만 ᄒᆞ-, 흑- 등
나. 길-, 없-, 닿-, 타-, 닉-, 믈어디-, 헤여디-(허여디-), 므르녹-, 나-. 흐르- 등

---

26) 현대 한국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1) 가. 영희가 머리를 길게 잘랐다.
나. 민호가 가방을 가볍게 채웠다.
다. 학생들이 교실 바닥을 더럽게 닦았다. (심지영 2016: 107)

(6)은 15세기의 예, (7)은 16세기의 예이다. (6가), (7가)는 형용사의 예이고 (6나), (7나)는 동사의 예이다. 4.1.2에서 살펴볼 제조 동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사도 V1으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구체적인 상태의 서술과 관련된 성상 형용사와 자동사에 해당한다. 이것은 이 시기 부사형 어미 '-게'가 'V1P-게 V2'의 구성 요소의 일부로 사용되어 결과 표시부의 기능을 하는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게 ᄒᆞ-' 사동 구문의 경우는 V1에 심리 형용사가 올 수 있으므로 이것은 중세 한국어의 결과 구문이 무정물의 상태 변화를 기술하는 문맥에만 사용되었을 뿐 유정물을 대상으로 하는 예를 얻지 못하여서일 가능성도 있다. 이 시기 결과 구문이 주로 나타나는 문헌이 《구급방》 류의 실용서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V1-게 V2' 결과 구문은 그 자체가 V2에 의한 V1으로의 상태 변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어디-'와 같은 상태변화를 의미하는 문법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V1에 상태 변화를 의미하는 문법 요소가 덧붙은 경우도 보인다.

(8) 가. 콩각대를 믈어디게 ᄉᆞᆯ마 소곰 섯거 ᄉᆞ이예 며조ᄭᆞᆯ을 녀허 ᄃᆞᄆᆞ면 쟝이 도외여 ᄀᆞ쟝 됴ᄒᆞ니라 <구황 10b>

가'. ᄀᆞᆫ곳 져기 조쳐 므르게 디허 죠히 우희 펴 빗복의 브텨 오라면 누리라 (鹽花少許爛擣 攤紙花子上貼臍良久卽通) <구간 3: 84a-84b>

나. 큰 부ᄌᆞ 혼 나출 죠히예 싸 믈 저져 뼈디게 구워 (大附子一枚炮去皮臍爲末) <구간 7: 48a>

(8가)는 '믈어디게'가 사용되었고, (8나)는 '뼈디게'가 사용된 예이다. (8가)의 '믈어디게'는 (8가')와 같이 '므르게'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여기에 상태 변화를 의미하는 '-어디-'가 결합한 '믈어디-'가 사용되었다. 어휘와 구문에 동일한 의미가 중복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결과 표시부가 절의 형식을 띠는 경우가 있다. 기술의 편의상 V2의 대상을 O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은 구조를 보인다.

(9) [NP2이 O을 [NP1이 V1]-게 V2]
NP2가 V2함으로써 그 결과 O가 NP1이 V1한 상태에 이르게 하다.

[NP1이 V1]의 주술 구조가 나타난다는 점은 이를 복문으로 파악하게 한다. 결과 구문 이때 결과를 표시하는 'V1P'가 NP1와 V1의 주술구조로 나타난다는 점은 이를 복문으로 파악하게 한다. 그렇지만 V1P가 나타내는 사태가 V2에 의한 결과 상태에 해당하며, V2의 대상인 O가 V1P가 나타내는 사태의 의미적인 주어라는 점에서 구문 구조는 (2)에서 살펴본 전형적인 결과 구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0) 가. ᄉᆞᄆᆞᆺ 블근 숫브를 <u>지 업게 불오</u> (用通紅炭火<u>吹去灰</u>) <구방 하 35a>
나. 거믄콩 ᄒᆞᆫ 홉을 <u>닉 나게 누르봇가</u> (黑豆一合<u>炒令烟出</u>) <구간 7: 4a>
다. 將軍은 <u>ᄆᆞᆯ ᄯᅳᆷ 나게 토ᄆᆞᆯ</u> ᄉᆞ랑ᄒᆞ고 天子ᄂᆞᆫ 오히려 戎衣ᄅᆞᆯ 니버 겨시도다 (將軍思<u>汗馬</u> 天子尙戎衣) <두시 10: 36a>
라. 慶忌라 호리 머리예 <u>피 나긔 조ᅀᅡ</u> 말이ᄉᆞᄫᆞ니라 (將軍辛慶忌 免冠<u>叩頭流血</u>爭) <삼강 충 7>

(10)을 (9)의 구문 구조를 보이는 예문이다. (10가)는 V1이 '없-'이지만 "없어지다"라는 의미의 자동사로 볼 수 있는 경우이고 (10나), (10다)는 V1이 자동사 '나-'인 경우, (10라)는 V1이 타동사 '좇-'인 경우이다. (10가)에서 숯불을 분 결과 숯불에 재가 없어지게 되고, (10나)에서 검은콩을 볶은 결과 검은콩에서 연기가 나게 된다. (10다)는 원문인 '汗馬', 즉 "말이 달려 땀투성이가 되는 노고, 혁혁한 전공(戰功)"과 같은 뜻인 '汗馬之勞'의 의미를 'ᄆᆞᆯ ᄯᅳᆷ 나게 ᄐᆞ-'로 번역한 것이다. 말을 탄 결과 말에서 땀이 나게 된 것이므로 'ᄯᅳᆷ 나게'는 [결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0라)의 '좇-'은 대상인 '머리'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타동사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는 '머리'가 주절에 목적어로 나타나지 않고 '머리예'와 같이 처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10)의 V1P는 모두 주술관계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어로 나타난 NP1과 상위문의 목적어 O의 관계는 처소와 대상 혹은 소유주와 소유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어에서 이중주어문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숯불이 재가 없다], [말이 땀이 나다]와 같은 구문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O라고 설정한 목적어는 사실 V1P의 주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NP2이 NP1을 [(NP1이) V1]게 V2]의 사건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문 원문에서도 이들이 결과보어를 취하는 것이 잘 확인되는데 '동사-(목적어)-결과보어'의 어순이 잘 드러난다.

구문 구조에서 O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1) [NP2이 (O을) [NP1이 V1]-게 V2]
NP2가 V2함으로써 그 결과 (O가) NP1이 V1한 상태에 이르게 하다.

(12) 가. 어미 겨스레 王延이 ᄒᆞ야 산 고기 자바 오라 ᄒᆞ니 몯 자ᄇᆞᆫ대 피 흐르긔 텨 늘(卜氏嘗盛冬思生魚 使延求而不獲 杖之流血) <삼강 효 19a>
나. 金ㅅ 사ᄅᆞ미 긁어 내야 ᄂᆞ치 헐에 티니 셜워 업더러디니라 (金人曳若水出擊之敗面氣結仆地) <삼강 효 18a>

(12)에서 타동사인 '티-'의 목적어가 문면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문맥상 (12가)의 대상은 王延이고, (12나)의 대상은 若水이다. 친 결과 왕연의 몸에서 피가 흐르게 되고 약수의 얼굴이 헐게 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5)에서 살펴본 문장들이 보이는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때에도 O와 NP1의 관계는 소유자와 소유물로 보아 [왕연이 피가 흐르다], [약수가 얼굴이 헐다]와 같이 이중주어문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의 구문은 '양(量)의 정도'가 NP1이 되는 경우이다.

(13) [NP2이 O를 [(O이) (양=NP1이) (기준에) V1]게 V2]
NP2가 V2함으로써 그 결과 O가 (그 양이) V1의 정도에 이르게 하다.

(14) 가. 各各 보ᄇᆡ곳 우흠 ᄎᆞ게 가지샤 니ᄅᆞ샤ᄃᆡ (各齎寶華滿掬ᄒᆞ샤 而告之言ᄒᆞ샤ᄃᆡ) <법화 4: 129b>
가'. 各各 寶華ᄅᆞᆯ 우흠 ᄎᆞ게 가지샤 니ᄅᆞ샤ᄃᆡ <월석 15: 81a> (各齎寶華滿掬而

告之言)

나. 팅즛 우희 프른 거플 숩청애 다ᄃᆞᆫ게 ᄀᆞᆯ고니 닷 되ᄅᆞᆯ (枳實上青刮取末欲至心止) <구간 1: 28a>

다. 너덧 홉곰 머고ᄃᆡ 졈졈 더 ᄒᆞᆫ 되예 다ᄃᆞᆫ게 머그라 (飮四五合稍增至一升喫之) <구간 2: 19a>

라. 또 밠톱 우흘 各各 三分이 들에 針ᄒᆞ라 (又足指甲上各入三分) <구방 상: 40b-41a>

라'. 또 百會ᄅᆞᆯ 針호ᄃᆡ 三分에 들에 ᄒᆞ야 補ᄒᆞ고 (又方針百會入三分補之) <구방 상: 40b>

(14가)에서 'ᄎᆞ-'는 [NP이 (기준)에 ᄎᆞ-]와 같은 통사 구조를 가지는데, 보배 꽃을 가진 결과 그것의 양이 한 움큼에 차게 된다는 양의 변화 결과와 관련된다. (14나)는 탱자를 갉은 결과 탱자의 크기가 속막에 이르게 된다는 상태 변화와 관련된다. (14다)는 약을 양을 점점 늘려가며 먹은 결과 그 양이 한 되에 이르게 된다는 양의 변화와 관련된다. (14라)의 '針ᄒᆞ-'는 침 놓을 곳을 목적어로 취하는데 사실은 '침'이 동사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침을 놓은 결과 침이 들어가는 정도가 삼푼에 이르게 된다는 상태의 변화와 관련된다. 여기에서는 '三分'이 주격으로 나타났지만 조금 앞선 문맥에서는 (14라')와 같이 처격으로 나타난다. (14)의 문장에서 O는 (14가), (14가')에는 드러나 있지만 대체로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NP1은 '그 양' 정도의 명사구에 해당한다. O와 '그 양'은 소유주와 소유물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V1의 주어인 NP1이 V2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V2의 대상 O와 대상과 처소와 대상의 관계, 소유주와 소유물의 관계 등 이중주어문을 만들 수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도 결과 구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중세 한국어의 결과 구문에서 V2가 선행하는 경우이다. V2가 선행할 때 아래의 (15)와 같은 구문 구조가 가능하다. 이때 'V1P-게' 뒤에는 V2를 대용하는 'ᄒᆞ-'가 뒤따른다.

(15) 가. [NP2이 V2-오ᄃᆡ] [NP1을 [(NP1이) V1]-게 ᄒᆞ-]

나. [NP2이 V2-어] [NP1을 [(NP1이) V1]-게 ᄒᆞ-]
다. [NP2이 V2-오ᄆᆞᆯ] [[NP1이 V1]-게 ᄒᆞ-]

(16) 가. 蜣螂 세 낫 ᄂᆞᄅᆞᆯ 섯거 ᄀᆞ로ᄃᆡ ᄀᆞ장 ᄀᆞᄂᆞᆯ에 ᄒᆞ야 헌 ᄯᅡ해 ᄇᆞᄅᆞ면 (蜣螂三枚生用右件藥相和研令極細塗所傷處) <구방 하 2b-3a>
가'. ᄇᆡᆨ번을 ᄀᆞᄂᆞᆯ에 ᄀᆞ라 ᄇᆡᆺ복 가온ᄃᆡ 녀코 (白礬細末置臍中) <구간 3: 91a>
나. 새박 너추ᄅᆞᆯ ᄃᆡ허 ᄆᆞᆫᄀᆞᆱ ᄀᆞᆮ게 ᄒᆞ야 (蘿藦草擣如泥) <구간 6: 68a>
나'. ᄯᅩ ᄌᆞ葱 ᄒᆞᆫ 우후믈 ᄆᆞᆫᄀᆞᆱ ᄀᆞᆮ게 디코 (又方胡蔥一握搗如泥) <구방 하 76b>
다. 金으로 ᄯᅡ해 ᄯᅳ로ᄆᆞᆯ ᄠᅳᆷ 업게 ᄒᆞ면 이 東山ᄋᆞᆯ ᄑᆞ로리라 <釋詳 6: 24b>(汝若能以黃金布地令間無空者便當相與。)
라. 너덧 홉곰 머고ᄃᆡ 졈졈 더 ᄒᆞᆫ 되예 다ᄃᆞᆫ게 머그라 (飮四五合稍增至一升喫之) <구간 2: 19a>

(16가)는 'V2-오ᄃᆡ V1-게 ᄒᆞ-' 구성, (16나)는 'V2-어 V1-게 ᄒᆞ-' 구성, (16다)는 'V2-오ᄆᆞᆯ V1-게 ᄒᆞ-' 구성의 예이다. (16가)와 (16가'), (16나)와 (16나')에서 보듯 이들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한문 원문, 즉 '동사(V2)+결과보어(V1)'로 구성된 문장을 각각 연결어미로 연결된 절 구성과 '-게' 결과 구문으로 언해한 것이다. (16가)와 (16나)는 한문 원문의 어순대로 언해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때 (16나)에 쓰인 '-어'는 [계기]의 연결어미로 볼 수 있으나, (16가)와 같은 '-오ᄃᆡ'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는 [전제]의 연결어미에 해당한다. (16다)는 동명사 구성 전체를 목적어로 가지는 일종의 타동사 구성으로 볼 수도 있다.

(15)에서 후행하는 'ᄒᆞ-'는 V2의 대용적 표현임이 분명하다. 이는 (16라)와 같이 '머고ᄃᆡ [...] 머그라'에서처럼 대용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동일한 동사를 그대로 쓴 문장에서 잘 드러난다. 따라서 중세 한국어의 '-게 ᄒᆞ-'의 용례 중에서 (15)와 같은 구문 구조를 보이는 예는 사동 구문이 아닌 결과 구문으로 보아야 한다. [사동]의 추상적인 의미를 함의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동작 동사의 대동사로 무정물인 대상에 영향을 입히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5)과 같은 구문에서 우리는 사동 구문과 결과 구문의 밀접한 관련성

을 엿볼 수 있다. 결과 구문은 논리 구조상 사동 구문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박소영 2001: 63). 각 구문이 나타내는 거시 사건은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이라는 미시 사건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 구조가 구문으로써 반영된 것이 '-게 ᄒᆞ-' 사동 구문과 'V1-게 V2' 결과 구문인 것이고, 원인 사건인 V2가 선행함으로써 그 의미가 투명하게 반영된 것이 (15)과 같은 구조인 것이다.

사실 (15)와 같은 구조는 일반적인 '부사어 # ᄒᆞ-'의 구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7) 가. 如來ㅅ 知見으론 古今이 一時ㄹ씨 뎌 久遠을 보샤ᄃᆡ 오ᄂᆞᆯᄀᆞ티 ᄒᆞ시니 <월석 14: 10a> (以如來知見則古今一時。 故觀彼久遠猶若今日。 此又釋迦之大通也。)

나. 三業을 니ᅀᅩᄃᆡ 大悲로 ᄒᆞ샤ᄆᆞᆫ (繼三業以大悲) <법화 5: 5b>

다. 長者ㅣ 말ᄊᆞᄆᆞᆯ 호ᄃᆡ 샹녜 우ᅀᅥ ᄒᆞ야 <월석 23: 72b> (長者 語常含笑)

라. 四面에 各各 靑幡 닐굽곰 ᄃᆞ로ᄃᆡ 기릐 ᄒᆞᆫ 丈이에 ᄒᆞ고 <월석 10: 119b> (四角各懸靑幡七枚。合二十八幡各長一丈。)

(18) 가. 엇뎨 시러곰 ᄠᅳᆮ호ᄆᆞᆯ 수이 ᄒᆞ리오 (那得易爲情) <두시 23: 52b>

나. 글 닐우믈 能히 바ᄆᆞᆯ 골포 ᄒᆞ며 술 醉호ᄆᆞᆯ 時或 아ᄎᆞᄆᆞᆯ 니ᅀᅥ ᄒᆞ노라 (說詩能累夜 醉酒或連朝) <두시 20: 46b>

다. ᄉᆞ님ᄭᅴ 밥 보내요ᄆᆞᆯ 날마다 그리 ᄒᆞ다가 <석상 11: 40b> (後爲其女而送食分, 日日如是。)

라. 兵戈ㅣ 잇ᄂᆞ니 보ᄆᆞᆯ 어느 말ᄆᆡ로 ᄒᆞ리오 (兵在見何由) <두시 8: 34a>

마. ᄏᆡ야 머구믈 보ᄆᆡ 니ᅀᅥ ᄒᆞᄂᆞ니라 (採擷接靑春) <두시 16: 70a>

바. 金으로 ᄯᅡ해 ᄉᆡ로ᄆᆞᆯ ᄠᅳᆷ 업게 ᄒᆞ면 이 東山ᄋᆞᆯ ᄑᆞ로리라 <석상 6: 24b>(汝若能以黃金布地令間無空者便當相與。)

(17)과 (18)은 이현희(1994: 83-85)에서 제시한 '부사어 # ᄒᆞ-' 구성이 '-오ᄃᆡ' 구문으로 나타나거나 동명사 구성의 목적어를 취한 예이다. 이때 부사어는 '-이' 파생부사, '로'격을 취하는 명사구, 용언의 활용형 등 그 형태론적 성격이 다양할 뿐

아니라 서술어와 맺는 관계 역시 다양하다. (17가)의 '오ᄂᆞᆯᄀᆞ티'는 '보-'의 판단 결과 구원(久遠)을 오늘처럼 보았다는 것으로 5장에서 살펴볼 판단 구문의 [결과]에 해당한다. (17나)의 '大悲로'는 잇는 [방식]에 가깝다. (17다)의 '우서' 역시 [방식]에 해당한다. (17라)의 '기릐 ᄒᆞᆫ 장(丈)이에'는 비록 다는 행위에 의해 청번의 길이 자체가 영향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 목적어인 청번의 상태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결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8가)~(18마)의 부사어들은 모두 [방식]에 해당한다. (18바)의 경우 'ᄉᆞᆯ-'의 의미상 목적어는 '금(金)' 혹은 '바닥'이며 '뿜 업게'는 금이 바닥에 깔린 상태에 대한 서술이므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관계를 가지는 부사어들이 'V-오ᄃᆡ 부사어 # ᄒᆞ다' 혹은 'V-오ᄆᆞᆯ 부사어 # ᄒᆞ다' 구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연결어미 '-오ᄃᆡ'나 동명사 구성의 목적어 구성 자체가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의 인과 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부사어가 대상의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 (15나)와 같은 [계기]의 연결어미 '-어'가 쓰일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근대 한국어 결과 구문의 양상은 중세 한국어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현대 한국어의 결과 구문의 주요한 특징들과 중세 한국어의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과도 연결된다. 다만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19) 이제 쥬랑이 여러 장슈들희 앏히셔 붓그럽게 치니 <삼역 6: 6b>

(19)는 [NP2이 (NP1을) [(NP1이) V1]-게 V2]라는 구문 구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구문의 구문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점은 V1의 용언이 '붓그럽-'이라는 심리 형용사라는 점이다. 중세 한국어와 달리 유정물을 대상으로 삼아 결과 구문을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이 결과 구문의 사용역이 확대된 것인지, 문헌 자료의 맥락상의 제한과 그 해제에 따른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음은 결과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평가와 관련한 예문이다.

(20) 우방은 죡져비 피육과 뼈를 아오로 셩이 잇쎄 ᄉᆞ라 ᄀᆞᄂᆞᆯ게 ᄀᆞᄅᆞ 밍ᄃᆞ라 당지예

ᄲᅡ 헌 ᄃᆡ 녀호라 (又方은 黃獷皮肉並骨을 燒存性細末ᄒᆞ야 唐紙예 裹ᄒᆞ야 納瘡中ᄒᆞ라) <마경 하 115b-116a>

(20)은 결과부가 주술구조로 나타나는 결과 구문의 예이다. 사르는 행위의 결과 대상은 그 성질을 잃는 것이 기대되는데, 그 성질이 (남아) 있을 정도로만 사르라는 문맥으로 해석된다. 한문 원문에서도 동사+결과보어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앞서 (5)에서 살펴본 '굵게 ᄀᆞᆯ-'과 유사하다.

4.1.2. V_2가 제조 동사인 경우

다음으로 V2가 제조 동사(creation verb)[27]인 경우에도 '-게' 결과 구문이 사용됨을 보이고자 한다. 제조동사의 목적어는 V2의 동작 행위 결과 이전에 없던 사물이 새롭게 생겨난 것이다. 이때 'V1P-게'는 이 새로운 사물의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4.1.1에서 살펴본 대상의 상태 변화를 수반하는 타동사 구문에서의 'V1P-게'가 대상의 변화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V2가 제조 동사일 때에는 새롭게 생성된 대상의 최종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이 점을 제외하면 앞서 살펴본 타동사 구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

(21) 가. [NP2이 NP1을 [(NP1이) V1]-게 V2]
NP2이 V2함으로써 만들어진 NP1이 V1한 상태에 있다.

(22) 가. ᄉᆞ졀애 조쳐 ᄡᅳᄂᆞᆫ 약을 오젹산 패독산애 섯거 ᄒᆞᆫ 복애 서 돈 남ᄌᆞ게 ᄆᆡᆼᄀᆞ라
(加藥合前二藥和雜每服三錢) <구간 1: 101a>

---

27) 본고에서는 박소영(2003: 84)을 따라 Creation verb의 번역어로 '제조 동사'를 취하고자 한다. Pustejovesky (1995: 122-5)에서는 어떠한 목적어 논항이 결합되는가에 따라 bake의 의미를 '상태변화'와 '제조'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 가. John baked the potato. (상태변화)
나. John baked the cake. (제조)
bake의 기본적 의미는 과정으로서의 상태변화인데, (1가)와 같이 재료와 결합될 때는 재료의 상태변화와 관련되고, (1나)와 같이 인공물과 결합할 때에는 제조의 의미로 변화한다.

나. 鍊혼 ᄲᅮᆯ로 梧桐子만 케 丸 ᄆᆡᇰᄀᆞ라 (煉蜜丸如梧桐子) <구방 상 57b>

다. 像ᄋᆞᆫ ᄀᆞᄐᆞᆯ씨니 부텻 양ᄌᆞ를 ᄀᆞᄐᆞ시긔 그리ᅀᆞᆸ거나 ᄆᆡᇰᄀᆞᅀᆞᆸ거나 ᄒᆞᆯ씨라 <월석 2: 66b>

라. 牛糞汁으로 龍王ᄋᆞᆯ ᄒᆞᆫ 모미오 세 머리에 그리고 <월석 10: 118a> (用牛糞汁畫作龍王一身三頭。)

마. ᄯᅩ 龍王ᄃᆞᆯ히 左右에 圍繞케 그리고 <월석 10: 118b> (亦畫諸龍左右圍遶。)

(22)는 V2로 '밍ᄀᆞᆯ-', '그리-' 등 제조 동사가 쓰인 예이다. '-게 밍ᄀᆞᆯ-'의 경우 사동 구문으로 쓰인 것과, 구체적인 대상을 제조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야 한다. (22가)나 (22나)에서는 '약', '환(丸)' 등 구체적인 대상을 생성하므로 제조 동사에 해당한다. V1에는 (22가), (22나), (22다)와 같은 형용사, (22라)의 계사, (22마)의 동사 등 다양한 품사가 올 수 있었다. 이들은 제조 동사에 의해 만들어진 대상의 상태를 기술한다. (22나)에서는 '밍ᄀᆞᆯ-'의 목적어인 '환'이 동사 바로 앞으로 이동해 있다. (22다)의 경우 '부텻 양ᄌᆞ'는 묘사의 대상과 생성물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서는 '그리-'의 목적어로 나타나므로 생성물로 해석한다. [NP2이 부텻 양ᄌᆞ를(=생성물) [(부텻 양ᄌᆡ=생성물) (부텻 양ᄌᆡ=묘사의 대상) ᄀᆞᄐᆞ시-]-게 그리ᅀᆞᆸ-]과 같은 구조에서 하위문의 명사구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마)와 같이 [(NP1을) [NP1이 V1]-게 그리-]에서 대상이 상위문의 목적어로 나타나지 않고 하위문의 주어로 나타난 경우도 존재한다. 이때 '용왕들이 좌우에 위요하다'는 생성된 용왕의 그림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제조 동사 구문에서도 V2가 전치된 형식이 사용될 수 있다.

(23) [NP2이 NP1을 V2-오ᄃᆡ] [[(NP1이) V1]-게 ᄒᆞ-]

(24) 가. 초와 밥과로 섯거 환 밍ᄀᆞ로ᄃᆡ 록두만 케 ᄒᆞ야 (以醋飯和丸如菉豆大) <구간 1: 93b>

나. 알ᄑᆡᆺ 두 가짓 거슬 丸 밍ᄀᆞ로ᄃᆡ 梧桐子만 ᄒᆞ야 (前二味爲丸如梧桐子)<구방 하 88a>

(25) 가. 親히 飮食을 밍ᄀᆞ로ᄃᆡ 모로매 맛난 거시 잇게 ᄒᆞ더니 (親執饌具。必有甘旨。) <속삼 효 27b>

나. 네 이 다ᄉᆞᆺ 가짓 갈히 이리 밍ᄀᆞ로ᄆᆞᆯ 곱고 조케 ᄒᆞ면 은 세 돈애 밍ᄀᆞᆯ로다 (你這五件兒刀子 這般打的可喜乾淨時 三錢銀子打的。) <번박 상 16b>

나'. 네 이 다ᄉᆞᆺ 발 칼을 이리 민ᄃᆞᆯ기ᄅᆞᆯ 곱고 乾淨히 ᄒᆞ려 ᄒᆞ면 (你這五件兒刀子, 這般打的可喜干淨時,) <박언 상 16a>

(24)는 15세기의 예이고 (25)는 16세기의 예이다. V2인 '밍ᄀᆞᆯ-'이 '-오ᄃᆡ' 혹은 '-오ᄆᆞᆯ'과 결합하여 선행하고 그 결과 상태가 후행하는 구문이다. 15세기에는 (24가)와 같이 전치된 V2의 자리에 '-게 ᄒᆞ-'가 쓰인 예는 매우 드물다. 오히려 (24나)와 같이 'NP만 ᄒᆞ-'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25나)에서 NP1에 해당하는 '이 다ᄉᆞᆺ 가짓 갌'은 주격으로 나타나는데, 결과 구문의 대상이 주격으로 나타나는 예는 매우 드물다. 이 문장에서 '이 다ᄉᆞᆺ 가짓 갌'은 목적어가 전치되어 나오면서 주제어로 쓰인 것으로 보고자 한다.

중세 한국어의 제조 동사 구문도 결과 표시부가 주술 구조로 나타날 수 있었다. 다음은 16세기의 예이다.

(26) 가. 브세 드러 차반을 맛나게 ᄆᆞᆫᄃᆞᆯ오 텽의 올아 부못ᄭᅴ 문안ᄒᆞ니 (入厨具甘旨ᄒᆞ고 上堂問起居ᄒᆞ니) <번소 9: 99a>

가'. 브세 들어 ᄃᆞᆯ고 만난 거ᄉᆞᆯ ᄀᆞ초고 텽의 올라 안부를 묻ᄌᆞ오니 <소언 6: 92a>

나. 가온ᄃᆡᄂᆞᆫ 사탕오로 즁ᄉᆡᆼ의 얼굴 밍ᄀᆞ로니 노커나 션ᄉᆡᆫ이 ᄉᆞᄌᆡ 탓게 밍ᄀᆞᆫ 사탕을 노코 (當中間裏放象生纏糖或是獅仙糖。) <번박 상 4b>

나'. 가온대ᄂᆞᆫ 生物을 象ᄒᆞ여 ᄭᅮ민 沙糖이어나 혹 ᄉᆞᄌᆡ ᄐᆞᆫ 신션 양으로 민ᄀᆞᆫ 沙糖을 노코 (當中間裡, 放象生纏糖, 或是獅仙糖。) <박언 상 4b-5a>

(26가)는 [NP1을 [(NP1이) V1]-게 ᄆᆞᆫᄃᆞᆯ-]의 예이다. '맛나게'는 만들어진 '차반'의 결과 상태에 해당한다. 이것은 15세기에 살펴본 (1)과 같은 전형적인 구문이다.

(26나)는 결과 표시부가 주술 구조로 나타나는 [O [NP1이 V1]-게 밍ᄀᆞᆯ-]의 예이다. '밍ᄀᆞᆯ-'의 대상은 '사탕'인데 '사탕'과 '션신이 ᄉᆞᄌᆡ 탓-'은 직접적인 통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사탕을 만든 결과 그 모양이 선인이 사자에 타고 있는 것이라는 결과 상태를 서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문장은 17세기의 《박통사언해》에서는 (26나')의 'NP으로 V'와 같이 '로' 결과구문으로 언해되기도 하였다.

근대 한국어의 제조 동사 구문도 중세 한국어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은 근대 한국어 시기 제조 동사 구문의 예이다.

(27) 가. 캉 압히 남그로 화로를 <u>놉게 ᄆᆞᄃᆞ라</u> 그 우희 무쇠 화로를 언저 숫불을 만히 피오고 <을병 1: 83>
나. 밧그로 문을 응ᄒᆞ야 다ᄉᆞᆺ ᄃᆞ리를 ᄆᆞᆫ다라시ᄃᆡ 밋ᄎᆞᆫ 각각 <u>세 무디게</u> <u>문을 ᄂᆡ고</u> 우흔 각각 돌 난간을 셰워시ᄃᆡ <을병 2: 78>
다. 동골고 ᄃᆞᆫᄃᆞᆫᄒᆞᆫ 고ᄌᆞᆯ 두어 치를 ᄌᆞᆯ나 밋동을 엇버혀 <u>ᄉᆞᆺ치 놀나게</u> <u>ᄆᆞᄃᆞ라시니</u> <을병 5: 10>

(27나)는 'ᄂᆡ-'의 결과 문이 지어지는 것이므로 제조 동사 구문으로 파악하였다. 결과 표시부가 계사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27다)는 결과 표시부가 주술구조로 나타난 예이다. 이들의 양상은 중세 한국어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4.2. V_2가 자동사인 경우

4.2.1. V_2가 자동사인 경우

결과 구문의 V2가 자동사인 경우는 4.1에서 살펴본 타동사인 경우보다 비전형적인 양상을 보인다. 자동사 결과 구문은 크게 비능격(unergative) 동사 결과 구문과 비대격 동사(unaccusative) 결과 구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능격 동사[28]는 주어가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행동을 묘사한다. V2가 비능격 동사일 때 구문 구조는 흔히 아래와 같이 주술구조를 포함하여 나타난다.

(28) [NP2이 [NP1이 V1]-게 V2]
NP2가 V2함으로써 NP1이 V1한 결과 상태에 이르게 되다.

(29) 가. 피 나게 사호니 乾坤이 븕고 氣運이 迷亂ᄒᆞ니 日月이 누르도다 (血戰乾坤赤 氛迷日月黃) <두시 23: 55b>
나. 오시 젓게 우러 行幸 겨신 ᄃᆡ를 묻고 ᄆᆞᄅᆞᆯ 돌여 承明殿을 向ᄒᆞ야 가놋다 (霑衣問行在 走馬向承明) <두시 8: 16a>
다. 내○ 모글 들오 안자셔 옷가ᄉᆞ미 젓게 우ᄂᆞᆫ 양을 계오 아라 보고 <순천 115>

(29)는 V2가 비능격 동사인 자동사 결과 구문의 예이다. (29가)의 '피 나게 사호니'에서 V2인 '사호-'의 원인 행위로 인해 '피 나게'의 결과 사건이 일어난다. (29나)의 V2인 '울-'의 원인 행위로 인해 '오시 젓게' 되는 결과 사건이 일어난다. 이들은 비록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낮은 타동성을 보이지만 결과 사건과 원인 사건의 사건 구조적 성격이 '-게' 구문의 특성에 해당한다.

(30) 須闍提 니러셔 이셔 父母를 ᄇᆞ라ᄉᆞᆸ더니 父母ㅣ 목 노하 울며 길흘 조차 가더시다 父母ㅣ 몯 보긔 머리 니거시ᄂᆞᆯ 太子ㅣ 父母를 그리ᄉᆞ바 오래 ᄇᆞ라ᄉᆞᆸ다가 ᄯᅡ해 그우러디니 <월석 20: 113a> (須闍提起立, 住視父母。父母爾時擧聲大哭, 隨路而去。父母去遠不見, 須闍提太子, 戀慕父母, 目不暫捨, 良久躃地。)

---

28) 영어의 비능격 동사 결과 구문은 흔히 거짓목적어(fake object)라 부르는 특수한 목적어가 쓰인다는 특징이 있다.
(1) 가. John cried himself hoarse.
나. The jogger ran his Nikes threadbare.
(1가)의 목적어 himself와 (1나)의 목적어 his Nikes는 각각 동사 cried와 ran에 의해 하위범주화 되지 않는 목적어이다. 이들은 후행하는 형용사의 주어가 된다. 비능격 자동사는 이처럼 결과 구문의 구조 안에서만 목적어를 취할 수 있고, 이때 목적어가 없으면 비문이 된다(심지영 2016: 28 참조).

(30)은 《월인석보》에 나타난 비능격 동사 결과 구문의 예이다. 부모가 멀리 간 결과 태자가 부모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문맥에 해당한다. 부모가 멀리 간 것이 원인 사건이고 태자가 부모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결과 사건에 해당한다. 한문 저경에서도 '父母去遠'의 원인 사건과 '不見'의 결과 사건이 결과 구문을 이루는 것으로 해석된다. '몯 보긔'가 멀리 간 [목적]이 아니라 [결과]임에 주의해야 한다.

중세 한국어의 비능격 동사 결과 구문 중에는 NP1이 목적어로 나타나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31) [NP2이 NP1을 [(NP1이) V1]-게 V2]
NP2가 V2함으로써 NP1이 V1한 결과 상태에 이르게 되다.

(32) 가. 歲月이 늣고 ᄇᆞᄅᆞ미 ᄉᆞᆯ홀 헐에 부ᄃᆞ니 (歲晏風破肉) <두시 9: 29a>
나. 父母ㅅ 顔色ᄋᆞᆯ 바다 손바ᄅᆞᆯ 부른게 ᄃᆞ니고 안잿ᄂᆞᆫ 소ᄂᆡ게 盤飧ᄋᆞᆯ 고ᄃᆞᆯ파 ᄒᆞ놋다 (承顔胝手足 坐客强盤飧) <두시 21: 33b>
다. 열 히예 어루 甲을 바사도 ᄒᆞ리니 너를 爲ᄒᆞ야 ᄒᆞᆫ 번 手巾을 젓긔 우노라 (十年可解甲 爲爾一霑巾) <두시 10: 23b>

(32가)에서 V2인 '불-'의 원인 행위로 인해 '살이 허는' 결과 사건이 일어난다. 또 (32나)에서 V2인 'ᄃᆞ니-'의 원인 행위로 인해 '손발이 부른는' 결과 사건이 일어난다. (32다)에서는 '울-'의 원인 행위로 인해 '手巾이 젓는' 결과 사건이 일어난다. 따라서 사건 구조적인 측면에서 앞서 살펴본 결과 표시부가 주술구조로 나타나는 경우와 동일하다. 그런데 (32)의 NP1은 목적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목적어는 V2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살을 불-', '*손발을 ᄃᆞ니-'와 같은 표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거짓 목적어를 취하는 영어의 비능격 자동사 결과 구문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어의 결과 구문은 영어의 경우와 달리 반드시 목적어를 취해야 한다는 직접목적어 제약(DOR)이 없으므로, (32)와 같은 예문은 한문 원문의 구조에 강하게 영향을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32)의 언해문의

대당 한문 표현은 모두 '술어+목적어'의 술목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29나)의 경우도 원문이 술목 구조로 나타난 바 있다. 비능격 동사의 결과 구문의 일반적인 구문 구조는 (28)과 같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는 (31)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이와 달리 V2가 비대격 동사(unaccusative)인 결과 구문의 예도 존재한다. 비대격 동사는 대상역(theme)을 주어로 취하는 자동사이다. 비대격동사가 쓰인 구문 구조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32) [NP1(=theme)이 [(NP1이) V1]-게 V2]
V2함으로써 그 결과 NP1이 V1의 상태에 이르다.

(33) 가. 마ᄉᆞᆫ 귀예 귀마다 쇠사리 도다 븕긔 다라 이시며 <월석 4: 9a> (頭四十耳。耳生鐵箭。末爛上起。)
나. 그 나못 비치 즉자히 白鶴 ᄀᆞ티 ᄃᆞ외오 가지와 닙과 곳과 여름괘 ᄠᅥ러디며 거프리 ᄠᅥ디며 웃드미 漸漸 이우러 ᄒᆞᆫ 것도 업긔 것드르니라 <석상 23: 18a> (其樹卽時慘然變白, 猶如白鶴, 枝葉、花果、皮幹悉皆爆裂墮落, 漸漸枯悴, 摧折無餘。)

(33가)의 '쇠살'은 '다라 잇는' 대상이자 '븕-'의 주어에 해당한다. 또 쇠화살이 달구어지면 붉어지므로 사건 구조상 결과 구문으로 볼 수 있게 한다. (33나)의 '것들는' 대상은 나무의 잎, 꽃, 열매인데 꺾어 떨어진 결과 대상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V2가 비대격 동사인 경우는 동사가 대상 논항에 목적격을 부여할 수 없어 대상이 주어로 나타나지만 주어인 대상이 겪는 변화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결과 구문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비능격 동사와 비대격 동사의 결과 구문은 근대 한국어 시기에도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이 사용된다.

(34) 지아비 죽거ᄂᆞᆯ 텰쥭ᄒᆞ고 피 나게 울기ᄅᆞᆯ 삼 년 ᄒᆞ고 대샹랄의 손소 졔문을 지으니 <동신 열 2: 20b>

(35) 가. 珠露 [이슬이 동골게 ᄆᆡ틴 거시라] <증수 3b>
나. 깁히 검븕은 빗치오 或 검게 피 ᄆᆡ틴 빗치어나 <증수 14b>

(34)는 비능격 동사의 결과 구문의 예이고 (35)는 비대격 동사의 결과 구문의 예이다.

논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주술구조로 나타나는 결과 표시부의 의미적 표현적 특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주술구조로 실현되는 [NP1이 V1] 결과 표시부는 4.2.1에서 다루고 있는 자동사 결과 구문 뿐 아니라 4.1.1에서 다룬 타동사 결과 구문에서도 발견된다. 이 결과 표시부는 문맥에 따라 과장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36) 가. 어미 겨스레 王延이 ᄒᆞ야 산 고기 자바 오라 ᄒᆞ니 몯 자ᄇᆞᆫ대 피 흐르긔 텨 늘(卜氏嘗盛冬思生魚 使延求而不獲 杖之流血) <삼강 효 19a>
나. 오시 젓게 우러 行幸 겨신 ᄃᆡ를 묻고 ᄆᆞᄅᆞᆯ 돌여 承明殿을 向ᄒᆞ야 가놋다 (霑衣問行在 走馬向承明) <두시 8: 16a>

(37) 가. 누니 ᄃᆞᆲ게 (ᄇᆞ라오믈) 디ᄂᆞᆫ ᄒᆡ를 當호니 ᄆᆞᅀᆞ미 주그니 ᄎᆞᆫ ᄌᆡ(를 노)햇ᄂᆞᆫ ᄃᆞᆺ도다 (眼穿當落日 心死著寒灰) <두시 5: 5a>
나. 입이 ᄠᅥ여디게 니ᄅᆞ다 說得口破 <어록-初 20a>

(36)에서 ‘피 흐르긔’와 ‘오시 젓게’는 원인 사건인 ‘티-’와 ‘울-’의 결과 사건으로 무리 없이 해석된다. V2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비하여 (37)의 ‘누니 ᄃᆞᆲ게’와 ‘입이 ᄠᅥ여디게’는 실제 결과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과장적인 용법으로 볼 수 있다. 눈이 뚫어져라 소식을 바라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눈이 뚫리는 것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하더라도 실제로 입이 찢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심지영(2016: 117)에서는 (37)과 같은 과장적 표현이 마치 관용어처럼 쓰여 ‘정도의 심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29] 이들과

29) 현대 한국어의 다음과 같은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심지영 2016: 117).

후행 용언 역시 V2의 원인 행위로 인해 범상치 않은 결과에 이르렀음을 말하는 구조이므로 언어적으로 원인 결과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결과 구문의 일종으로 다루었다.

4.2.2. 피동적 '-게 ᄒᆞ-' 구문

이 절에서는 'V1-게 ᄒᆞ-' 구성이 사동의 의미로 쓰이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다루도록 한다. 사동 구문은 사동 사건과 피사동 사건이라는 두 개의 미시 사건이 결합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절에서 살펴보는 '-게 ᄒᆞ-' 구성은 V1과 V2가 별개의 주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예문은 주로 언간 자료에서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다. 아래의 (38)은 16세기 문헌 자료인 《번역소학》의 예이다.

(38) 가. 漢 시졀 陳州 ᄯᅡ히 ᄒᆞᆫ 효도로은 며느리 나히 열여슷신 제 남진 어러 ᄌᆞ식 업더니 <u>그 남진이 부방 가게 ᄒᆞ여</u> 길 나갈 제 孝婦ᄃᆞ려 ᄇᆞᆯ티며 닐오ᄃᆡ(漢陳孝婦ㅣ 年十六而嫁ᄒᆞ야 未有子ᄒᆞ더니 <u>其夫ㅣ 當行戍ᄒᆞ야</u> 且行時예 屬孝婦曰) <번소 9: 55a>

가'. 漢 적 陳 ᄯᅡ 孝婦ㅣ 나히 열여스신 제 셔방 마자 ᄌᆞ식이 잇디 몯ᄒᆞ엿더니 <u>그 남진이 부방 가게 當ᄒᆞ야</u> 쟝ᄎᆞᆺ 갈 적의 孝婦의게 맛뎌 ᄀᆞᆯ오ᄃᆡ (漢陳孝婦ㅣ 年十六而嫁ᄒᆞ야 未有子ㅣ러니 <u>其夫ㅣ 當行戍ᄒᆞ야</u> 且行時예 屬孝婦曰) <소언 6: 50b>

(38가)의 '그 남진이 부방 가게 ᄒᆞ여'에서 '그 남진'은 '부방 가-'의 주어에 해당하

뼈가 빠지게	허리가 휘게	등골이 내려앉게
입이 찢어지게	배꼽이 빠지게	배가 터지게
입이 떡 벌어지게	눈이 휘둥그레지게	귀청이 터지게
골병이 들게	정신이 번쩍 들게	넋이 나가게
숨이 넘어가게	눈물이 쏙 빠지게	말도 안 되게
어안이 벙벙하게	코피가 터지게	귀에 못이 박히게
속이 터지게	기가 차게	장난 아니게

며 문맥 상 변경의 파견 근무인 부방(赴防)을 가도록 명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 한문 원문의 '當' 역시 피동적인 의미를 가지며 같은 구절을 언해한 16세기 말 문헌인 《소학언해》에서는 (38가')와 같이 '부방 가게 當ᄒᆞ야'와 같이 언해되어 있다. 따라서 (38가)도 그와 동일한 의미로 간주한다면 여기에서 쓰인 '-게 ᄒᆞ-' 구성은 사동이 아닌 일종의 피동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38가)를 사동주가 생략된 사동 구문으로 볼 여지도 남아 있다. [(NP2=상급자가) [남진이 부방하게] 하여]와 같은 구조로 보아 별도의 'ᄒᆞ-'의 주어를 상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피동적 '-게 ᄒᆞ-' 구문이 16세기 이후 언간 자료에서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번역소학》이 당대의 자연스러운 언어로 언해된 경향이 높다는 점, 그리고 문맥상 상급자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38가)와 같은 예문을 이른 시기 문헌에 나타난 피동적 '-게 ᄒᆞ-' 구문의 예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때 '피동적'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게 ᄒᆞ-' 구성이 피동을 나타내거나 피동의 표지로 쓰였다는 뜻이 아니라, 주로 사동 구문으로 사용되는 동일한 구성의 '-게 ᄒᆞ-'와의 차이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V1의 주어에 해당하는 NP1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V1을 행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미적인 피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39)의 예는 16세기 언간 자료에 나타나는 예이다.

(39) 네 아바니믄 보원ᄉᆞ ᄃᆞ려 주글 반 살 반 ᄃᆞ니더니 ᄯᅩ 예 바티ᄂᆞᆫ ᄲᅳᆯ ᄎᆡᄉᆞ원 히여 ᄂᆡ월 초ᄉᆡᆼ의 <u>셔울로 가게 ᄒᆞ여시니</u> 이제ᄂᆞᆫ 동ᄂᆡ ᄲᅳᆯ ᄐᆞ라 간ᄂᆞ니라. <순천 57> (신천강씨(어머니)-> 순천김씨(딸))

(39)는 16세기의 언간 자료인 <순천김씨언간>에 나타난 '-게 ᄒᆞ-' 구문의 예이다.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게 ᄒᆞ-'에 '-어 잇-'이 결합한 '-게 ᄒᆞ엿-'의 예에 해당한다. 고광모(2002: 38)에서는 (39)의 '-게 ᄒᆞ-'를 사동으로 파악한 기존 연구(이병기 1997, 임동훈 2001)를 비판하며 이는 [예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 ᄒᆞ엿-'이며 이것이 선어말어미 '-겠-'으로 발달해 가는 것이고 하였다. '뿔 차사원으로 서울로 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니'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39)의 문장을 사동으로 볼 수 없는 근거는 'ᄎᆡᄉᆞ원 히여'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ᄎᆞ원’을 피사동주로 파악한 기존 연구와 달리 고광모(2002)에서는 이를 ‘차사원(差使員)의 직을 맡아’의 의미로 보고 ‘아바님’이 곧 ‘ᄎᆞ원’이므로 이를 사동 구문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본고는 ‘ᄎᆞ원 ᄒᆡ여’에 대한 고광모(2002)의 해석에 동의하지만 여전히 (39)의 문장이 사동 구문으로 쓰인 것으로 볼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본다. V1의 주어인 피사동주는 ‘ᄲᅳᆯ’로, V2인 ‘ᄒᆞ-’의 주어는 ‘아바님’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아바니미) [ᄲᅳᆯ 셔울로 가-]-게 ᄒᆞ-]와 같이 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어 잇-’ 구성의 ‘잇-’의 주어에 해당하는 것은 ‘ᄲᅳᆯ’이 되므로 피동적 ‘-어 잇-’ 구성(박진호 1994)의 예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39)의 문장의 ‘피동적’인 의미가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는 피동적 ‘-게 ᄒᆞ-’ 구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의성을 보인다.

이러한 ‘-게 ᄒᆞ-’ 구성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로 ‘-어 잇-’과 결합한 ‘-게 ᄒᆞ엿-’의 형태로 나타난다. 다음은 17세기에 나타난 예이다.

(40) 가. ᄒᆞᆯᄂᆞᆫ ᄃᆞᆯ희 ᄇᆞᆯ이 <u>쟝ᄎᆞᆫ</u> 시묘막의 <u>ᄆᆡᆺ게 ᄒᆞ엳거ᄂᆞᆯ</u> 약지 브ᄅᆞ지져 우니 ᄇᆞᆯ이 스스로 ᄇᆞ디니라 (一日野火<u>將及</u>於廬約之號慟火自滅) <동신 효 2: 84b>

나. ᄒᆞᆯᄂᆞᆫ 아ᄒᆡ 병 어더 쟝ᄎᆞᆺ 죽게 되거ᄂᆞᆯ 옥개 그 아비ᄃᆞ려 니로ᄃᆡ 내 아ᄒᆡ <u>쟝ᄎᆞᆺ 죽게 ᄒᆞ여시니</u> 내 죽기 결ᄒᆞᆫ디라 (一日兒得病將死玉介語其父曰 吾兒<u>將死</u>吾死決矣) <동신 열 6: 62b>

다. ᄒᆞᆫ 사ᄅᆞᆷ이 산듕의 피란ᄒᆞ여 주려 <u>죽게 ᄒᆞ엿더니</u> (一人避亂山中飢困<u>欲死</u>) <신구 補遺方14b>

라. ᄭᅮᆷ의 닐오ᄃᆡ 샹시 실과ᄂᆞᆫ 세 ᄒᆡ를 ᄎᆡ와 여ᄅᆞᄃᆡ 이 남근 별노 두 ᄒᆡ만의 <u>열게 ᄒᆞ여시니</u> <서궁 71b>

마. 아기시 녕ᄒᆞ오셔 ᄌᆞ로 뵈오시니 인간은 속이오나 신녕은 <u>못 속이옵게 ᄒᆞ엿ᄂᆞ이다</u> ᄒᆞ오니 <계축 하 20a>

바. 졔를 자내 친히 <u>ᄒᆞ게 ᄒᆞ소</u> <곽씨 53>

(40가)~(40마)는 모두 ‘-게 ᄒᆞ엿-’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將’, ‘欲’ 등의 언해로 쓰여 거의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문맥에 사용되었다. (40바)는 명령 화행으로 나타났다. (40나)에서 ‘將死’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

하는데 바로 앞에서는 '쟝ᄎᆞᆺ 죽게 되거늘'과 같이 '-게 되-'로 언해된 것이 뒤에서는 '쟝ᄎᆞᆺ 죽게 ᄒᆞ엿-'으로 언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0)에서 V1의 주어로 쓰인 NP1은 의지적인 행동을 하는 주체로 볼 수 없다. (40가)의 '불'이나 (40라)의 '나무' 등은 무정물이고, (40나)의 '아히', (40다)의 'ᄒᆞᆫ 사ᄅᆞᆷ' 등은 유정물이지만 능동적인 주체라기보다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고광모(2002: 35)에서는 이러한 사동의 의미를 보이지 않는 '-게 ᄒᆞ-' 구성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는 일치하며 따라서 '-게 ᄒᆞ-' 구성 전체가 하나의 서술어를 이루는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게 ᄒᆞ엿-'은 축어적으로 [작정], 즉 '-기로 정했다, -도록 정했다'를 의미한다고 하며 이때는 '-게'와 'ᄒᆞ-'가 각각 서술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문법화를 거쳐 'ᄒᆞ-'의 서술 기능이 상실되고 음가도 잃어 '-게엿-'이 되는데 이 단계에 이르면 결정의 주체가 배제되어 [예정]의 의미로 쓰인다고 하였다. 이것이 (39)에서 살펴본 '셔울로 가게 ᄒᆞ여시니'에 나타난 의미라고 하였다. 이러한 [예정]의 의미로부터 17세기 [예측]의 의미가 파생되고 18세기 이후 [추측]의 의미기능을 갖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추측 뿐 아니라 현재나 과거의 일에 대한 추측으로도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추측]에서 [가능]과 [의도]의 의미가 발달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후대의 일이다.

'-게' 결과 구문의 관점에서 볼 때 피동적 '-게 ᄒᆞ-' 구성은 [[NP1이 V1]-게 V2'와 같아 앞서 살펴본 비대격 동사 결과 구문의 구문 구조와 유사하다. 그러나 '-어 잇-'과 결합하여 [작정], [예정], [추측]과 같은 양태 의미로 발달하게 되는 것은 피동적 '-게 ᄒᆞ-' 구문의 독특한 특징이다.

4.3. '-게 굴-'

'굴-'은 그 의미가 매우 포괄적인 동사 중 하나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굴-'의 의미를 "그러하게 행동하거나 대하다"와 같이 풀이하고 그 필수적 성분으로 '-게' 혹은 '-이/히' 부사 따위가 선행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부사어와 술어의 관계 역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현대 한국어의 '굴-' 구문의 통사적 특성에 대

하여 논의한 이은섭(2005)에서 두 종류의 '-게 굴-' 구문 구조를 밝혔다.

(41) 남자애들이 못되게 군다.
[$_{VP}$ 남자애들이$_i$ [$_{V'}$[$_{CP(=ADVP)}$ [$_{AP}$ e$_i$ 못되-]-게] [$_V$ 굴-]]]

(42) 그가 나를 귀찮게 군다.
가. [$_{VP}$ 그가 [$_{V''}$ 나를$_i$ [$_{V'}$[$_{CP(=ADVP)}$ [$_{AP}$ e$_i$ 귀찮-]-게] [$_V$ 굴-]]]]
나. 1[$_{VP}$ 그가 [$_{V'}$ 나를$_i$ [$_{V'=CC}$ 귀찮게 굴-]]] (CC=Complex construction)

하나는 (41)과 같이 내포절과 모문절(주절) 주어가 동일하며 내포절 주어가 공범주로 실현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42)와 같이 내포절 주어는 모문절(주절)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조적으로는 내포절이 포함된 복합문이지만 개념적으로 '-게 굴-'이 복합서술어 구성을 이루어 선행하는 목적어 논항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때 대격은 '굴-'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게 굴-' 구성 전체가 일종의 복합서술어로써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게 굴-'이 통사적으로는 (42가)와 같은 복합문적인 구조 양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념적 차원에서는 (42나)와 같이 하나의 형태론적 어휘와 같은 부류로 인식하고자 한 것이다(이은섭 2005: 225-6).

본고는 현대 한국어의 '-게 굴-' 구문의 이원적 성격은 '-게 굴-' 구문이 겪은 통시적 변화의 산물이며 (42)의 구문 구조가 더 기원적인 '-게 굴-' 구문에 해당함을 밝히고자 한다.

'-게 굴-'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18세기 자료에서이다.

(43) 가. 作厭惡事 <u>쓸믜게 구다</u> <몽유-보 14a>
나. 擺布 <u>못 견듸게 구다</u> <몽유-보 30a>
다. 대ᄉᆞ로이 긔별ᄒᆞ시매 이쳐로 극진히 ᄒᆞ여 왇더니 아조 <u>흥졍 몯 되게 구ᄅᆞ시니</u> ᄆᆞᆫ치 閉門請入이란 말과 ᄀᆞᆮᄒᆞᆫ 일이ᄋᆞᆸ도쇠 <인어 6: 2a>

(43)에서 보듯 18세기에 나타난 'V1-게 굴-'의 V1은 모두 동사이다. (43가)의 '쓸믜게 구다'는 '作厭惡事'에 대한 해석인데 원문은 "싫어하고 미워할 일을 하다, 혐오

스러운 일을 하다" 정도로 풀이된다. '쓸믜-'는 "싫어하고 미워하다"의 뜻의 동사로 (43가)는 [(NP2가) [(NP1이) 쓸믜게] 굴-]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이때 '쓸믜게'는 '굴다'의 동작의 결과 NP1이 가지게 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3나)의 '못 견ᄃᆡ게 구다' 역시 같은 해석을 보인다. [(NP2가) [(NP1이) 못 견ᄃᆡ게] 굴-]와 같이 분석된다. 대당 원문인 '擺布'는 중국어에서 "지배하다, 좌지우지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지배하고 좌지우지한 결과 사람이 못 견디게 되므로 이때의 '못 견ᄃᆡ게'는 [결과]로 볼 수 있다. (43다)의 '흥정 몯 되게 구ᄅᆞ시니'에서 '되-'의 주어는 '흥정'으로, '굴다'의 행위 결과 '흥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따라서 이 또한 [결과]의 예문에 해당한다.

이처럼 '굴-' 구문이 'VP-게' 부사형을 성분으로 취하기 시작하는 시기의 예문이 모두 '-게'가 동사와 결합하며 구문 속에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43가)와 (43나)에서 원문의 특성상 구체적인 목적어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때의 '굴-'은 문맥상 타동사적인 성격을 띤다. '-게 굴-' 구문에서 '굴-'의 어휘적 의미는 희박하지만 "어떠한 행동을 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나아가 "어떠한 행동을 누군가에게 하다"와 같이 행동의 결과가 미치는 대상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V1-게'는 그러한 행동의 결과 상태에 가깝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V1-게 V2' 결과 구문이 가지는 [결과]의 성격이 '-게 굴-' 구문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18세기 이전에도 '굴-' 구문은 존재하였다. 중세 한국어 시기 '굴-'은 주로 '-이/히' 부사형이나 '엇디, 이러' 등의 부사를 취하였다.

(44) 가. 너도 ᄆᆞᅀᆞᆷ 뒷ᄂᆞᆫ 거시 엇뎨 이리ᄃᆞ록 甚히 구는다 ᄒᆞ야ᄂᆞᆯ (爾亦含靈之物 何若是之甚乎) <삼강 열 34b>

나. 제 거동 보니 그 각시 하 거동저이 굴고 죵 비ᄉᆞ 두ᄃᆞ리고 내의 ᄠᅳ디 맛디 아니코 <순천 172>

다. 하 날ᄃᆞ려 역졍되이 구니 아ᄆᆞ리 ᄒᆞᆯ 줄 모ᄅᆞ고 <순천 91>

라. 학개ᄂᆞᆫ 네계 ᄉᆞ랑을 미쳐시니 인ᄉᆡᆼ 일ᄒᆞᆫ 것ᄀᆞ티 ᄒᆞ고 하 보디 슬히 구니 ᄀᆞᆺ ᄃᆞᆨᄒᆞᆫ ᄆᆞᄋᆞᄆᆡ 더옥 ᄆᆞᄋᆞᄆᆡ 애ᄠᆞᆯ고 셜오니 <순천 186>

(45) 가. 겨틧 比丘ᄃᆞᆯ히 듣고 너교ᄃᆡ 이 跋提 지ᄇᆡ 이싫 젯 五欲ᄋᆞᆯ 싱각고 그렁 구ᄂᆞ니 이틄날 世尊ㅅ긔 ᄉᆞᆯ바ᄂᆞᆯ <월석 7: 5a> (比丘白佛。)

나. 엇디 구러 간고 분별ᄒᆞ다니 아히ᄃᆞᆯᄒᆞ고 ᄠᅳᆮ드ᄅᆞ니 업시 오라 드러가다 ᄒᆞ니 깃거ᄒᆞ니 <양호당언간 3>

다. 일도 ᄂᆞᆷ두곤 ᄇᆡ히 심〃ᄒᆞ여 ᄒᆞᄂᆞᆫ 내니 이러 구러도 병이 들가 ᄒᆞ뇌 <순천 72:3>

(44)는 '-이/히' 부사어가 사용된 것이고 (45)는 부사를 취하는 경우이다. (44)의 '-이 굴-' 구문이 보이는 구문 구조는 현대 한국어의 '-게 굴-' 구문이 보이는 것과 같은 다층적인 양상을 보인다. (44가)의 '甚히'는 주어의 행동에 대한 [방식]의 묘사로 볼 수 있다. (44나)의 경우 '굴-'의 주어인 '그 각시'의 행동이 '거동저이'라고 묘사되고 있다. '거동젓-'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우나 "거동이 있다, 행동이 크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이렇게 본다면 '거동젓-'의 주어는 '그 각시'이며, '거동저이'는 주어의 행동에 대한 묘사, 즉 [방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44다)의 경우 '굴-'의 주어는 '첩(시앗)'이고 그의 모종의 행동의 결과 '역정되이'라는 결과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해석된다. '역졍되-'는 "몹시 언짢아져 성이 나다" 정도로 해석되며 그 주체는 '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날ᄃᆞ려'와 같이 여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NP2이) NP1ᄃᆞ려 [역졍되이] 굴-] 정도의 구문을 보이는 것이다. 이때의 '역졍되이'는 '굴-'의 [결과]에 해당한다. (44라)의 경우는 '슬ᄒᆞ-'라는 심리형용사를 취하고 있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나는 학개가 보기 싫다'와 같이 이중주어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굴-'의 주어이자 NP2인 '학개'가 '슬ᄒᆞ-'의 주어로 쓰이면 '보디 슬히'는 주어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 "학개가 보기 싫은 모양으로 행동하다" 정도로 해석되며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슬ᄒᆞ-'의 주어를 경험주인 '나'로 해석하면, 학개의 행동으로 인하여 NP1인 '내'가 학개가 보기 싫게 되었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중세 한국어 시기의 'V1-이 굴-' 구문에서 'V1-이'는 [방식] 혹은 [결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V1-이 굴-'의 기능 부담량이 컸다고

할 수 있다. ‘V1-이 굴-’이 [방식]으로 해석될 때에는 ‘굴-’의 주어와 V1의 주어가 일치하고 [결과]로 해석될 때에는 ‘굴-’의 주어와 V1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았다. [결과]로 해석되는 경우는 전형적인 결과 구문과 유사한 면모를 보였다.

근대 한국어 시기의 ‘V1-게 굴-’이 새롭게 등장하여 용법을 획득한 것이 ‘V1-이 굴-’이 담당하던 기능 중 [결과]와 관련된 부분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V1-게 V2’ 결과 구문이 가지는 구문적 유사성에 유추되어 용법의 확장을 겪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1P-게 굴-’이 주로 동사와 결합하여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19세기 자료와 연대 미상의 고소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6) 가. 토이긔에셔 이 셩교ᄒᆞᄂᆞᆫ 빅셩들을 더 못 견ᄃᆡ게 굴지라 <독립신문>
나. 내 평싱 잔호의 업슨 ᄆᆞᄋᆞᆷ이어ᄂᆞᆯ 형이 싱각 밧 쇽이믈 이상이 ᄒᆞᄆᆡ 잠간 쇽앗던 거시어니와 엇디 그러ᄐᆞᆺ 밋치게 구러시리오 <명주보월빙 18: 731>
다. 반국 젹ᄌᆞᄂᆞᆫ 엇지 밋치게 구ᄂᆞ뇨 <대명영렬전 1:7b~9a>

(46가)에서 ‘이 셩교ᄒᆞᄂᆞᆫ 빅셩들’은 ‘못 견ᄃᆡ-’의 주어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는 상위문의 목적어로 나타나고 있다. 즉 [NP2가 NP1을 [(NP1이) 못 견ᄃᆡ게] 굴-]과 같이 분석된다. 행위의 대상인 NP1이 목적어로 나타난 점은 결과 구문의 전형적인 통사 구조와 동일하다. (46나)에서 ‘밋치-’의 주어는 ‘형’이고 ‘굴-’의 주어는 ‘나’이므로 이 역시 [NP2가 (NP1을) [(NP1이) 밋치게] 굴-]과 같은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밋치게’는 ‘나’의 행동의 결과 ‘형’이 가지게 되는 [결과] 상태이다. (46)과 같은 ‘-게 굴-’은 결과 구문의 구문 구조를 통해 확장된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 ‘V1-게 굴-’은 형용사와도 결합하게 되었는데, 이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7) 가. 리싱 왈 안즈라 엇지 그리 불안케 구ᄂᆞ뇨 <삼선기 (活字本古典小說全集 第三卷303)>
나. 츙국이 나아가 ᄃᆡ즐 왈 네 엇던 도젹이완ᄃᆡ 감이 즁원을 범ᄒᆞ여 **빅셩을** 뇨

란케 구ᄂᆞᆫᄃᆞ <장백젼 19b>

다. 각ᄉᆡᆨ 학졍으로 **ᄇᆡᆨ셩을** 괴롭게 굴다가 흉년 ᄒᆞᆫ번ᄆᆞᆫ 져셔 민요가 일어날 디경이면 <독립신문>

(48) 가. 먼 조샹 무긔 젹의 와 위엄으로 모딜게 굴매 사ᄅᆞᆷ이 친히 못ᄒᆞ야 드ᄃᆡ여 ᄇᆡᆨ틱 시의게 잡핀 배 되니 (遠祖無忌, 以威猛暴耗, 人不可親, 遂為白澤氏所執。) <태평 35b>

나. 너는 장의 가셔 젼병장ᄉᆞ 슐장ᄉᆞ나 ᄒᆞ고 나는 질쳥의 가셔 아젼의 셔역이ᄂᆞ ᄒᆞ여 고지식ᄒᆞ게 굴면 두 식구는 족ᄒᆞᆯ지니 <삼설기 3: 8b>

다. 벗을 ᄉᆞ괴며 약게 구러 친구의게 시비ᄅᆞᆯ 듯지 안코 <삼설기 3: 1a>

라. 이쳐로 어리게 구다가 초휘 일언을 다시 ᄒᆞᄂᆞᆫ 일이 업ᄉᆞᄆᆡ 어리고 우어 뵈미 극ᄒᆞᆫ디라 <명주보월빙 9: 583>

(47)은 형용사와 결합한 '-게 굴-' 구문이 앞서 살펴본 동사와 결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타동 구문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이다. (47가)의 '불안ᄒᆞ-'의 주어는 '나(리싱)'에 해당하며 '굴-'의 주어는 청자인 '너'에 해당한다. 동사와 결합한 '-게 굴-'과 마찬가지로 [(NP2가) (NP1을) [(NP1이) 불안케] 굴-]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V-게 V' 구문의 성격으로 타동 구문적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다. (47나)에서는 NP1에 해당하는 'ᄇᆡᆨ셩을'이 목적어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ᄇᆡᆨ셩'은 '뇨란ᄒᆞ-'의 주어이자 요란하게 함을 당하는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47)와 같은 '형용사 + -게 굴-' 구성에서 'V-게'는 [결과]에 해당하며, 이때 목적격을 부여하는 것은 '-게 굴-' 이라는 구문 구조이다.

이와 달리 (48)의 '형용사+ -게 굴-' 구문에서의 '형용사-게'는 '굴-'의 주어의 행동 양태를 묘사한다. (48가)에서 '모딜게'는 '굴-'의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구의 행동을 묘사하는 형용사이다. 즉 [(NP_i가) [e_i 모딜게] 굴-]과 같은 구조를 가지는 것이다. (48나)의 '고지식하게' (48다)의 '약게', (48라)의 '어리게' 역시 '굴-'의 주어의 행동 양태를 묘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48)에 나타난 'V-게'는 [결과]로 볼 수 없으며 [방식]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전 시기까지 [결과]만 나타낼 수 있었던 'V-게 굴-' 구문이 이 시기에 이르러 [방식]의 영역까지 그 기능을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V1-이 굴-' 구문이 본래 담당하던 '굴-' 구문의 두 가지 용법, 즉 [방식]과 [결과]의 용법은 18세기 이후 '-게 굴-' 구문이 등장하여 [결과] 용법을 가져감에 따라 기능분담량이 줄어들었다. 나아가 '-이' 의 부사어 형성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V1-게 굴-' 구문이 [방식]의 용법까지 확장됨에 따라 현대 한국어의 '-게 굴-'이 보이는 다층적인 구문 구조 양상이 완성되었다.[30] 본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굴-' 구문이 '-게 굴-' 구문으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게' 구문의 힘에 의해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30) '굴-' 구문의 유형의 통시적 변화를 연구한 이은정(2021: 17)에 따르면 시대별 역사 자료에 나타난 '굴-'의 용례는 200여 개이며 그 중 '-이 굴-' 구문이 153예에 해당하여 중세 한국어 시기와 근대 한국어 시기 '굴-' 구문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이에 비하여 '-게 굴-' 구문은 11예에 불과하였다. 이는 현대 한국어의 '-게 굴-' 구문이 '-이 굴-' 구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양상과 대비된다. 이은섭(2005: 208-9)에 따르면 21세기 세종계획 형태소 분석 말뭉치 800만 어절의 분석 결과, '굴-' 구문의 용례 99예 중 약 60%에 해당하는 59예가 '-게 굴-' 구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굴-'은 15예에 불과하다.

5. 'V_1P-게 V_2' 판단 구문

제5장에서는 'V1P-게 V2' 판단 구문에 대해 살펴본다. V2에 사유 동사가 사용되는 경우 V1P는 그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사유라는 사건을 원인 사건으로 보고 그로 인해 얻어진 생각의 내용을 결과 상태라고 본다면 이 역시 사건 구조적으로도 '-게' 결과 구문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게' 판단 구문으로 명명하고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5.1에서는 V2가 사유 동사인 '너기-'[31] '싱각ᄒᆞ-'[32]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 5.2에서는 다양한 V2가 판단 구문의 양상을 보이는 예를 판단 구문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5.1. V_2가 사유 동사인 경우

5.1.1. '-게 너기-'

15세기의 '너기-'가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구문 유형은 '목적어 # 부사어 # 너기-'이다. 즉 구체적인 사유의 대상이 되는 명사가 목적어로 나타나며, 그에 대해 마음속에서 행해진 사유의 내용이 부사어로 표현된다. 이때 부사어는 '-이'나 '-오'에 의해 파생된 파생부사, "정도"의 '만'이 결합한 것, 'ᄒᆞᆫ가지로' 등의 부사어가 해당된다(이현희 1994: 299-302). 또한 단 1예에 불과하지만 '-게' 부사형의 예도 존재한다.

(1) 가. 衆生이 <u>져근 惡ᄋᆞᆯ</u> <u>므더니 너겨</u> <월석 21: 78b> (是故衆生莫輕小惡)

31) 15세기 어형인 '너기-'는 '녀기-'를 거쳐 '여기-'로 재구조화되었다. '네기-', '녁이-', 녁히-' 등의 표기도 나타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이 동사를 가리킬 때 '너기-'를 대표형으로 들기로 한다.

32) 중세 한국어에서 '생각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ᄉᆞ랑ᄒᆞ-'의 경우는 '-게' 구문의 구문 구조를 보이지 않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나. 싀어미 닐오ᄃᆡ 너를 외오 아니 너겨 올타 ᄒᆞ면 본ᄃᆡ 令을 조초미 올코 (姑云이 不爾而是면 固宜從令이오) <내훈 2: 13a>

다. 世間ㅅ 드틀을 므슴만 너기시리 <월곡 기 125>

라. 兄은 富貴를 가져 ᄠᅳᆫ 구룸과 ᄒᆞᆫ가지로 너기거ᄂᆞᆯ (兄將富貴等浮雲) <두시 8: 27> (이현희 1994: 301 인용)

마. 師想은 道行을 크게 너기샤 ᄀᆞᄌᆞᆨᄒᆞ샤ᄆᆞᆯ ᄉᆞ랑ᄒᆞ샤미라 (師想은 則景其道行ᄒᆞ샤 而思齊也ㅣ시니라) <법화 5: 45b>

(1)은 15세기 '너기-' 구문의 일부이다. (1가)를 살펴보면, '衆生'이 사유의 주체이며 '져근 惡'은 사유의 대상이고, '져근 惡이 므던ᄒᆞ-'가 사유의 내용에 해당한다. 이때 사유의 내용이 현실세계에서 참인지 거짓인지는 논할 수 없고 오직 사유의 주체의 심상에서 일어난 사유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유의 대상이 목적어로 실현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의미상 사유의 내용에 해당하는 명제의 주어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동일명사구 생략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즉 (1가)의 경우 '-이'를 부사형 어미로 보고 [NP2이 NP1을 [(NP1이) V1]-이 너기-]와 같은 구조를 상정한 후, 하위문의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당연하게도 'V1-이'는 '너기-' 구문과 상관없이 서술어를 꾸며주는 파생부사로 쓰일 수도 있다. '外道ㅣ 거츠리 너교ᄃᆡ'<남명 상: 77a>에서 '거츠리'는 사유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망령되게, 허황되게"의 의미로 쓰여 동사 '너기-'를 수식하는 수식부사가 된다. 따라서 이때의 'V-이'는 [결과]와 관련이 없는 [방식]의 '-이' 부사형이다. 달리 말하면, 15세기의 'V-이'는 [방식]으로도 [결과]로도 쓰일 수 있었다.

(1마)는 15세기의 '너기-' 구문 중 유일하게 '-게' 부사형이 쓰인 것이다. '크게 너기다'는 한문 원문의 '景'을 풀이한 것으로 타동사로 쓰여 "우러러보다, 숭배하다"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道行'은 사유의 대상이자 '크-'의 주어에 해당하며 문장에서 목적어로 나타나고 있다. 즉 (1가)에서 살펴본 '-이 너기-'의 구조와 동일하게 [(NP2이) NP1을 [(NP1이) 크-]-게 너기-]의 구조를 보인다. 이때 '크-'는 객관 형용사에 속하며, 사유의 결과 사유의 대상이 크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15세기에 (1마)와 같이 사유의 내용에 대해 '-게' 부사형이 쓰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렇지만 '-게' 결과 구문이 보이는 것과 동일한 양상의 구문 유형이 '-게 너기-' 구문에서도 쓰인다는 것은 둘 사이의 [결과]라는 유사성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심지영(2016: 110-112)에서는 현대 한국어 '여기-'가 보이는 'NP를 A-게 여기-', 'NP1을 NP2로 여기-', '여겨 V'(여겨 듣다, 여겨 보다) 등의 형식은 모두 결과표시 형식이며, 이것은 이 동사의 어휘적 의미와 결과구문이 가지는 결과 도출의 기능이 완전히 부합하는 경우라고 하였다. 이때의 결과란 인식 작용의 끝에 인식 대상에 대해 가지게 된 인식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선생님을 훌륭하게 여겼다'에서 '선생님'은 현실의 물리세계에서 가시적인 영향을 입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인식 속에서 '훌륭하다'라고 개념화되는 변화를 겪는다. 인식의 변화의 '결과'를 결과 구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였다.

앞서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5세기 'V1P-게 V2' 구문은 [결과]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자리매김해 가지만 (1마)와 같이 판단 구문이 '-게' 구문으로 나타나는 일은 드물었다. 그만큼 판단 구문은 결과 구문과 구문 구조를 공유하기는 하지만 대상이 원인 사건에 의해 물리적인 영향을 입는다든지, 결과 사건과 원인 사건의 사건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쉽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게' 구문이 판단 구문으로 쓰이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양상에도 불구하고 (1마)의 '크게 너기다'나 후술할 '잇게 보다'의 경우는 왜 '-게' 부사형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형용사 '크-'의 경우, '-이' 파생부사인 '키' 뿐 아니라 부사형 '크게'가 15세기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한다. 'V1-게 V2'의 구문 구조의 요소로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형용사와 결합하여 부사형을 만드는 '-게'의 쓰임은 매우 드물었다. 모종의 이유로 이 시기 부사형 '크게'가 널리 쓰이게 되면서 '너기-' 구문에서도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살펴볼 '잇게 보다'의 '잇-'은 '-이' 파생부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잇-'의 결과 부사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게'가 결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15세기의 사유 구문의 경우 'NP를 # 부사어 # 너기-'의 구문에서 사유의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어 부분을 'V-이'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예외적인 경

우 'V-게' 부사형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16세기에도 '-게 너기-' 구문은 극소수 보인다.

(2) 가. 음악을 들옴애 즐기디 아니며 맛난 거슬 먹음애 <u>둘게 너기디</u> 아니ᄒᆞᄂᆞ니 (聞樂不樂ᄒᆞ며 食旨不<u>甘</u>ᄒᆞᄂᆞ니) <효경 25a>

가'. 네 安커든 ᄒᆞ라 君子의 喪애 居홈애 旨를 食ᄒᆞ야도 <u>甘티</u> 아니ᄒᆞ며 (女ㅣ 安則爲之ᄒᆞ라 夫君子之居喪애 食旨不<u>甘</u>ᄒᆞ며) <논어 4: 42a>

나. 셔방니믄 학개 방이나 설고 <u>잇게 너기다니</u> 그러면 엇디리 <순천 96(신천강씨(어머니)-> 순천김씨(딸)>

(2가)는 상(喪)을 치르는 몸가짐에 관한 부분인데 '食旨不甘'의 '甘'은 동사로 '둘게 너기-'와 같이 언해되었다.[33] 문장에 목적어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NP2이) (NP1=맛난 거슬) [(NP1이) 둘-]-게 너기-]와 같은 구조에서 NP1이 생략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구절이 유사한 문맥에 쓰인 《논어언해》에서는 (2가')와 같이 '甘ᄒᆞ-'로 언해되었다. 사실 '둘-'는 감각 형용사로써 그 감각에 해당하는 내용은 사유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감각에 의해 즉각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수용되는 감각에 '너기-' 구문을 사용하는 것은 유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의 의미가 확장되어 "마땅하여 기껍다"와 같은 심리 형용사로 쓰인다면 이는 사유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세 한국어 시기 이러한 의미는 '나ᄂᆞᆫ 늘거 가난과 病을 <u>둘히 너기노니</u> (吾老<u>甘</u>貧病)'<두시 10: 31b>와 같이

---

33) 이러한 구문의 원문에서 형용사가 타동사처럼 사용되는 현상은 의동(意動)에 해당한다. 王力(1994)에서는 중국어의 품사 활용에 대해 치동(致動)과 의동(意動)을 나누어 설명하였다. '치동'은 대상을 어떤 성질, 행위를 갖거나 혹은 다른 사물이 되게 하는 것으로 형용사를 목적어 앞에 두어 그러한 성질을 갖게끔 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의동'은 '~라고 여기다'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다음은 '의동'의 예이다.

가. 輕政治不對, 輕業務也不對. (김태우 2013: 85 재인용)
light politics not right light work too not right.
정치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

한국어의 형용사에는 이러한 용법이 없으므로 한문의 형용사의 의동은 '부사어 너기-' 구문으로 언해되었다.

‘ᄃᆞᆯ히 너기-’가 담당하고 있다. 동일한 의미의 표현이 ‘ᄃᆞᆯ게 너기-’로 나타나는 것은 18세기 이후의 일이다. (2가)의 ‘ᄃᆞᆯ게’는 “달다”의 감각을 나타내 것인지, “기껍다”의 심리를 나타낸 것인지 중의적이다. 다만 이 시기까지는 심리 형용사에 ‘-게 너기-’가 사용되는 예가 없으므로 감각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 ‘ᄃᆞᆯ-’이 감각 형용사로 쓰였음을 강조하기 위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ᄃᆞᆯ히 너기-’가 아닌 ‘ᄃᆞᆯ게 너기-’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해 본다.

(2나)는 ‘-게’가 동사와 결합하고 있는데 주체의 바람, 욕망의 내용이 사유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게 너기-’의 양상과 다르다. “서방님은 학개의 방이나 정리하고 (그곳에) (서방님이) 있기를/있었으면/있도록 생각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화자의 욕망 중에서도 타인이 어떻게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사유의 내용에 해당하는데 그 사유의 내용이 ‘-게 너기-’로 표현된 것이다. 중세 한국어에서 자기 자신이 어찌 하기를 바라는 소망은 ‘-고져’로 타인이 어찌 하였으면 하는 바람은 ‘-과뎌’ 혹은 ‘-과ᄃᆡ여’와 통합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이현희 1988, 1994). 따라서 이 문맥에서 ‘-과뎌’ 혹은 ‘-과ᄃᆡ여’가 사용될 법한 문맥에 ‘-게’가 통합된 것은 특이하다.[34)]

‘-게 너기-’ 구문은 17세기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3) 가. 모다 혜기ᄂᆞᆫ 다 뎍게 너기려니와 ᄲᅳᆯ ᄃᆡ 만ᄒᆞ니 비록 뎍게 너겨도 내 뎌근 대로 밧ᄌᆞᆸ게 호ᄃᆡ <곽씨 122>

나. 判事네 엇더케 너기시ᄂᆞᆫ고 (はんすしゆ い加加 おもわしらる加) <첩신-초

34) 15세기 한국어에서 사유 내용이 욕망인 경우 ‘-고져 V’, ‘-과뎌 V’와 같은 사유 구문이 사용되었다. 다만 ‘너기-’의 경우 ‘-고져 너기-’는 문증되지만 ‘-과뎌 너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자료상의 공백으로 보인다.

(1) 가. 여듧 ᄀᆞᅀᆞᆷ 刺史ㅣ ᄒᆞᆫ 번 사호고져 ᄉᆞ랑ᄒᆞᄂᆞ니 (八州刺史思一戰) <두시 8: 23a>
나. 사ᄅᆞᄆᆞᆫ 戈鋋을 그치시과뎌 ᄉᆞ랑ᄒᆞ놋다 (人憶止戈鋋) <두시 20: 4b>
다. ᄒᆞᆫ 디위 노ᄑᆞᆫ 하ᄂᆞᆯ해 묻고져 너기노라 (一擬問高天) <두시 7: 32a>

18세기 자료인 개수 첩해신어에 ‘-과댜 너기-’가 쓰인 예가 있다.

(2) 가. 太守 니ᄅᆞ시ᄂᆞᆫ 바ᄂᆞᆫ ᄇᆞ디 밧과댜 너기시거니와 <첩신-개 8:11a>
가‘. 太守 니르시ᄂᆞᆫ 바ᄂᆞᆫ ᄇᆞ디 밧과댜 니르시거니와 (たいしゅのおしらるところわ、ぜひとれかなとおしられうが、) <첩신-초 8:7b>

다만 (2가‘)에서 보듯 17세기 간행된 《첩해신어》에는 동사가 ‘니르-’로 나타나고 있다. 《첩해신어》의 일본어 원문도 동사가 ‘おしらる’로 나타나고 있어, ‘니르-’가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4: 18b>

다. 지아비 입을 졔 입도곤 더 즁히 넉여 음식을 져 먹을 쥴 모라고 빅사의 졔 몸더곤 더ᄒᆞ게 넉이되 <계녀>

라. 싀부모 ᄯᅳᆯ만치 넉이지 못ᄒᆞ면 그런 일만 셥게 넉여 <계녀>

마. 엇지 감사치 아니케 넉이리오 <계녀>

바. 게 가 편이나 ᄒᆞ여 밧즙게 너겨 ᄲᅥᆨ를 지허셔 보내려 ᄒᆞ엿다가 몯 보내니 <곽씨 100>

(3)은 17세기에 나타난 '-게 너기-'의 예이다. 중세 한국어 시기에 비하면 늘어나긴 하였지만 <계녀서>, <현풍곽씨언간>, 《첩해신어》 원간본이라는 매우 한정적인 문헌에서만 나타나며 그 외에서는 대부분 '-이 너기-'가 여전히 우세하였다. 이들 '-게 너기-' 구문에서 비록 문장성분이 모두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를 문맥에 의해 복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가)는 [(NP2이) (NP1(=면화)을) [(NP1이) 뎍-]-게 너기-]와 같은 구조에서 문장성분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7세기에 '-게 너기-'와 결합하는 형용사는 (3가)의 '뎍-', (3나)의 '엇더ᄒᆞ-', (3다)의 '더ᄒᆞ-'와 같은 객관 형용사뿐 아니라 (3라)의 '셥-', (3마)의 '감사치 아니ᄒᆞ-'와 같은 심리 형용사로도 확대되었다. 이때 사유의 내용은 현실세계의 진리치와 관계없이 사유의 주체가 그렇게 판단한 것에 해당한다.

(3바)는 '-게 너기-'가 동사와 결합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2나)와 같이 사유의 내용이 주체의 욕망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소망에 해당하므로 '-고져 너기-'가 사용될 만한 문맥이다. 이 문장을 백두현(2020: 421)에서는 "떡이나 만들어 드릴까 생각하여"와 같이 현대어역한 바 있다. "(내가) [(내가) (어머니에게) (편을) 받잡게] 여겨"와 같이 생략된 문장 성분을 복원해 볼 수 있다.

18세기의 '-게 너기-' 구문의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 가. 이ᄂᆞᆫ 졍히 공경의 거ᄒᆞ믈 크게 너겨 고리를 궁구ᄒᆞ믈 귀히 너기미라 (此正大居敬而貴窮理者也) <警問續 47b>

나. 舅姑ㅣ 어딜게 너기고 夫主ㅣ 아ᄅᆞᆷ다이 너겨 (舅姑ㅣ 矜善 而夫主ㅣ 嘉美ᄒᆞ

야) <여사 1: 23a>

다. ᄒᆞ믈며 외에셔 어진 이 엇디 쳔 니를 멀게 너기리잇고 (況賢於隗者ㅣ 豈遠千里哉리잇고) <사략 2: 91b>

라. 그 ᄒᆞ나흔 스스로 편안홈을 구ᄒᆞ며 ᄆᆞᆰ고 조홈을 ᄃᆞᆯ게 녀기디 아니ᄒᆞ야 (其一은 自求安逸ᄒᆞ며 靡甘澹泊ᄒᆞ야) <어내 1: 26a>

18세기의 '-게 너기-' 구문은 결합하는 용언의 수와 빈도가 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이 너기-' 구문이 우세하였다. 다만 (4가)의 '크-', (7라)의 'ᄃᆞᆯ-'의 경우는 이 시기부터 '키 너기-', 'ᄃᆞᆯ히 너기-' 등의 구문이 나타나지 않고 모두 '-게 너기-'의 형식만을 취한다. 이에 비하여 다른 형용사들의 경우는 '아비 그 말을 어딜이 너겨 아니 내티니'<오륜 효 2b>, '叟ㅣ 千里를 멀리 아니 녀겨 오시니 (叟ㅣ 不遠千里而來ᄒᆞ시니)'<맹자율곡 1: 1a>와 같이 '-이 너기-' 구문도 여전히 사용되었다. 또한 (4가)와 (4나)에서 보듯 같은 문장 안에서 대구가 되는 표현에 '-이 너기-'가 사용되는 것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도 '-게 너기-'는 주로 객관 형용사와 결합하였다. (4라)의 'ᄃᆞᆯ-'은 심리 형용사에 속한다.

이러한 '-게 너기-'의 쓰임은 19세기에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5) 가. 왕이 그 힝실얼 놉게 녀겨서 고힝이라 별호ᄒᆞ니라 <여소학 499>

가'. 냥왕이 듯고 그 의를 크게 넉이며 그 힝실을 놉히 너겨 복호ᄒᆞ고 일홈ᄒᆞ여 ᄀᆞᆯ오ᄃᆡ 고힝이라 ᄒᆞ다 (王大其義 高其行 乃復其身 尊其號曰高行)<오륜 3: 9b>

나. 아비를 놉히고 어미를 낫게 넉이며 <독립>

다. 참셔관 쥬ᄉᆞ들의 ᄆᆞᄋᆞᆷ에 민씨의 ᄒᆞᄂᆞᆫ 일을 크게 불가케 넉여 다 허여져 나가고 <독립>

라. 더옥 아편연 파ᄂᆞᆫ 거슬 그ᄅᆞ게 너겨시니 (尤以販烟爲非) <이언 3: 26b>

마. 다만 그 말과 의리를 셰샹에셔 올치 안케 넉일 디경이면 ᄒᆞᆯ 슈 업거니와 올케만 넉일 것 ᄀᆞᆺ흐면 그런 계졔를 타셔 쥭지 못ᄒᆞᄂᆞᆫ 거시 어리셕은 사ᄅᆞᆷ이라 <매일>

바. 지금 청국 물론이 일본 류학싱보다 셔양과 미국 류학싱을 더 됴케 넉이ᄂᆞᆫ

ᄆᆞᅀᆞᆷ이라더라 <경향 음력 광무 십일년 뎡미 이월 십륙일>

사. 이 짐만 버슬 디경이면 이 길에셔 무슴 고ᄉᆡᆼ을 당ᄒᆞ던지 샹관 업게 넉이겟노라 <텬로 1: 13b>

아. 방관ᄒᆞᄂᆞᆫ 수쳔명 사ᄅᆞᆷ들이 즈미잇게 넉이나 싸호ᄂᆞᆫ 쟈들은 머리가 ᄭᅴ여지며 다리가 부러지며 <협성회회보>

(6) 가. 젼국에셔 우리를 곰ᄇᆞᆸ게 넉이ᄂᆞᆫ 사ᄅᆞᆷ이 ᄒᆞᆫ 둘이 아닌즉 <독립>

나. 자귀의 危殆ᄒᆞᆷ을 무섭게 너겨 <심소 2: 29b>

다. 그ᄅᆡ도 그거슬 즐겁게 넉여 남이 업수히 넉여야 분히 넉이ᄂᆞᆫ ᄉᆡᆼ각도 업고 <독립>

라. 죠곰치도 쳔대 밧고 슈치 밧ᄂᆞᆫ 것을 붓그럽게 넉이ᄂᆞᆫ 셩졍이 업셔 <독립>

마. 젼에는 원의 말이 라면 무셔워ᄒᆞ던 ᄇᆡᆨ셩들이 지금은 관장의 말을 우습게 넉여 령갑을 셰울슈가 잇셔야 원노릇슬 ᄒᆡ먹지 <매일3>

(5)는 ‘-게 너기-’가 객관 형용사와 결합한 예이고 (6)은 심리 형용사와 결합한 예이다. 이처럼 19세기에 이르러 매우 다양한 형용사와 결합하여 대상에 대한 사유의 내용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객관 형용사와 결합한 ‘-게 너기-’ 구문은 앞선 시기와 동일하게 [NP2가 NP1을 [(NP1이) V]-게 너기-]와 같은 구문 구조를 가진다. (5사)의 경우는 ‘그 고생을’ 정도의 목적어가 생략된 것으로 보이며 (5아)는 ‘그 싸움을’ 정도의 목적어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6)과 같이 심리 형용사와 결합한 ‘-게 너기-’도 [NP2가 NP1을 [(NP1이) V]-게 너기-]와 같은 구문 구조를 보이는데, ‘ᄃᆞᆯ-’ 이외의 심리 형용사가 ‘-게 너기-’ 구문으로 나타나는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다. 여전히 이 시기에도 심리 형용사는 ‘-이 너기-’ 구문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세하였다. 일반적으로 심리 형용사는 [NP2(경험주)가/에게/는 NP1이 어떠하다]와 같은 논항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NP2의 주어적 성격을 강조하는 일련의 논의가 있다(이홍식 1996, 최형강 2004, 유현경 1996, 1998, 김정남 2005 등). 경험주인 NP2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6)과 같은 심리 형용사의 ‘-게 너기-’ 구문은 [NP2가 NP1을 [(NP2는) (NP1이) V]-게 너기-]과 같은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가)를 예로 들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사람들이 우

리가) 고맙-]-게 여기다]와 같은 구조가 되어 '사람들이 고마워하다'[35]와 같이 '고마워하다'의 심리 상태를 가지는 NP2에 대한 기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V1인 '고맙-'은 목적어인 NP1의 상태가 아닌, 주어인 NP2의 심리 상태와 관련이 있다. 'V-게' 부사형이 목적어가 아닌 주어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처럼 19세기에 들어 '-게 너기-'의 쓰임이 확대되는 것은 '-게' 부사형이 [결과]의 부사형으로 완성되어 비전형적인 '결과'에 해당하는 판단 구문으로까지 그 쓰임을 넓혔기 때문이며, 동시에 '-이' 부사형이 본래 담당하던 [결과]와 [방식]의 의미 중 [방식]으로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5.1.2. '-게 싱각ᄒᆞ-'

다음은 또 다른 사유 동사의 하나인 '싱각하-' 구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살펴본 '너기-'는 대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사유 내용을 그 성분으로 취하는 것과 달리, '싱각ᄒᆞ-'는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동사이다. 따라서 사유의 대상인 명사구나 명사구 보문 구성을 그 목적어로 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통사 구조이다. 또한 사유의 내용에 해당하는 문장을 성분으로 취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명사성 성분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엇디, 그리' 등의 부사를 취하기도 하였지만 '너기-'와 같이 다양한 형식의 부사어를 성분으로 취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18세기까지 이어진다.

(7) 가. 能히 過去 부텻 法藏을 싱각ᄒᆞ며 <법화 4: 59a>
나. 보ᄆᆞ란 불기 호ᄆᆞᆯ 싱각ᄒᆞ며 (視思明ᄒᆞ며) <번소 4: 6a>
나'. 봄애 붉음을 싱각ᄒᆞ며 (視思明ᄒᆞ며) <소언 3:5b>
다. 어마니믜 ᄉᆞ랑ᄒᆞ샤미 세 고대 니르히 올ᄆᆞ시던 주를 싱각ᄒᆞ야 (念慈母之愛ㅣ 至於三遷ᄒᆞ야) <번소 6: 10a>
다'. 어엿비 너기시ᄂᆞᆫ 엄의 ᄉᆞ랑ᄒᆞᆷ이 세 적 올몸애 니ᄅᆞ신 줄ᄋᆞᆯ 싱각ᄒᆞ야 (念慈

35) 심리형용사는 특성상 3인칭 주어에 대해 '-어하-'가 결합해야 한다.

母之愛ㅣ 至於三遷ᄒᆞ야) <소언 5: 9b>

라. 가줄 거슬 보아ᄃᆞᆫ 맛당ᄒᆞᆫ가 ᄉᆡᆼ각홀디니라 (見得思義니라) <번소 4: 6b>

라'. 어듬을 보매 맛당홈을 ᄉᆡᆼ각홀디니라 (見得思義니라) <소언 3: 5b>

바. 반ᄃᆞ시 졋바뎌셔 ᄉᆡᆼ각ᄒᆞ니 아ᄃᆞᆯ도 보고져 ᄯᆞᆯ도 보고져 지아비도 보고져 ᄉᆡᆼ각고 <순천 73>(어머니>딸)

사. 어늬 ᄒᆡ예 ᄆᆞᅀᆞᆷ 편ᄒᆞᆯ 히나리 이시리 그리 ᄉᆡᆼ각고 <순천 154>

(7)은 15, 16세기의 'ᄉᆡᆼ각ᄒᆞ-'의 구문 구조이다. 중세 한국어에서 'ᄉᆡᆼ각ᄒᆞ-' 구문은 (7가)와 같이 사유의 대상을 목적어로 취하기도 하고, (7나)와 같이 동명사 구성이나 (7다)와 같이 명사구 보문 구성을 취하기도 한다. 또한 (7라)와 같이 사유의 내용을 문장으로 취하기도 한다. (7마)는 화자의 내적 욕망을 '-고져 ᄉᆡᆼ각ᄒᆞ-'로 표현한 것이다. (7사)와 같이 부사어 '그리'가 쓰인 예도 있는데 이때 앞의 문장은 (7라)와 같이 사유의 내용을 담고 있다. 'ᄉᆡᆼ각하-'의 앞에 부사가 오는 경우 '내 어제 그르 ᄉᆡᆼ각ᄒᆞ돗더라'<번노 상 59b>의 '그르'와 같이 사유의 [방식]을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너기-'와 같이 대상에 대하여 어떠하게 판단한다는 식의 문장 구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근대 한국어에서도 거의 같은 구문 구조가 나타난다.

(8) 가. 은졍이 듕커니와 어버이ᄅᆞᆯ ᄉᆡᆼ각디 아니ᄒᆞᄂᆞᆫ다 <계축 하 10b>

나. 곳 밥 먹기를 ᄉᆡᆼ각ᄒᆞ리니 (便思量飯喫) <노언 下 37a>

나'. 곧 밥 먹고져 ᄒᆞ야 ᄉᆞ랑ᄒᆞ리라 (便思量飯喫) <번노 하 41a>

다. 뎨 므슴 일을 因ᄒᆞ엿ᄂᆞᆫ디 ᄉᆡᆼ각ᄒᆞ니 그저 말로 뼈 罪ᄅᆞᆯ 어덧도다 <오륜 6: 1a>

라. 아직 代官들도 他國 일이라 ᄉᆡᆼ각 말고 곰곰 ᄉᆡᆼ각ᄒᆞ여 보옵소 <첩해-初 4:23b>

마. 이 나라 ᄒᆞᆫ 폐나 더올가 ᄉᆡᆼ각ᄒᆞᄂᆞ이다 (このくにのひとつのそうさも のくしまるせうと おもえまるする) <첩해-初 3:23b>

바. 몬져 이습을 업시 ᄒᆞ고져 ᄉᆡᆼ각호ᄃᆡ <선조행장 113>

사. 요ᄉᆞ이 ᄇᆡ 가ᄂᆞᆫ ᄃᆡ 보내려 ᄉᆡᆼ각ᄒᆞ오니 (このあいだふねもどるにやりまるせ

うとおもいまるするほどに) <첩해-初 4:6b>

아. 그려도 엇디 ᄉᆡᆼ각ᄒᆞ고 <병자 100>

자. 일뎡 긔롱ᄒᆞᄂᆞᆫ 양으로 ᄉᆡᆼ각ᄒᆞ거니와 (さだめてなぶりようにおもえとも)<첩해-初 9: 20b>

차. 이 ᄒᆞᆫ 허믈로 ᄉᆡᆼ각ᄒᆞᄋᆞᆸ거니와 <첩해-初 9: 10a>

(8)은 17, 18세기의 'ᄉᆡᆼ각ᄒᆞ-'의 구문구조이다. (8가)와 같이 명사나 (8나)의 동명사 구성을 목적어로 취해 사유의 대상을 나타낸다. 또한 (8다), (8라), (8마)와 같이 문장을 취하거나 (8바), (8사)와 같이 의도의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사유의 내용을 드러내기도 한다. (8아)는 부사 '엇디'가 사유의 내용을 나타낸다. (8자), (8차)와 같이 사유 대상에 대한 사유 내용이 '로'격을 취하여 나타나는 문장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모두 《첩해신어》의 예이다. 이것은 결과 구문의 [목적어 # 부사어 # V]의 구조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18세기까지 이러한 구문은 널리 사용되지 않았고 특정 문헌에서만 나타날 뿐 본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이 ᄉᆡᆼ각ᄒᆞ-'처럼 보이는 문장들이 나타나지만, 이때의 '-이'는 모두 사유 행위와 관계없이 서술어를 수식하는 [방식]의 부사로 쓰인 것이다. 즉 'ᄆᆞᄋᆞᆷ 편히 ᄉᆡᆼ각ᄒᆞ쇼셔'<첩해-初 6: 20a>나 '고요이 ᄉᆡᆼ각ᄒᆞ니'<警問續 42b>와 같이 주어의 태도, 즉 [방식]을 묘사하는 부사로 쓰였을 뿐이다.

19세기 말에 이르면 'ᄉᆡᆼ각ᄒᆞ-'의 새로운 구문 구조, 즉 '목적어 # 부사어 # ᄉᆡᆼ각ᄒᆞ-'의 구문이 매우 활발히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예는 <독립신문>에 보인다.

(9) 가. 그 사ᄅᆞᆷ들도 우리를 친구로 ᄉᆡᆼ각ᄒᆞ기를 ᄇᆞ라노라 <독립신문>

나. 그런 고로 와셔 호쇼ᄒᆞ엿다고 벌 주ᄂᆞᆫ 거슨 무법ᄒᆞᆫ 일노 ᄉᆡᆼ각ᄒᆞ노라 <독립신문>

다. 다른 사ᄅᆞᆷ이 날보다 다 됴흔 줄노 ᄉᆡᆼ각ᄒᆞ면 일마다 평안ᄒᆞ고 곳마다 평안홈이 무어시 어려오리오 <성경직해 27b>

라. 이왕에 ᄒᆞ던 거시면 죠흔 줄노 알고 곳쳐셔ᄂᆞᆫ 못 쓸 줄노 ᄉᆡᆼ각ᄒᆞ니 <독립신문>

마. 늙고 병든 사ᄅᆞᆷ이 이런 치운 ᄯᅢ에 고ᄉᆡᆼᄒᆞᄂᆞᆫ 거슬 불샹히 ᄉᆡᆼ각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업지 안ᄒᆞᆫ지라 <독립신문>

바. 미국 부인들도 그 사ᄅᆞᆷ들 위히 쓴 돈과 감샤ᄒᆞᆫ 일을 즐겁게 ᄉᆡᆼ각ᄒᆞᆯ 터이요 <독립신문>

사. 님군을 위ᄒᆞ여 죽겟다고 ᄉᆡᆼ각지 말고 <매일신문>

(9가), (9나), (9다), (9라)는 대상에 대한 사유의 내용이 '로'격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유의 내용이 (9가), (9나)에서는 명사구로, (9다)에서는 형용사와 결합한 명사구 보문 구성으로, (9라)에서는 동사와 결합한 명사구 보문 구성으로 쓰인 것이다. 한편 (9마)는 '-이' 부사형으로, (9바)는 '-게' 부사형으로 나타난 것이다. (9사)는 인용조사 '고'가 쓰인 예이다. 이들은 모두 대상에 대한 사유의 내용을 나타낸다. 이 중 '-이 ᄉᆡᆼ각ᄒᆞ-'와 '-게 ᄉᆡᆼ각ᄒᆞ-'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19세기의 '-게 ᄉᆡᆼ각ᄒᆞ-'의 예이다.

(10) 가. ᄌᆞ손이 날보다 낫게 이 셰샹에 살게 ᄒᆞ야 줄 ᄉᆡᆼ각들이 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은 내 목숨을 나라 ᄉᆞ랑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에셔 가븨압게 ᄉᆡᆼ각ᄒᆞ기를 바라노라 <독립신문>

나. 이 거슬 보거드면 이 더럽고 진 거슬 우리가 더럽고 즐게 ᄉᆡᆼ각ᄒᆞᄂᆞᆫ 것과ᄂᆞᆫ 다름이라 <독립신문>

다. 셰계 사ᄅᆞᆷ들이 죠션을 ᄂᆞᆺ게 ᄉᆡᆼ각하게 ᄒᆞᄂᆞᆫ 거시 졍부의 도리가 아니라 <독립신문>

라. 만일 하와이 졍부에서 이 셰죠목을 가케 ᄉᆡᆼ각ᄒᆞ거던 ᄌᆡ판ᄒᆞᄌᆞᄂᆞᆫ 약죠를 곳냥국 젼권 위원이 답인ᄒᆞᄌᆞ ᄒᆞ엿다더라 <독립신문>

마. 청국이 분파되ᄂᆞᆫ 것을 미국셔 엇더케 ᄉᆡᆼ각ᄒᆞ나냐 ᄒᆞᆫ즉 <독립신문>

바. 쇽으로ᄂᆞᆫ 죠곰은 분ᄒᆞ나 **목숨이** 의리보다 더 즁ᄒᆞ게 ᄉᆡᆼ각ᄒᆞᄂᆞᆫ ᄉᆡ ᄃᆞᆰ에 의리ᄂᆞᆫ 졀단나더라도 목숨ᄆᆞᆫ 살 도모를 ᄒᆞ며 <독립신문>

(11) 가. 그 ᄇᆡᆨ셩들이 이거슬 고맙게 ᄉᆡᆼ각ᄒᆞᄂᆞᆫ 거슨 업고 <독립신문>

나. 청국 졍부에셔 아라샤를 대ᄒᆞ야 대단히 밉게 ᄉᆡᆼ각ᄒᆞ야 <독립신문>

다. 졍작 당ᄒᆞᆫ 대한 인민들은 죠곰치도 ᄋᆡᄃᆞᆶ게 ᄉᆡᆼ각지 아니ᄒᆞ거ᄂᆞᆯ 홈을며 외국

사ᄅᆞᆷ들이 ᄋᆡ둛게 넉이ᄂᆞᆫ 것은 침아 폭이 넓은 사ᄅᆞᆷ들노 우리ᄂᆞᆫ 아노라 <독립신문>

라. 대군쥬 폐하씌셔 이런 일을 통쵹ᄒᆞ시면 폐하의 ᄋᆡ국ᄋᆡ민ᄒᆞ시고 하ᄂᆞᆯᄀᆞᆺ치 붉으신 셩의에 오즉 미안ᄒᆞ시게 ᄉᆡᆼ각ᄒᆞ시리요 <독립신문>

마. 학부 대신 신긔션씨ᄂᆞᆫ 벼슬이 갈니셔 간다니 죠션이 문명 진보ᄒᆞ랴ᄂᆞᆫᄃᆡ **이런 사ᄅᆞᆷ이** 가이 우리ᄂᆞᆫ 슬푸게 ᄉᆡᆼ각ᄒᆞ노라 <독립신문>

(10)은 객관 형용사와 결합한 예, (11)은 심리 형용사와 결합한 예이다. (10)과 (11)에서 보듯 '-게 ᄉᆡᆼ각ᄒᆞ-'는 다양한 형용사와 자유로운 결합을 보인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사유의 대상이 목적어로 나타나 [NP2가 NP1을 [(NP1이) V]-게 ᄉᆡᆼ각ᄒᆞ-]와 같은 구조를 보인다. 그런데 (10바), (10마)와 같이 사유의 대상이 하위문의 주어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즉 [NP2가 (NP1을) [NP1이 V]-게 ᄉᆡᆼ각ᄒᆞ-]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구문은 '너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ᄉᆡᆼ각ᄒᆞ-'의 예는 아래와 같다.

(12) 가. 님군과 국긔를 ᄌᆞ긔 목숨들보다 더 즁히 ᄉᆡᆼ각ᄒᆞ며 <독립신문>

나. 의졍부 찬졍 ᄂᆡ부 대신 박졍양 샤직 샹쇼 비답에 망령된 말을 엇지 죡히 ᄉᆡᆼ각ᄒᆞ리요 <독립신문>

다. 이 ᄌᆞ긔 나라 ᄉᆞ랑 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ᄌᆞ긔 목숨 보다 가ᄇᆡ야히 ᄉᆡᆼ각ᄒᆞᄂᆞᆫ 것을 가히 알지라 <독립신문>

(13) 가. 영국 인민이 그ᄃᆡ의 공뢰를 감샤히 ᄉᆡᆼ각ᄒᆞᄂᆞᆫ 표를 ᄒᆞ노라 ᄒᆞ더라 <독립신문>

나. 경등은 짐의 슬피 ᄉᆡᆼ각ᄒᆞᄂᆞᆫ 것을 혜아리고 다시 치번 말나 ᄒᆞᄋᆞᆸ셧더라 <독립신문>

다. 길가에 원치 집도 업고 다만 가가 겸집 겸ᄒᆞ고 살면셔 ᄉᆡᆼ이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은 특별히 ᄉᆡᆼ각ᄒᆞ야 돈을 주어 <독립신문>

라. 졍부에셔 ᄒᆞᄂᆞᆫ 일을 인민들이 다 만족히 ᄉᆡᆼ각ᄒᆞᆯ 터이니 염녀 말고 기다리고 잇스라고 ᄒᆞ엿다더라 <독립신문>

(12)은 객관형용사와 결합한 예이고 (13)은 심리형용사와 결합한 예이다. '-이 ᄉᆡᆼ각ᄒᆞ-' 구문은 '-이 너기-'와 비교해 보면 그 결합하는 용언의 종류도 한정되어 있고 그 빈도도 낮다. '-이'가 생산성을 많이 잃은 상태에서 새롭게 확장된 이 구문에는 '-이' 부사형이 많이 쓰이지 않은 듯하다. 오히려 '-게 ᄉᆡᆼ각ᄒᆞ-'는 (10), (11)에서 살펴보았듯 다양한 형용사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결과]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게' 부사형이 쓰이는 것이 굳어진 후 새롭게 나타난 구문 구조인 '부사형 ᄉᆡᆼ각ᄒᆞ-' 구문에서는 주로 '-게' 부사형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5.2. '-게' 판단 구문의 확장

이 절에서는 먼저 엄밀한 의미의 사유 동사는 아니지만 사유와 관련된 서술어가 V2로 오는 '-게' 구문을 먼저 살펴본 후, 사유 작용과 관련되지 않은 V2가 쓰인 '-게' 구문도 판단 구문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살핌으로써 판단 구문 용법의 확장을 논하고자 한다.

먼저 V2로 '보-'가 쓰이는 경우이다. '보-'는 지각 동사이지만 '-게 보-' 구문에서의 '보-'의 의미는 판단과 관련된다. '-게 보-'의 예는 15세기에 몇 예 발견된다.

(14) 가. 如意ᄂᆞᆫ ᄠᅳ다히 ᄒᆞᆯ씨니 [.....] 골업고 더러ᄇᆞᆫ 거슬 조케 보시며 곱고 조ᄒᆞᆫ 거슬 더럽게 보샤 種種ᄋᆞ로 ᄠᅳ다히 ᄒᆞ실씨라 <월석 4: 40b-41a>

나. 오직 世俗[ᄋᆞᆫ][36] 生滅이 잇게 보ᄂᆞ니 다 虛妄ᄒᆞ야 眞實로 잇논 바 아니니 <월석 19: 96a> (但由世俗見有生滅, 皆是虛妄非真實有。)

36) <월인석보> 권19의 장차 93a~99a는 중앙부가 파손되어 있다. 이 문헌을 학계에 처음 보고한 남권희 남경란(2000)에서는 <법화경언해> 권7의 대당 부분을 바탕으로 파손된 부분을 복원하였다. (2나)의 '世俗■' 부분은 남권희 남경란(2000: 252)에서 '世ㆍ솅[俗][ㆍ쏙][ㆍ을]'로 복원한 후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경에서 '世俗'은 '見'의 주어 내지 보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서는 '世俗ᄋᆞᆫ' 혹은 '世俗이'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법화경언해>의 해당 부분은 저경의 '由'를 적극적으로 언해하여 '世俗ᄋᆞᆯ 브터'로 언해하였는데, 복원시 이에 이끌려 '世俗'을 목적격으로 복원한 듯하다.

나‘. 오직 世俗ᄋᆞᆯ 브터 生滅 이쇼ᄆᆞᆯ 볼 ᄲᅮ니언뎡 다 虛妄ᄒᆞ야 眞實로 이쇼미 아니니 <법화 7: 158a>

(14가)는 ‘여의(如意)’, 즉 ‘뜻대로 함’의 풀이의 한 예시로 ‘꼴사납고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 보는 것’과 ‘곱고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으로 보는 것’을 들고 있다. ‘골업고 더러본 것’은 사유의 대상이며 ‘좋-’의 주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NP2이) NP1을 [(NP1이] 좋-]-게 보-]의 구조로 나타나 전형적인 ‘-게’ 결과 구문의 구문 구조를 보인다. 이때 ‘꼴사납고 더러운 것이 깨끗하다’는 사유의 내용은 명제 자체가 모순이므로 현실 세계의 참과 거짓과 관련 없이 주체가 그렇게 생각하였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좋-’은 객관형용사에 속한다. (14나)의 경우는 ‘-게’가 동사 ‘잇-’과 결합하는데, ‘生滅’이 사유의 대상이자 하위문의 주어로 나타난 경우이다. 즉 [NP2이 (NP1을) [NP1이 잇-]-게 보-]의 구조를 보인다. ‘生滅이 있다’는 것은 사유의 내용에 해당한다. 이때에도 문맥상 생멸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므로 현실 세계의 참과 거짓과 관련 없이 주체의 생각을 나타내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15)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15) 法이 나 업슨 ᄃᆞᆯ 보면 주검 ᄀᆞᆮ거늘 疑心 갓ᄀᆞᆫ ᄆᆞᅀᆞᄆᆞᆯ 브터 거츠리 혜여 窮究ᄒᆞ야 묻ᄂᆞ니 이 니ᄅᆞ샨 너흐루미며 더욱 갓ᄀᆞ리 거츨에 보ᄂᆞ니 이 니ᄅᆞ샨 헤드루미라 (觀法無我ᄒᆞ면 猶如死屍어ᄂᆞᆯ 由疑倒心ᄒᆞ야 妄計窮詰ᄒᆞᄂᆞ니 是謂嗜噉이며 轉見倒妄ᄒᆞᄂᆞ니 是謂狼藉也ㅣ라 <법화 2: 111b>

(15)의 ‘갓ᄀᆞ리 거츨에 보다’는 ‘見倒妄’를 언해한 것인데, 어떠한 대상에 대해 그것이 ‘거꾸로 망령되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봄의 [방식]이 거꾸로 되고 망령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바로 앞의 문장의 ‘거츠리 혜여’(妄計)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15)는 ‘-게 보-’의 판단 구문이 아니라 [방식]으로 쓰인 ‘-게’의 예라고 할 수 있다. 15세기의 ‘-게’가 [방식]으로 쓰인 매우 드문 예이다.

이 두 경우를 제외하면 ‘-게 보-’ 판단 구문은 19세기에 이르러 활발히 쓰인다.

(16) 가. 세샹 사ᄅᆞᆷ이 만히 괴이히 넉여 젹게 보니 엇지 셟지 아니ᄒᆞ리오 <셩경 28b>
나. 또 화인이 양인을 류 다르게 보믈 엇지 고이히 너기리오 (又何恠華人之歧視乎洋人也) <이언 3: 14b>
다. 내가 착ᄒᆞᆫ 고로 네가 악ᄒᆞ게 보ᄂᆞ냐 <신약 마 20: 15>
라. 업슈히 너기고 젹게 보ᄂᆞᆫ ᄆᆞᅀᆞᆷ을 두지 말며 <이언 3: 11b>
마. 젼보를 보아 각국이 엇더케 일들을 죠쳐ᄒᆞᄂᆞᆫ지 더 쟈미잇게 보게 ᄒᆞ노라고 이 곡졀을 대개 긔록ᄒᆞ노라 <독립>
바. 그 디방 사ᄅᆞᆷ이 셩인의 처음과 나죵이 ᄀᆞᆺ지 아님을 뭡게 보아 죽이기로 꾀ᄒᆞ거ᄂᆞᆯ <주년 75b>

(16가)~(16마)는 객관 형용사와 결합한 예이고 (16바)는 심리 형용사와 결합한 예이다. '-게 보-' 구문 역시 '-게 너기-' 구문과 마찬가지로 [(NP2이) NP1을 [(NP1이] V1-]-게 보-]의 구문을 보인다. (16바)의 심리 형용사와 결합한 경우 '뭡-'은 결국 문장의 주어인 '그 지방 사람'의 심리 상태와 관련되므로 주어에 대한 서술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믿-'(信)의 경우이다. '믿-'은 사유의 대상을 목적어로 취하고 사유의 내용이 결과 표시부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른 사유 동사들과 동일한 구문 구조를 보인다.

(17) 가. ᄒᆞᄅᆞ사리 ᄀᆞᆺ튼 인ᄉᆡᆼ을 만 년ᄀᆞᆺ치 길게 미더 <염보-동 31b>
나. 죠션 사ᄅᆞᆷ도 교를 올케 밋ᄂᆞᆫ 사ᄅᆞᆷ들은 ᄆᆞᅀᆞᆷ이 다른 사ᄅᆞᆷ들과 달나 <독립신문>

(17가)에서 'ᄒᆞᄅᆞ사리 ᄀᆞᆺ튼 인ᄉᆡᆼ'이 사유의 대상이고 '인생이 만 년 같이 길다'는 사유의 내용에 해당한다.

'듣-'은 청각의 수용과 관련된 동사이다. 1차적인 감각의 수용과 관련되므로 주로 청각 자극을 목적어로 삼는다. 그런데 근대 한국어 시기 이후 목적어에 대한 판단

결과를 'V-게'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18) 내 네 말을 <u>ᄃᆞᆯ게 듯고</u> <속명 1:24a>

(18)에서 듣는 행위 자체는 순간적이고 감각 수용적인 것이지만, 그 청취된 대상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결과 그것이 '달다'는 사유 내용을 얻게 된 것이다. 특히 (18)과 같은 'ᄃᆞᆯ게 듣-'이라는 표현은 일종의 클리셰처럼[37] 사용되었다. 앞서 예문 (2)에서도 살펴보았듯, 'ᄃᆞᆯ-'은 감각 형용사이지만 "마땅하여 기껍다"와 같은 의미로 쓰이면 심리 형용사라고 할 수 있다.

'V1-게 듣-'이 본격적으로 많이 사용되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이다.

(19) 가. 말이 유익ᄒᆞ미 잇신즉 <u>거술니게 듯고</u> 말이 아쳠ᄒᆞᆫ즉 <u>순ᄒᆞ게 드ᄅᆞ니</u> 벗의 되엇지 이ᄀᆞᆺ치 궁극ᄒᆞᆫ ᄃᆡ 이ᄅᆞ러ᄂᆞᆫ고 <五倫經 9b>

나. 기외 방쳥인은 여러 ᄇᆡᆨ명이 와셔 사ᄅᆞᆷᄆᆞ다 <u>ᄌᆞ미 잇게 듯ᄂᆞᆫ</u> 이가 만히 잇스며 <독립신문>

다. 방쳥ᄒᆞᄂᆞᆫ 이가 여러 ᄇᆡᆨ명이 와셔 사ᄅᆞᆷᄆᆞ다 <u>쟈미 잇고 길겁게 듯ᄂᆞᆫ</u> 이가 만히 잇스며 <독립신문>

라. 조곰 니야기 하면 ᄆᆡ우 <u>긴요하게 듯겟노라</u> 하ᄂᆞᆫᄃᆡ <독립신문>

마. 병원 의ᄉᆞ 쉬민씨가 나팔을 가지고 찬미가 ᄒᆞᄂᆞᆫ 귀졀을 맛츄어 불ᄆᆡ 쇼ᄅᆡ가 가장 쳥아ᄒᆞ여 ᄆᆡ우 <u>깃부게들 드럿다더라</u> <매일신문>

(19가)~(19라)는 V1에 객관 형용사가 쓰인 경우이고 (19마)는 심리 형용사가 쓰인 경우이다. (19마)의 '기쁘게 듣다'는 들은 결과 판단 주체가 그 들은 내용에 대하여 기쁘다고 판단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궁극적으로는 판단 주체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것과 같다.

---

37) 'ᄃᆞᆯ게 V2' 구문에서 V2에는 'ᄃᆞᆫ-' 뿐 아니라 수용적인 의미의 동사들이 쓰일 수 있었다.

(1) 가. 일을 이로지 못ᄒᆞ면 굴령을 <u>ᄃᆞᆯ게 바드마</u> <삼역 7: 2a>

나. 치명이라도 <u>ᄃᆞᆯ게 밧을</u> 거시니 <주년 62a-62b>

다. 일가 친쳑과 벗들의 원망과 릉욕을 <u>ᄃᆞᆯ게 참아 밧다가</u> ᄒᆞᆫ 가지로 복을 누리니라 <보감 1: 85>

이와 같이 심리 형용사와 '-게'의 결합이 늘어가는 것은 '-게' 판단 구문이 근대 한국어 시기 널리 쓰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양적 증가는 심리 형용사와 '-게'의 결합을 더 증가하게 하였다.

6. 'V_1P-게 V_2' 목적 구문

제6장에서는 'V1-게 V2' 목적 구문에 대하여 살펴본다. [목적]과 [의도], [결과] 등의 관계 의미는 언어 외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어떠한 의도를 가진 행위는 그것이 지향하는 바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결과가 달성되기 때문이다. 이때 [결과]라는 술어는 '-게'가 이끄는 절이 가리키는 내용이 후행절의 사건의 결과라는 선후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며, [목적]이라는 술어는 '-게'가 이끄는 절과 후행절 사이의 인과 관계에 주목한 것이다. 본고는 V1과 V2가 나타내는 두 사건의 의미적 관계에 주목하므로 이를 [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게' 목적 구문은 사동 구문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이는 절 접속 구성에 해당하지만 목적 구문에서 V2로 쓰이는 동사는 사동 구문의 'ᄒᆞ-'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V1-게 V2' 구성을 보이는 '-게' 목적 구문을 V2에 따라 크게 이동사동 동사인 경우, 화법 동사 및 청원 동사인 경우, 사동 행위와 관련된 구체동사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 절 접속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게'의 연결어미로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V1-게 V2' 목적 구문의 발달 양상에 대하여 목적적 행동과 목적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적적 행동의 유형은 무한할 수 있지만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V2에 이동의 타동사(caused motion verb)인 '보내-', 화법동사인 'ᄉᆞᆲ-, 니르-' 등만 가능하였다. 이들을 각각 6.1과 6.2에서 살펴본다. 6.3에서는 주로 부정문을 취하는 목적 내용의 성격에 대해 살펴본다.

6.1. V_2가 이동의 타동사인 경우

중세 한국어에서 'V1-게 V2' 구성이 목적 구문으로 사용되는 예는 많지 않다. 그 중 대표적인 경우는 V2에 '보내-'가 쓰이는 경우이다.

(1) 檀木이 세 히예 쿠믈 빅브르 드렷노니 시냇 ᄀᆞ싓 열 이럼만 ᄒᆞᆫ ᄀᆞᄂᆞᆯᄒᆞᆯ 주어 보내라 (飽聞檀木三年大 與致溪邊十畝陰) 【檀ᄂᆞᆫ 音欹라 甫 自註蜀人이 以檀로 爲薪ᄒᆞᄂᆞ니 三年에 可燒니라 十畝陰ᄋᆞᆫ 十畝애 시므게 보내라 ᄒᆞ논 마리라】 <두시 18: 22b>

(1)은 15세기에 보이는 'V1-게 보내-'의 예이다. '十畝陰'이라는 구절을 풀이하기 위한 주석에 'V1-게 보내-' 구성이 쓰이고 있다. 주어를 복원하자면 [(NP2=청자가) [(NP1=화자가) (檀木을) 십묘애 심게] 보내라]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V1인 '시므-'는 V2 '보내-'의 목표(goal)이자 목적에 해당한다.

'보내-'가 의미하는 사건 구조는 본질적으로 사동 사건과 동일하다. '보내-'는 '행위주, 수혜주, 대상'의 논항을 지니는데, 수혜주를 목표역으로 보고 대상을 목표역으로 이동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보내-'의 사건 구조는 사동 사건의 구조와 동일하다. 사동의 논의에서 논자에 따라 '보내-'를 '가게 하-'의 어휘적 사동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1)과 같은 '시므게 보내라'를 '-게' 사동 구문으로 보지는 않는다. 사동 표지가 쓰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V2의 '보내는' 행위가 V1의 '심는' 행위를 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V2와 V1은 선후 관계에 있으며, V1은 V2의 목적에 해당한다. 그러나 V1의 '심는' 행위는 V2의 행위가 있음으로 인해 자연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지적 행위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V1-게 V2' 구문에 대하여 목적 구문으로 파악한다. 우리는 이러한 '보내-'를 이동의 타동사라고 명명한다.

[목적]은 개념적으로 그것을 의도한 주체가 존재한다. 후행절이 평서문일 경우 V1의 결과 상태를 목적으로 V2를 행하는 V2의 주어 NP2가 의도의 주체가 된다. 후행절이 명령화행일 경우는 받는 사람, 즉 화자인 NP1이 의도의 주체가 된다. (1)의 화자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양상은 사동 사건을 일으키는 NP2 사동주가 의의 주체라는 점과 상통한다.

중세 한국어에서 이동의 타동사가 보이는 구문 구조는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NP2이 O을 [(NP1이) (O을) V1]-게 V2]
NP1이 (O을) V1하도록 NP2가 O를 이동하게 하다.

사건의 주체인 NP2는 의도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원인 사건을 일으킨다. 그리고

(4) 가. 내 닙던 소젹사ᄆᆞᆯ 날 본ᄃᆞ시 닙게 보내노라 <순천 153>(신천강씨 (어머니)→ 순천김씨(딸))
나. 나ᄂᆞᆫ 어히업ᄉᆞ니 게셔 ᄂᆞ미나 시기게 뵈 슈공 조차 보내쟈 ᄒᆞ니 뉘 가져가리 <순천>(신천강씨 (어머니)→순천김씨(딸))
다. 또 ᄇᆞᆨ른 보내여 ㅅ두다가[듯다가] 다 주게 도로 보내다니라 (신천강씨 (어머니)→ 순천김씨(딸))
라. 무명 딕녕 졈 내여 듯다가 보내소 드러갈 제 닙게 귀소ᄂᆡ 어미ᄂᆞᆫ 또 가 브ᄅᆞ라 ᄒᆞ뇌 솝것 바ᄉᆞ니 가ᄂᆡ 갇 보낼 제 ᄂᆡ 영ᄌᆞ ᄒᆞ여 보내소 <순천 138> (채무이(남편)→ 순천김씨(아내)

(5) 또 ᄇᆡ 아ᄉᆞᆫ 면화 너히과 민 셔방 집과 슈오긔 지ᄇᆡ 얼 ᄀᆞᄉᆞᆯ히 동져고리 두어 닙게 ᄇᆡ 아ᄉᆞ니 각각 여듧 냥식 보내요ᄃᆡ <순천 61> (김훈(아버지)-> 순천김씨(딸))

(6) 가. 힝뎐과 보션도 ᄒᆞ나 둗거이 기워 가ᄂᆞ니 길히 시ᄂᆞ시게 또 모시 힝뎐 보내여라 녀ᄅᆞᄆᆡ 신게 슈긔 명디ᄂᆞᆫ 하 민망터니 보내니 깃브미 ᄀᆞ이업서 ᄒᆞ거니와 이리 네 거슬 주어 쓰고 죽거든 눌ᄃᆞ려 니ᄅᆞᆯ다 <순천 17> (신천강씨 (어머니)→ 순천김씨(딸))
나. 네 무명도 이제 ᄇᆞᆫ다 몯 가ᄂᆞᆫ 이리나 알에 잠간 히여 가ᄂᆞ니라 <순천 131> (어머니 → 딸)

(4), (5)는 '-게 보내-'의 예, (6)는 '-게 가-'의 예이다. 16세기에 나타난 이동 사동 동사의 목적 구문은 모두 <순천김씨언간>에서 나타난다. (6)의 '가-'는 "물건이 가다"의 의미로 쓰여 "보내다"와 문맥적으로 유사한 의미로 쓰여 논의에 포함하

였다. V2가 '가-'인 경우 [NP2이 [NP1이 V1]-게 가-]의 통사 구조를 보이지만 NP2에 해당하는 물건은 무정물이므로 스스로 갈 수가 없다. 당연히 보내는 사람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가게 한' 것이다. '가-'의 예를 제외하면 중세 한국어의 목적 구문에서 NP1과 NP2는 모두 유정물이며 이 중 의도와 목적의 주체는 NP2(명령 화행인 경우는 NP1)이 된다. NP2는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유정성을 지닌 존재에 해당하며 이러한 구조는 사동 구문의 그것과 유사하다.

한편 (4라), (6가)는 'V1-게 V2' 구성이 분리되어 도치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4라)의 경우 '닙-'과 '보내-'의 목적어는 무명 직령이 분명하다. 들어갈 때 입도록 무명 직령을 보내라는 문장에서 '보내소'가 '드러갈 제 닙게'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분보다 앞으로 도치되어 있다. (6가)의 경우 '길히 시ᄂᆞ시게'는 행전과 버선을 기워 아버님이 길에서 신으시도록 보낸다는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동동사 '가ᄂᆞ니'보다 뒤에 오고 있다. 그 다음 문장의 '또 모시 힝뎐 보내여라' 역시 모시가 여름에 착용하는 직물이라는 점에서 '녀ᄅᆞᄆᆡ 신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한데 역시 목적절의 앞으로 도치되어 있다. 또한 (5)에서는 '닙게'와 '보내요ᄃᆡ' 사이에 이동되는 대상이 목적어로 삽입되어 있다. 이와 같은 'V1-게 V2' 구성이 도치된 예나 분리 가능성이 보이는 예는 16세기에 'V1-게 V2' 구성에서 '-게'가 연결어미로서의 용법을 어느 정도 확보하였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근대 한국어의 예를 살펴보겠다.

(7) 가. 싱포 열 낫 젹습건마ᄂᆞᆫ ᄒᆞᆫ 저기나 잡ᄉᆞ오시게 보내옵ᄂᆞ이다 <곽씨 106>
나. 죠치 아니온 거슬 졍이나 아옵시긔 보내옵노이다 <곽씨 68>
다. 동싱의 무명 뽄 것 두 긋틱 ᄇᆞ름ᄒᆞ여 가옵고 나(?)ᄂᆞᆫ 분별(?)지 〃쇼ᄒᆞ오나 졍이나 아옵시긔 닷다치 가옵더니 ᄂᆞᆫ호옵시닝까 <곽씨 44>
라. 모밀 ᄯᆞᆯ ᄒᆞᆫ 되 닷 홈 초차 면에 쓰게 가ᄂᆡ <곽씨 49>
마. 이 ᄉᆞ연을 보옵시게 드리옵쇼셔 <곽씨 43>
~~바.~~ 자내 짐쟉ᄒᆞ여 핀잔되디 아니케 출화 보내소 <곽씨 110>
사. 텬복이 침실의 브리시게 부러 드려 보내시니 뉘라셔 막아 아니 드려 보내시

게 ᄒᆞᄂᆞ니 <서궁 62a>

(8) 가. 筑前太守로셔 예ᄉᆞ지 無事히 오시기예 덕담으로 下人을 주시게 차반을 가지고 使者ㅣ 왇ᄉᆞ오니 <첩신-개 7: 1a>

가'. 筑前太守로셔 예ᄉᆞ지 無事히 오시다 ᄒᆞ셔 덕담으로 下人을 주시게 ᄒᆞ야 차반을 가지고 使者ㅣ 왓ᄉᆞ오니 <첩신-초 7: 1a>

가''. 筑前太守로셔 옏ᄀᆞ지 無事히 오시기예 덕담으로 차반을 가지고 使者ㅣ 왓ᄉᆞ오니 <첩해-중간 7: 1a>

가'''. ちくせんの 加みよ里 これまて むしに つ加しられたと あて いわいに けにんお つ加わしらるためと さしやう もたせて ししや加 まいたほとに <첩신-초 7: 1a>

나. 이번 건너오신 덕담으로 目錄으로 ᄡᅥ 보시게 보내오니 <첩신-개 10上 14a-15b>

나'. 令度 罷渡之祝 以目錄 致進覽候 <첩신-초 10: 8a>

(7)은 17세기에 나타난 예이며 (8)은 18세기에 나타난 예이다. (7)에서 '보내-, 가-, 드리-' 등이 V2로 쓰여 목적 구문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로 편지와 함께 물건을 동봉하며 보내는 이유와 목적을 밝히는 문맥에서 사용되다 보니 언간 자료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특징이 있다. (8가)에서 V2로 쓰인 '가지고 오-'는 의미상 '보내-'와 마찬가지로 이동의 타동사라 할 수 있다. 이 동사 역시 대상의 이동 목적을 밝히는 문맥에서 '-게' 목적 구문으로 사용되었다. (8가)의 《개수첩해신어》의 문장은 [NP1(=使者)이 [(NP2(=筑前太守)가) (차반을) 하인에게 주시-]-게 차반을 가지고 왔다]로 분석된다. '축전태수가 (차반을) 하인을 주시다'와 '사자(NP2)가 차반을 가지고 오다'라는 문장이 '-게'로 결합된 것으로 [목적]의 연결어미의 쓰임을 잘 볼 수 있다. 원간본에서는 (7가')의 '(축전태수가) (차반을) 주시게 ᄒᆞ야'와 같이 '-게 ᄒᆞ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의 '-게 ᄒᆞ-'는 사동으로 볼 수 없다. (8나)의 '보시게' 역시 NP1인 청자가 하기를 바라는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19세기 판본에서는 이러한 이동의 타동사와 공기하는 '-게'의 용례를 찾기 어려우나, 이러한 용법이 현대 한국어에도 사용되므로 이 공백은 자료적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사동 동사 구문에서의 '-게' 목적 용법은 고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9) 가. 부ᄆᆡ 이의 졔 궁인의 일홈 쓴 거슬 다 샹고ᄒᆞ여 부모 잇노니는 다 셩혼ᄒᆞ여 살게 졔 집으로 보ᄂᆡ니 <쌍천기봉 17a>

나. 뇽네 믄득 달ᄂᆡ여 왈 내 비록 진의갈댱간을 어더시나 십년을 거졀ᄒᆞ여 너의 한을 플게 도라 보ᄂᆡ리라 ᄒᆞ니 <소현성록 4:60a>

(9)는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고소설에 나타난 이동사동 동사의 '-게' 목적 구문의 예이다. (9가)에서 문맥상 '부모 있는 이가 성혼하여 살게'는 '부마가 궁인을 제 집으로 보내다'의 목적임을 알 수 있다. (9나)에서도 '너의 한을 풀게'는 '돌려보내는' 목적에 해당한다.

요컨대 V2에 이동의 타동사가 쓰이는 'V1-게 V2' 구성은 중세 한국어에서부터 쓰여 왔으며 이때의 'V1-게'는 V2 행위의 목적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였다. 이동의 타동사가 쓰일 때 문장의 참여자인 NP1과 NP2는 모두 유정성을 띠는 사람인데, 'V1-게'의 내용은 NP2의 목적한 바에 해당한다. 한편 '-게'가 이끄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도치되는 예에서는 '-게'의 연결어미로서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6.2. V_2가 화법 동사인 경우

'V1-게 V2'가 화법 동사와 쓰인 경우에도 [목적]의 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15세기 자료에 나타난 'V1-게 V2' 화법 동사 구문의 예이다.

(10) 가. 이에 長者ㅣ 헌 ᄯᅴ 무든 옷 닙고 ᄲᅩᆼ 츨 그릇 자바 아ᄃᆞ릐게 가 方便으로브터 갓가와 브즈러니 짓게 닐오ᄃᆡ "ᄒᆞ마 네 값과 바래 ᄇᆞᄅᆞᆯ 끼름 조쳐 더으며 飮食을 브르게 足게 ᄒᆞ며 ᄭᅳᆫ는 돗ᄀᆞᆯ 둗거이 덥게 ᄒᆞ노라" 이ᄀᆞ티 苦ᄅᆞ이 닐오ᄃᆡ "네 반ᄃᆞ기 브즈러니 지ᅀᅳ라" ᄒᆞ며 ᄯᅩ 보ᄃᆞ라온 말로 "내 아ᄃᆞᆯᄀᆞ티 호리라" ᄒᆞ니(於是예 長者ㅣ 著弊垢衣ᄒᆞ고 執除糞器ᄒᆞ야 徃到子所ᄒᆞ야 方便

으로 附近ᄒᆞ야 語令勤作호ᄃᆡ 旣益汝價와 幷塗足油ᄒᆞ며 飮食을 充足게 ᄒᆞ며 薦席을 厚暖케 ᄒᆞ노라 如是苦言호ᄃᆡ 汝當勤作ᄒᆞ라 ᄒᆞ며 又以軟語로 若如我子호리라 ᄒᆞ니) <법화 2: 242a-242b>

나. 王이 大愛道ᄅᆞᆯ 블러 니ᄅᆞ샤ᄃᆡ "耶輸는 겨지비라 法을 모ᄅᆞᆯᄊᆡ 즐굽드리워 ᄃᆞᆺ온 ᄠᅳ들 몯 ᄡᅳ러 ᄇᆞ리ᄂᆞ니 그듸 가아 아라듣게 니르라" <석상 6: 6b> (卽告夫人波闍波提。我子悉達遣目連來。迎取羅云欲令入道修學聖法。耶輸陀羅女人愚癡。未解法要心堅意固。纏著恩愛情無縱捨。卿可往彼重陳諫之令其心悟。)

(10가)는 [NP2(=장자)이 [NP1(=아들)이 부지런히 짓-]-도록 말하되] 정도의 구조로 분석된다. (10가)의 후행 문맥을 살펴보면 '브즈러니 지스라'라는 명령문이 직접 인용되고 있다. 따라서 밑줄 친 '브즈러니 짓게'와 '니ᄅᆞ-' 사이에는 의미상 발화의 내용과 화법 동사의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이 인용구문이라는 뜻은 아니다. '브즈러니 짓게'는 발화의 내용이자 발화의 목적이다. (10나)는 [NP2(=그듸)가 가서 [NP1(=야수)가 알아듣]게 말하라]와 같이 분석된다. (10나)의 '알아듣게'는 (10가)와 같은 중의성이 없이 발화의 목적으로만 해석된다.[38]

(10)의 원문에는 사동표지 '令'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언해문에는 '-게 ᄒᆞ-'라는 사동 표지가 쓰이지 않았고, 'V1-게' 뒤에 'ᄒᆞ여' 등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동 구문으로 볼 여지는 없는가. 우리의 백과사전적 지식을 통해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시키는 행위에 관한 다양한 수단을 알고 있다. 사동주가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하여 피사동주에게 영향을 입힐 수도 있고 명령이나 지시 등 언어적 행위를 통해 피사동주에게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혹은 눈치를 주거나 무언의 압박을 가하여 피사동주에게 영향을 입힐 수도 있다. 또는 피사동주의 행동을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허용할 수도 있다. 현실 세계의 시킴의 강도의

38) 여기에서 '아라듣게'를 [목적]으로 해석하였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와 같은 [방식](manner)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라듣-'은 NP1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던 속성이라기보다는 V2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 상태, 혹은 V2의 사건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 구조를 우선시하여 '아라듣게'를 [목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며 그것의 [방식]으로의 해석은 목적의 쓰임에서 이차적으로 나온 것으로 본다.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피사동주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발화하는 상황은 충분히 사동 구문으로 표현될 수 있다. 문법적 관점에서 사동 구문은 사동 사건과 피사동사건이라는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하다, 지시하다, 명령하다' 등의 화법 동사가 V2로 쓰인 경우도 동일하게 분석될 수 있다. 언어로 지시하는 사건이 원인 사건이 되어 피사동 사건을 이끌어 낸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게 하-'라는 사동 표지와 달리 이들은 사동의 특수한 표지가 사용되지 않으며, '-게'와 화법 동사 사이에 다른 요소가 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동 구문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게' 절이 발화의 [목적]이 되므로 V2가 발화 동사인 'V1-게 V2' 구문을 목적 구문으로 다루고자 한다.

발화 동사 구문은 앞서 제시한 목적 구문의 특성을 잘 가지고 있다. 즉 발화 사건은 그 목적하는 사건보다 항상 선행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목적하는 사건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이가 알아듣게 말했다'라는 문장에서 '말하는' 행위에 의해 '아이가 알아듣는' 사건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아이가 알아듣기 위해 인위적인 노력을 해야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전형적인 목적 구문의 특징 중 하나이다.

화법 동사가 '-게' 목적절을 취하는 것은 근대 한국어 이후 빈도가 증가한다. 다음은 근대 한국어의 예이다.

(11) 가. 使者을 보시고 御回答이나 ᄒᆞ시게 ᄉᆞᆲ닝이다 (ししやに あわしられて 御扁んしも なさるやうに 申 いれまるする) <첩신-초 7:1a>

나. 接待예 겻기ᄒᆞᄂᆞᆫ 냥반ᄃᆞᆯ히 방샤ᄅᆞᆯ 부러 출혀 오ᄅᆞ시게 굿ᄒᆞ야 니ᄅᆞ오니 (せつたいの ま加ないの さむらいもの加 御やとお わさと こしらいて あ加らしらるやうに しき里に 申 ほとに)<첩신-초 6:15a>

다. 내 ᄂᆞ려가셔 다시 ᄌᆞ셰 ᄀᆞᆯ히여 볼 거시니 슌위 오나ᄃᆞᆫ 가디 말고 잇다가 나ᄅᆞᆯ 보고 가게 니ᄅᆞ소 <곽씨9-9> (곽주(남편)→하씨(아내))

(12) 가. 비록 ᄂᆞᆯ거슬 오ᄂᆞᆯ 보내여 겨ᄋᆞᆸ셔도 ᄯᅩ 쳘봉이 다 부러 보내셔 아흔 자히 훤훤케 ᄂᆞᆯ아 수이 미처 ᄆᆡ ᄇᆞᆨ게 긔걸ᄒᆞᄋᆞᆸ쇼셔 <곽씨165-12> (곽유창(아들) → 진주하씨(어머니))

나. 샤당은 왓다 ᄒᆞ니 자내ᄂᆞᆫ 고단히 아니 겨신가 ᄒᆞ뇌 잇다가 나 ᄂᆞ려 니거든

보고 가게 긔별ᄒᆞ소 <곽씨134-11> (곽주(남편)→하씨(아내))

(11)은 17세기에 'ᄉᆞᆲ-,', 'ᄂᆡᄅᆞ-' 등 화법 동사가 ' V1-게 V2' 구성에 쓰인 예이다. (11가), (11나)는 《첩해신어》의 예로 'Vやうに申(lit. ~하도록 말씀드리다)'를 언해한 것이다. 현대 일본어에서 'ようにする, にする'는 주변적 사동, 어휘적 사동으로 간주하기도 한다(유수연 2017: 348, 각주 8). 이러한 사동과 관련 있는 구성인 'やうに'와 화법 동사인 '申'의 조합과 'V1-게'와 'ᄉᆞᆲ-, ᄂᆡᄅᆞ-'의 조합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쓰임은 번역 문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11다)와 같이 언간에도 활발하게 나타났다. (12)는 언간에 나타난 '-게 긔걸ᄒᆞ-', '-게 긔별ᄒᆞ-'의 예이다. (12가)의 '긔걸ᄒᆞ-'는 '시키다, 명령하다'의 의미로 주로 'S 긔걸ᄒᆞ-'와 같은 구조로 나타나므로 화법 동사로 볼 수 있고, (12나)의 '긔별ᄒᆞ-'는 '전언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화법 동사로 볼 수 있다. (11), (12)에서 'V1-게'는 발화의 내용이자 발화의 목적에 해당한다.

다음은 18세기 문헌에 나타난 예이다.

(13) 가. 木綿은 내 친히 보와 ᄀᆞ장 吟味ᄒᆞ여 드릴 거시니 代官ᄂᆡ씌 하 ᄀᆞᆯ히지 말게 니ᄅᆞᄋᆞᆸ소 (もんめんわ み加 しきに みて きやうさんに きんみして いれまるせうほとに たいくわんしゆに あま里 よるなと おしられ) <첩신-개 3: 34b>

가'. 木綿은 내 친히 보와 ᄀᆞ장 吟味ᄒᆞ여 드릴 거시니 代官네씌 하 ᄀᆞᆯ히디 말라 니ᄅᆞᄋᆞᆸ소 <첩신-초 3: 24a>

나. 그러면 얻지 부ᄃᆡ 明日 ᄒᆞ시게 니ᄅᆞᄋᆞᆸ시던고 (そうならは なせに せひとも あす さしらる やうに おしら里た加) <첩신-개 1: 42b>

나'. 그러면 엇디 브ᄃᆡ ᄂᆡ일 ᄒᆞ실 양으로 니르ᄋᆞᆸ시던고 <첩신-초 1: 28a>

다. 물나드ᄅᆞᆯ 말이 젹고 혹 아라듯지 못ᄒᆞ면 ᄯᅩ 다ᄅᆞᆫ 말노 부되 ᄭᅵ치게 니ᄅᆞ고 <을병 5: 70>

라. 이러틋ᄒᆞᆫ 사ᄅᆞᆷ은 원들이 몸소 ᄆᆞ을로 ᄃᆞ니며 극진이 ᄎᆞᆺ고 물어 베퍼 반포ᄒᆞ고 알게 닐러 젹어 내여 ᄂᆞᆫ화 먹게 ᄒᆞ야 ᄒᆞᆫ 사ᄅᆞᆷ도 곳을 일홈이 업게 ᄒᆞᆯ지어다 <1783 유경기홍충도감사수령등윤음 3a>

마. 졈은 사ᄅᆞᆷ이매 此後나 操心ᄒᆞ게 公ᄂᆡ계셔 ᄭᅮ지저 주옵 <인어 8: 7b>

(14) 가. 다만 슬ᄒᆞ여 ᄒᆞ시게 숣ᄂᆞᆫ 일이언마ᄂᆞᆫ (たたし いやしきに 申 ことなれとも) <쳡신-初 9:10b>

나. 孔明이 속으로 싱각호되 이 사ᄅᆞᆷ을 셩내게 니ᄅᆞᆯ ᄯᅳᄅᆞᆷ이오 의로 닐러도 되지 못ᄒᆞ리라 제 무름을 기ᄃᆞ려 셩내개 ᄒᆞ여 니라면 이 일이 이로리라 ᄒᆞ여 <삼역 3: 3b-4a>

(13)은 18세기에 나타난 화법 동사 목적 구문의 예이다. (13가)의 'ᄀᆞᆯ히지 말게 니ᄅᆞ옵소'는 원간본에서 (13가')과 같이 직접인용문으로 나타났다. 이때 'ᄀᆞᆯ히지 말게'는 발화의 내용이자 발화의 목적에 해당한다. (13나)의 '明日 ᄒᆞ시게 니ᄅᆞ옵시던고'는 초간본에서는 'ᄂᆡ일 ᄒᆞ실 양으로 니르옵시던고'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어 원문의 'やうに'는 <첩해신어>에서 문맥에 따라 '양으로'로 언해되었는데, (13나)에서는 '-게' 절로 언해되었다. (13마)의 'ᄭᅮ짖-'은 'S ᄭᅮ짖-'과 같이 발화 내용을 보문으로 취하는 화법 동사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操心ᄒᆞ게 ᄭᅮ짖다'와 같이 '-게' 절을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14)는 (13)과 동일하게 'V1-게'와 화법동사가 결합된 것이지만 그 의미는 조금 다르다. '슬ᄒᆞ여 ᄒᆞ시게 숣다'나 '셩내게 니ᄅᆞ다'는 싫어하시도록 말한다거나 성을 내게 하기 위해 말한다기보다는 말을 한 결과 싫어하게 되고, 성을 내게 만들게 된다는 결과 사건과 원인 사건의 구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14)의 문장은 '-게' 결과 구문의 예라 하겠다. (13)과 (14)의 차이는 V2와 V1이 자연발생적인 인과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V1이 NP2가 의도한 바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문장의 통사 구조에서 비롯한다기보다는 사건 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화법동사와 '-게' 목적절이 어울리는 경우는 17, 18세기에 다수 발견되지만, 19세기 이후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발화 행위의 목적이 주로 발화의 내용으로 드러나는바, 인용조사의 발달과 인용구문의 변화와 이러한 구문의 변화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우리는 V2에 청원동사가 쓰이는 경우도 목적 구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15세기에 V2로 '請ᄒᆞ-'가 사용된 예이다.

(15) 가. 이 頌은 爲ᄒᆞ논 靈駕와 法界 亡魂이 그저 몯 오릴ᄉᆡ 부텻 弟子ㅅ 願으로 三寶ㅅ 힘 니버 오게 請ᄒᆞ논 마리라 <三壇施食文 12a> (이현희 1994: 440)

나. 아모 靈駕와 法界 亡魂을 받ᄌᆞ와 爲ᄒᆞᄉᆞᆸ노니 願ᄒᆞᆫ든 三寶ㅅ 히믜 加持호ᄆᆞᆯ ᄐᆞ샤 [加持ᄂᆞᆫ 더어 디닐 시니 니피시다 ᄒᆞᆫ 마리라] 오ᄂᆞᆳ 밤 이 時節에 모도매 오샤 내 供養 바ᄃᆞ시고 菩提ᄅᆞᆯ 證ᄒᆞ쇼셔 (奉爲靈駕法界亡魂 願承三寶力加持 今夜今時來赴會 受我供養證菩提) <三壇施食文 12a>

(15가)는 《삼단시식문》 '소청하위(召請下位)'의 본문인 (15나)에 대한 주석문이다. 여기에서 '-게 請ᄒᆞ-' 구문이 사용되고 있다. (15가)는 '[(NP2이) [NP1(=靈駕와 法界 亡魂)가 부처님 제자의 願으로 삼보의 힘을 입어 오-]-게 청한다]'라고 풀이된다. 이때 청을 하는 당사자인 NP2는 문맥상 '부처님 제자'가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는 '請ᄒᆞ-'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구문 구조와 상이하다는 점이다. 15세기 '請ᄒᆞ-'가 청의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은 '[V-옴]을 請ᄒᆞ-'와 같은 동명사 구성 혹은 '[V-쇼셔] 請ᄒᆞ-', '[V-어지-다] 請ᄒᆞ-'와 같은 직접 화법의 인용 구성, 또는 '[V-고라] 請ᄒᆞ-'와 같이 경어법이 중화된 간접 화법의 인용 구성 혹은 '請호ᄃᆡ S' '請ᄒᆞ야 S' 등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이현희 1994: 420-443). 위와 같이 'S-게 請ᄒᆞ-'로 나타나는 예문은 (15가)가 유일하다.

이에 대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게'가 '-게 ᄒᆞ-' 구성의 일부로서 'ᄒᆞ샤ᄆᆞᆯ'과 같은 동명사 구성이나 'ᄒᆞ쇼셔'와 같은 'ᄒᆞ-'가 포함된 종결어미가 있는 구성이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사동 구문에서 'ᄒᆞ-'가 생략된 구성으로 보는 것이다. 15세기의 '-게 ᄒᆞ-' 구성에서 'ᄒᆞ-'가 생략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앞서 2.2에서 소수의 몇 예를 들 수 있다. 이 문장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로 (15가)와 (15나)의 문맥을 들 수 있다. 사실 (15가)의 청의 내용을 보면 NP1인 영가와 법계 망혼에게 V1 즉 오라고 청하지만 문맥상 영가와 법계 망혼에게 청하는 것이 아니라 NP1을 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부처님께 청하는 것이다. (15나)에 나타난 '加

持'의 주석에서 '더어 디닐 씨니 니피시다 ᄒᆞᆫ 마리라'에서 보듯 '입히는' 주체는 부처님이고 '지니게 되는', '입혀지는' 존재는 영가와 법계 망혼이다. 따라서 (15가)를 부처님을 사동주로, 영가와 법계 망혼을 피사동주로 하는 사동문으로 파악하고 'ᄒᆞ샤ᄆᆞᆯ' 등이 생략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른 가능성은 '請ᄒᆞ-'와 같은 청원 동사가 그 [목적]의 '-게' 구문을 이루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문제점은 (15가)가 중세 한국어에 나타나는 유일한 청원 동사 '-게' 목적 구문의 예라는 점이다. 그러나 청원이라는 행위를 발화 행위의 하위 유형으로 본다면 발화 동사 구문의 구문구조와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15가)의 문장의 쓰인 청원 동사 구문은 [목적]의 '-게'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청하는 행위인 V2가 구문을 이룬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청원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언표내적 명령 행위에 해당한다. 청원의 주체인 화자는 자신의 의도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청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자인 청자에게 자신의 바람을 말한다. 청원 행위 자체가 사동 행위는 아니지만, 사동 구문의 형식인 '-게'를 취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청원 동사의 '-게' 목적 구문의 쓰임은 근대 한국어에서도 나타나는데 주로 일본어 관련 자료들에 많이 등장한다.

(16) 가. 終日 노ᄅᆞ시고 내 집 지은 것도 두로 보시고 느즉ᄒᆞ여 도라가시게 ᄇᆞ라닝이다 (しうしつ あそはしられて われら やつく里おも うちまわて 御らんしられて はん加たにも もとらしらるやうに のそみてこそ御され) <첩신-初 6: 5a>

가'. 終日 노ᄅᆞ시고 내 집 지은 걷도 보시고 느즉ᄒᆞ여 도라가시게 ᄒᆞ쇼셔 <첩신-개 6: 6a-6b>

나. 나ᄂᆞᆫ 본ᄃᆡ 口辯업ᄉᆞᆫ 사ᄅᆞᆷ이매 所懷ᄅᆞᆯ 다 니ᄅᆞ지 몯ᄒᆞ오나 짐쟉ᄒᆞ시고 善處ᄒᆞ여 주ᄋᆞᆸ시게 ᄇᆞ라ᄋᆞᆸᄂᆡ <인어 3: 21b>

(17) 가. 자네 이 밧기 어려온 差別을 잘 아ᄅᆞ셔 奉行네ᄭᅴ 극진히 닐러 도로 보내시믈 미덧ᄉᆞᆸᄂᆡ (そなた この と里にくい しやへつお よう こころゑて ふきやうしゆゑ ねんころに ゆうて もとすお たのみまるする) <첩신-초 8:

3b-4a>

가'. 자닉 이 받기 어려온 곡졀을 잘 아ᄅᆞ셔 奉行ᄉᆡᆨ 극진이 닐너 도로 보내시게 미덛숩닉 <첩해-개 8: 6a>

나. 朝鮮 풍뉴를 ᄇᆞᄅᆞᆷ 틈으로 듯고져 ᄇᆞ라오니 풍뉴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기티디 말고 더 브르시게 밋즙닝이다 (てうせんの 加くお 加へこしな加ら ききたいと のそみて 御さるほとに 加く つ加まつる ものお のこらす つれさしらるやうにたのみあけまるせう) <첩신-초 8: 24a>

나'. 朝鮮 풍뉴를 ᄇᆞᄅᆞᆷ 안히셔 듣고져 ᄒᆞ오니 풍뉴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기치니 업시 더 부러 오시게 미덛ᄂᆞ이다 <첩신-개 8: 35b>

다. 就夫 公木 五六十束 買米 四五白俵 今明日中 御入被下様 奉頼上候 <첩신-초 10: 28a-28b>

다'. 그러ᄒᆞ오매 公木 五六十束 買米 四五白 셤을 오ᄂᆞᆯ ᄂᆡ일 ᄂᆡ의 드려주옵시게 믿줍ᄂᆞ이다 <첩신-개 10下: 11a-11b>

(16)은 '-게 ᄇᆞ라-'가 사용된 예이고 (17)은 '-게 믿-'이 사용된 에이다. (16가)과 같이 《첩해신어》 원간본에서 'V-게 ᄇᆞ라-' 구문이 사용되었다. 일본어 원문의 'Vやうに のそむ(望)'(lit. ~하게 바라다)에 해당한다. 앞서 (11)에서 살펴본 'やうに 申'이 '-게 숣-'으로 언해된 양상과 유사하다. 같은 문장이 《개수첩해신어》에서는 (16가')의 '도라가시게 ᄒᆞ쇼셔'와 같이 '-게 ᄒᆞ-'를 사용하여 언해되었으나, 이것은 사동 구문이 아니다. 문맥상 V1의 '돌아가는' 주체 NP1과 V2 '하소서'의 주체 NP2가 모두 청자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게 ᄒᆞ-'는 사동의 의미가 없는 '-게 ᄒᆞ-' 구문이다.

(17)에 나타나는 '믿-'은 "信"의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일본어 동사 'たのむ(頼)'를 언해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부탁하다, 바라다" 정도의 의미에 해당한다. 《첩해신어》에서는 (17가)와 같이 'V-음을 믿-'과 같은 동명사 구성이 사용되거나 (17나)와 같이 'V-게 믿-' 구문이 사용되었다. 해당하는 일본어 원믄은 각각 'V お たのむ' (lit. V-음을 믿다), 'Vやうに たのむ'(lit. V-게 믿다)으로 되어 《첩해신어》의 통사 구조는 일본어 원문의 영향을 강하게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개수첩해신어》에서는 (17가'), (17나'), (17다')와 같이 모두 'V-게 믿-'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일본어의 'やうに(様)', '様'과 같은 표현을 'V-게'로 언해하는 경향에 따라 이러한 일본어의 문장 구조가 언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V2로 '빌-'이 사용된 경우이다.

(18) 셜니 죽은 듕의 졀ᄉᆞ나 아니ᄒᆞ게 비ᄂᆞ이다 ᄒᆞ오시니 <계축 상 31b>

(18)은 《계축일기》에 나타난 예로 '-게'가 '빌-'의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때 '-게' 절은 부정문으로 나타나 6.3에서 살펴볼 V1P 부정문 유형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청원 동사의 '-게' 목적 구문의 쓰임은 매우 드물며, 일본어 번역 과정에서 원문의 영향을 강하게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16), (17)과 같은 청원 동사의 '-게' 목적 구문은 모두 타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경우에만 사용된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것은 연결어미 '-게'가 가지는 통사적 특징 중 하나인 선후행절의 비동일주어 제약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39]

6.3. '-게' 목적 구문의 확장

지금까지 살펴본 V2에 의한 목적 구문 외에, V1P의 의미 특성에 의해서 'V1-게'가 목적의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바로 V1P가 부정의 목적을 나타낼 경우이다. Dixon & Aikhenvald (2009)의 용어로는 가능 결과적(possible consequence) 절 연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의 'lest'(~지 않지 위해)와 같은 접속사가 대표적인 가능 결과 연결의 표지이다.

(19) 가. Keep the dog on a leash, [lest it get run over].

39)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세 한국어의 'ᄇᆞ라-'는 의미 용법에 따라 두 가지 구문 구조를 가진다. 주체의 욕망이나 의지를 표현하는 경우는 '-고져', '-오려' 등의 연결어미를 사용하고 타인에 대한 주체의 의도와 바람을 표현하는 경우는 '-과뎌', '-긧고' 등의 연결어미를 사용한다(이현희 1994: 458). 이 중 '-긧고'는 '-긧고', '-겟고', '-괫고' 등의 수의적 변이형을 보이는데, 이를 더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긧고'와 '-겟고'의 형태는 '-긔'와 '-게'의 수의적 변이형을 연상시킨다. 희망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긧고'와 '-게'의 연관성에 대하여는 후고를 기약하겠다.

(20) 가. Keep the dog on a leash, [in case it might get run over].
나. Have a look along the path, [in case the Duchess might have dropped her earring there].

(19)에서 보듯 초점절(Focal sentence)은 보통 명령문으로 나타나고 보조절(Supporting sentence, []로 표시)은 초점절의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타날 수 있는 가능 결과를 나타낸다. 이때 보조절의 사건은 전형적으로 기대되거나 원하지 않는(unsatisfactory) 성격의 것으로, 그러한 가능 결과의 발생을 막기 위해 초점절의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 영어의 'lest'는 부정적인 사건을 취하는 반면, 'in case ... might'은 긍정적인 사건이나 부정적인 사건을 모두 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Dixon & Aikhenvald(2009)는 이러한 표지를 가진 언어는 드문 편이라고 하였다.

한국어에도 이러한 가능 결과 연결을 담당하는 표지는 없으며 부정문 형식의 목적 연결로 이러한 의미를 표시할 수 있다.

(21) 가. 개가 차에 치이지 {않게/않도록} 잘 매 두어라.
나. 개가 차에 {치이게/치이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21)가와 같은 문장도 앞서 살펴본 '-게' 목적 구문의 예와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의 사동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게 하-'와 같은 명백한 사동 표지가 사용된 것이 아니고, 후행절의 사건이 사동의 의미보다는 동사가 가리키는 구체적인 사건이므로 목적 구문으로 다루고자 한다. '잘 매 두다'라는 V2의 사건은 '개가 차에 치이다'라는 V1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21나)와 같은 문장은 '개가 차에 치이다'라는 사건을 목적으로 '내버려 두는' 사건에 대한 것으로 그 전체에 부정의 스코프가 걸린 것이다.

우리는 중세 한국어에서도 부정문의 목적 구문으로 표현되는 가능 결과의 예를 찾을 수 있다.

(22) 가. 太子ㅣ 出家ᄒᆞ싫 時節이 다ᄃᆞᆫ고 ᄌᆞ개 너기샤ᄃᆡ [.....] 사ᄅᆞᆷ 몯 보게 放光ᄒᆞ

샤 四天王과 淨居天에 니르리 비취시니 <석상 3: 25a> (爾時太子心自念言。[.....] 便放身光照四天王。乃至淨居不令人見。)

나. 우리 諸山앳 道士ᄃᆞᆯ히 [.....] 시혹 몯 얻긔 수므며 術法이며 藥材ᄒᆞ기 니르리 다 몯ᄒᆞ논 일 업스니 <월석 2: 71a-71b> (臣等諸山道士。[.....] 或隱形不測。至於方術藥餌。無所不能。行蹟:38c)

(22)는 15세기 한국어의 '몯' 부정문이 '-게'를 취하여 부정의 목적을 나타낸 예이다. (22가)은 태자가 출가하는 장면으로,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밝은 빛을 내는 상황이다. '放光하는'(V2)의 사건을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는'(^V1) 가능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태자가 빛을 냄으로써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된다. (22나)는 술법을 다투는 장면으로 도사들이 '숨는'(V2) 행동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찾는(^V1) 가능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도사들이 숨음으로써 누군가가 찾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V2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V1의 긍정문의 사태는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다. 달리 말하면 V1의 부정문의 사태는 인위적인 노력을 들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로 V2 행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부정의 'V1P-게 V2' 구문이 가능 결과의 목적 구문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를 요한다.

(23) 須闍提 니러셔 이셔 父母를 ᄇᆞ라숩더니 父母ㅣ 목 노하 울며 길흘 조차 가더시다 父母ㅣ 몯 보긔 머리 니거시ᄂᆞᆯ 太子ㅣ 父母를 그리ᄉᆞ바 오래 ᄇᆞ라숩다가 짜해 그우러디니 <월석 20: 113a> (須闍提起立, 住視父母。父母爾時舉聲大哭, 隨路而去。父母去遠不見, 須闍提太子, 戀慕父母, 目不暫捨, 良久躃地。)

(23)의 문장은 앞서 결과 구문에서 살펴본 예로, 부모가 '가는' V2의 사건과 태자가 그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V1의 사건은 선후 관계와 인과 관계로 이어져 있다. 부모가 멀리 간 결과 태자가 그들을 보지 못하는 결과 상태가 된 것이다. 부모가 가는 이유가 태자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또한 부모가 가는 사건에 의해 태자가 그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23)은

결과 구문에 해당한다.

(22)와 (23)의 문장은 표면 구조상으로는 동일하다. 즉 부정문의 'V1P-게 V2' 구문은 목적 구문으로도 결과 구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문맥에 의해서 그 중의성이 해소된다. NP2가 V1의 사건을 의도했는지 여부와 V1의 자연발생적, 혹은 인위적 노력의 성격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맥을 중시하여 구문을 살필 필요가 있다.

중세 한국어에서 V1P가 부정문으로 쓰여 가능 결과 연결을 보이는 목적 구문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이동사동 동사, 화법 동사, 청원 동사의 목적 구문의 예보다 높은 빈도를 보인다.

(24) 가. 車鋼 술윗 통 구무 안히 달티 아니케 기조치로 바가 잇ᄂᆞᆫ 쇠 <번노 하: 36>
나. 수미 그를 더 몯 ᄀᆞᄅᆞ쳐도 그레 쁘들 닏디 아니ᄒᆞ게 믿그리나 ᄆᆡ양 닐키소 <순천 49> (채무이 (남편)-> 순천김씨 (아내))
다. 능의 가도 소 아니케 대되 뎡ᄒᆞ엿ᄂᆞ니 <양호당언간> (이덕열 (남편) -> 청풍김씨 (아내))

(25) 가. 동산 측간 다히 외쟝이 이시니 그리로 사ᄅᆞᆷ이 들게 ᄉᆡ공을 내여시ᄃᆡ 하 크니 박긔셔 번히 못 보게 안희만 ᄀᆞ리와 두고 <서궁 7a-7b>
나. 제 어미를 봉ᄒᆞ여 두고 날을 용납디 못ᄒᆞ게 ᄌᆞᆷ가 너헛ᄂᆞᆫᄃᆡ 섬서히 청ᄒᆞ여 빌미 세 가티 아닌 일이오 <계축 하 28a>
다. 아모 거ᄉᆞ로 마고 다다 긔운 아니 나게 더퍼 두고 (以物合定 勿令漏氣溫) <두창 21b-22a>
라. 마을 거슬 다른 ᄃᆡ 옴기니 하인은 ᄒᆞᄃᆡ 웃뎐이 못 쓰시긔 그리ᄒᆞᆫ다 ᄒᆞ고 <서궁 8a>
마. 뎡 동디 ᄃᆡᆨ으로 보낼 ᄎᆡᆨ이니 ᄎᆡᆨ이 드러나디 아니ᄒᆞ게 보를 ᄲᅡ 보내소<곽씨 108>(곽주(남편)→진주하씨(아내))
바. 셜니 죽은 듕의 졀ᄉᆞ나 아니ᄒᆞ게 비ᄂᆞ이다 ᄒᆞ오시니 <계축 상 31b>

(25)는 중세 한국어의 예, (26)은 근대 한국어의 예이다. (25가)의 '(수레바퀴가) 닳지 않게'는 '쇠가 박아 있는' 목적에 해당한다. (25나)의 '글의 뜻을 잊지 않게'는 '밑글이나 매양 읽히는' 목적에 해당한다. (26가)의 '밖에서 뻔히 못 보게'도 '안에만 가려 두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6다)는 한문 원문이 있는 문장으로 원문에서는 사동표지 '令'이 쓰이고 있지만 언해문에는 '더퍼 두고'와 같이 구체적인 방법이 보충되어 있다. (26바)는 앞서 살펴본 청원 동사 '빌-'의 예로도 볼 수 있는 V1P 부정문의 목적 구문이다. 청원 동사의 목적 구문의 유일한 예로 보기보다는 부정문을 목적절로 취하는 경우 중 하나로 보는 편이 무리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7)과 같이 'NP1 모르게'가 17세기부터 나타나는데, 이는 긍정문의 형식이지만 의미상 'NP1이 알지 못하게'라는 부정문에 해당한다. 이 역시 부정문의 목적 구문의 예라고 할 수 있다.

(27) 가. 정월 초ᄒᆞᆫ날 밤 오경 ᄯᅢ에 <u>다ᄅᆞᆫ 사ᄅᆞᆷ 모로게</u> 죠롱박 너출을 가메예 담고 믈 브어 달혀 ᄒᆞᆫ 푼ᄌᆞ나 ᄒᆞ거든 (遇正月初一日五更 <u>勿令人知</u> 將葫蘆蔓絲安鍋內煎湯一盆) <두창 상 6b>

나. 侵蝕 <u>ᄂᆞᆷ 모로게</u> ᄀᆞᆯ여먹다 <몽유보 28a>

다. 흠탐이 그날부터 <u>상젼 모로게</u> 젼답을 방매하야 <신계후전_구활자본 8: 2>

라. 사ᄅᆞᆷ이 새문셩을 둘러슨 셩 우희 굿볼 재 수ᄅᆞᆯ <u>모ᄅᆞ게</u> 셧고 <서궁 29b>

마. 아바님 아ᄅᆞ시면 심〃이 너기실 거시니 <u>아바님 모ᄅᆞ시게</u> 셕이ᄃᆞ려 니ᄅᆞ게 ᄒᆞ소 <곽씨 86>(곽주 남편-> 진주하씨 아내)

17세기 이후 근대 한국어 자료에서는 V1P에 긍정문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 가. 죄 업서 아니 죽이랴 <u>뎐을 뫼왓게 아니 죽이니</u> <서궁 52a>

나. 덕남의 집 게 집을 짓고 ᄉᆞ이ᄅᆞᆯ 놉게 막고 문ᄋᆞᆯ 제곰 길로 <u>ᄃᆞ니게 내고뎌 ᄒᆞ여</u> <곽씨 59>

다. 이젼 ᄂᆞᄆᆡ 죵 브리ᄃᆞ시 말고 <u>죵이 ᄉᆞ랑케 브려사</u> ᄒᆞ되 아라 ᄒᆞ소 <곽씨 127>

라. 제 ᄆᆞᅀᆞᆷ을 아ᄆᆞ려나 항거슬 ᄉᆞ랑케 브리게 ᄒᆞ소 <곽씨 127>
마. 졍부 영칙을 ᄯᆞ라 기여히 실효가 잇게 못홈은 그 칙망이 어ᄃᆡ로 도라 가리요 <독립신문>

중세 한국어 시기의 목적 구문이 주로 이동사동 동사, 발화 동사 구문, 가능 결과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된 것에 비하여 17세기 이후로는 (28)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긍정문의 형식으로 다양한 V2와 나타난다. 동사의 구문 구조와 상관없이 '-게'가 [목적]의 연결어미로의 용법을 확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7.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중세 한국어와 근대 한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게' 구문이 보이는 통사·의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V1P-게 V2' 구성이 보이는 구문 구조적 유사성에 주목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게' 구문을 타동성과 사건 구조의 측면에서 공통점을 포착하고, 다양한 구문 사이에 나타나는 연관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각 장에서 논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대상,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게' 구문을 'V_1P-게 V_2'으로 나타나는 V_2의 논항 구조를 가리키기도 하며, 이러한 논항 구조들의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V_1P-게 V_2' 구성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사동, 결과 구문, '여기-', '굴-' 등 개별 동사의 구문으로 다루어져 온 'V_1P-게 V_2' 구성을 구문 구조의 유사성과 통시적 발달 양상을 고려하여 '-게' 구문으로 묶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V_1P-게 V_2' 구성을 공유하며, 타동성의 의미적 특성과 결과 사건과 원인 사건이라는 사건 구조의 측면이 유사하다.

제2장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어미 '-게'의 문법적 특징을 살펴보고, '-게' 구문의 원형적인 특징과 그 하위 유형의 특징을 논하였다. 중세 한국어의 어미 '-게'는 극소수의 예를 제외하면 모두 'V_1P-게 V_2' 구성의 일부로 사용되어 [결과]의 표시부에 사용되었다. '-게'와 결합하는 V1은 타동사, 자동사, 계사, 형용사 등 다양한 성격의 용언과 결합하였다. 특히 형용사의 경우 대체로 성상 형용사와 결합하였다. 그것은 결과 상태를 서술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게' 구문의 전형적인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가. 형식적 특징: 'V1P-게 V2'의 형식을 띤다.
나. 문법적 특징: V2에 타동사가 쓰인다.
다. V2의 주어 NP2는 높은 유정성을 띤다.
라. V1과 V2의 주어가 반드시 다르다.

마. 시간적 선후관계: V1은 후행사건, V2는 선행사건이다.
바. 인과적 관계: V1은 결과 사건, V2는 원인 사건이다.
사. V1P의 결과 상태는 V2의 목표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게' 구문이 '높은 타동성'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형적인 '-게' 구문이 보이는 구문 구조를 서술어 V1과 V2의 논항 구조는 [NP2가 NP1을 [(NP1이) V1]-게 V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사동 구문, 결과 구문, 판단 구문, 목적 구문의 구문 구조는 이러한 전형적인 구문 구조와 관련된다.

(2) 가. [NP2가 NP1을 [(NP1이) V1]-게 ᄒᆞ-] (사동 구문)
NP2가 시킴으로써 그 결과 NP1이 V1하게 (의도)하다.
나. [NP2가 NP1을 [(NP1이) V1]-게 V2] (결과 구문)
NP2가 V2함으로써 그 결과 NP1이 V1의 상태에 이르다.
다. [NP2가 NP1을 [(NP1이) V1]-게 V2] (판단 구문)
NP2가 V2함으로써 그 결과 (인식 속에서) NP1이 V1하다(고 생각하다).
라. [NP2가 [NP1이 V1]-게 V2] (목적 구문)
NP2가 V2함으로써 그 결과 NP1이 V1하기를 희망하다.

제3장에서는 '-게 ᄒᆞ-'로 나타나는 사동 구문의 통사 의미적 특징을 구문 구조와 피사동주의 격 실현과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게 ᄒᆞ-'의 선대형인 14세기 음독 구결 자료의 '-ᄉᆞᄉᆞ-'의 논항 구조와 '-게 ᄒᆞ-'의 논항 구조를 비교하고 차이점에 대해 논하였다. '-ᄉᆞᄉᆞ-'의 피사동주는 주로 도구격으로 실현된 것이 비하여 15세기 이후 '-게 ᄒᆞ-'의 피사동주는 주로 목적격으로 실현되고 주격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다. 혹은 여격이나 도구격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NP1이 목적격으로 실현되는 전형적인 '-게' 구문과 달리 사동 구문에서는 다양한 격으로 실현되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게' 구문의 구문 구조에서 사동 구문이 특수화를 겪은 것으로 보았다.

제4장에서는 'V_1P-게 V_2' 결과 구문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논하였다. V_2의 성격

에 따라 상태 변화를 수반하는 타동사와 제조 동사가 쓰이는 경우를 전형적인 결과 구문으로 보았다. V_2가 자동사인 경우는 비대격동사와 비능격동사의 경우를 나누어 비전형적인 결과 구문으로 다루었다. 한편 사동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게 ᄒᆞ-'는 소위 피동적 '-게 ᄒᆞ-' 구문으로 보고 제4장에서 다루었다. 이 V2가 '굴-'인 경우 크게 두 가지의 논항 구조를 보였다. 전형적인 결과 구문과 같이 NP1을 대상으로 취하는 구문이 통시적으로 선행하고, 뒤이어 대상을 취하지 않는 '굴-' 구문이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현대 한국어의 '-게 굴-' 구문이 보이는 다층적 성격은 통시적 변화의 산물임을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V_1P-게 V_2' 판단 구문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논하였다. 판단 구문의 '-게'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판단 결과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결과 구문과 관련이 깊음을 주장하였다. V_2에 '너기-, 싱각ᄒᆞ-' 등의 사유 동사가 오는 전형적인 판단 구문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매우 드물게 '-게' 구문으로 나타났다. 근데 한국어 시기 '-게' 판단 구문의 빈도가 크게 증가하는데, 이 시기 즈음 형용사와 '-게'의 결합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V2가 사유 동사가 아니지만 대상의 판단 결과와 관련된 '-게' 부사형을 취하는 예는 판단 구문의 확장 양상으로 파악하였다.

제6장에서는 'V_1P-게 V_2' 목적 구문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논하였다. 중세 한국어의 목적 구문은 V_2가 이동의 타동사, 화법 동사인 경우 한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사들의 사동성을 논의하여 목적 구문이 사동 구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게'가 구문의 일부 요소가 아닌 절 접속 기능을 하는 목적의 연결어미로 발달해 가는 양상을 V1P의 속성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본고는 공통적인 통사 의미적 특성을 보이는 'V1-게 V2' 구성을 대상으로 통시적인 방법으로 연구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제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겨져 다루지 못하였던 예문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동 구문과 결과 구문의 관련성, 결과 구문과 판단 구문의 관련성, 사동 구문과 목적 구문의 관련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V1P-게 V2'의 구성 요소인 '-게'가 연결어미로 발달하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는 'V1P-게 V2' 구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중세 한국어의 예문에

서 ‘-게’ 부사형의 분포는 이러한 구문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이것이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쉽게 설명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같은 시기 더 넓은 분포를 보이는 ‘-이’ 부사형의 경우는 [방식], [결과]를 아우르는 용법을 보인다. 그러나 이때 ‘-이’는 구문과 관계가 적어 보인다. 그러던 것이 신형인 ‘-게’ 부사형으로 대체되어 간다. 이러한 두 부사형의 교체 양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게’와 ‘-도록’은 제6장에서 보았듯 반대 방향의 변화를 겪음에도 이를 폭넓게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논의가 시급하다. 한편 ‘-게’ 구문의 구문적 성격에 주목하다 보니 부사형 어미 ‘-게’의 발달 양상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였다. 결과 구문, 판단 구문의 일부 요소를 넘어서 ‘향주어부사’, ‘향화자부사’로 쓰임이 확대되는 어미 ‘-게’에 대해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게 되-’ 구문은 그 통사 의미적 특성상 ‘-게’ 구문으로 묶어 다루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0세기 초기의 자료를 본격적인 논의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20세기 초는 언어 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겪은 시기이므로 ‘-게’ 구문이 보이는 다양한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고광모(2002ㄱ), '-겠-'의 형성 과정과 그 의미 발달, 《국어학》 39, 국어학회, 27-47.

고광모(2002ㄴ), 명령법 어미 '-게'의 기원과 형성 과정, 《한글》 257, 한글학회, 129-166.

고광모(2017), '-겠-'의 발달에 대한 재론: '-게 ᄒᆞ엿-'을 '-게 되엿-'으로 해석하는 견해들에 대한 비판, 《언어학》 79, 한국언어학회, 53-72.

고영근(2004ㄱ),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고영근(2004ㄴ), 국어문법의 방향 탐색: 현행 고등학교 <문법>을 검토하면서, 《우리말연구》 15, 우리말학회, 23-61.

고영근(2020),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제4판.

고정의(1990), 사동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550-510, 동아출판사.

구현정(1987) 씨끝 {-아} {-게} {-지} {-고}의 쓰임과 의미, 《국어국문학》 97, 국어국문학회.

권재일(2002), 《한국어 문법론》

김경학(1999), 사역이동 구문의 분석과 의미 해석에 대해, 《언어학》 24.

김규철(2005), 《단어형성과 도상성에 대한 연구》, 박이정.

김기종(2018), 《역주 월인천강지곡》, 보고사

김동식(1984), 동사 '되다'의 연구, 《국어국문학》 92, 국어국문학회.

김민국(2019), 한국어 비주격 주어 표지의 문법화: 존재 구문 및 탈격을 기원으로 하는 형식을 중심으로, 《배달말》 65, 배달말학회.

김민선(2005), '되다' 구문의 유형과 의미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187.

김민선(2005), '되다' 구문의 유형과 의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주(1996), 국어 사동문 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성주(2003), 《한국어의 사동》, 한국문화사.

김성주(2005), 석독구결의 사동 표현, 《구결연구》 14, 구결학회, 147-171.
김승곤(1986), 이음씨끝 '-게'와 '-도록'의 의미와 통어적 기능,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김영민(2011), 결과구와 양태부사에 관한 일고찰: 스케일(scale) 구조의 관점에서, 《일본어교육》 67, 한국일본어교육학회, 143-157.
김영・장고은(2020), 임진왜란 시기에 작성된 <양호당이덕열언간>의 내용과 가치, 《구결연구》 46,
김영희(1976), 형용사의 부사화 구문, 《어학연구》 12-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김영희(1993), "-게 하-" 사동 구문의 세 유형, 《어문학》 54, 89-120, 한국어문학회.
김완진(1980), 《향가 해독법 연구》, 서울대출판부.
김완진(2000),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출판부.
김일근(1991), 《언간의 연구》,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김정남(2009), '-게 되다'의 의미와 분포: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어 의미학》 30, 한국어의미학회, 59-88.
김정대(1996), 국어 통사론 연구 반 세기, 《광복 50주년 국학의 성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종록(1989), 부사형접사 '-이'와 '-게'의 통시적 교체, 《국어교육연구》 21, 경북대학교.
김지은(1997), 양태용언 구문에 대한 통사론적 접근, 《한글》 236.
김지홍(1987), 술어의 논항 자리수 변동에 대하여: 특히 '되다'와 '하다'를 중심으로 하여, 《현국 양중해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제주: 제주문화 449-471.
김지홍(1990), 문법기술의 일관성과 간결성: 특히 학교문법의 부정문과 {-게} 어미 처리를 중심으로, 《모국어교육》 8, 모국어교육학회, 43-78.
김지홍(1992), 국어 부사형어미 구문과 논항구조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한결(2011), {-고뎌, -과뎌} 구성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김흥수(1998), 피동과 사동,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나진석(1953), 미래 시상 어간 '리'와 '겠'의 교체, 《국어국문학》 6, 국어국문학회.
남경란(2008), 음독구결 연구의 회고와 전망, 《구결연구》 21, 구결학회, 99-137.
남권희 남경란(2000), 《月印釋譜》 권19의 書誌 및 《妙法蓮華經》 諺解 권7과의 본문 대조, 《국어사연구》 1, 국어사학회, 193-373.
남수경(2007), 《한국어 피동문의 문법적 연구》,
남승호(2008), 《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류경민((2004), '-하- 동사의 형태 통사적 연구: '-되-', '-시키-'와의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류성기(1988), 19 세기 국어의 피동문과 사동문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43.
류성기(1992ㄱ), 사동사 사동법의 변화와 사동사 소멸, 《국어학》 22, 237-258.
류성기(1992ㄴ), 두 사동형식에 관한 화용론적 입장에서의 고찰, 《한국언어문학》 30, 59-77.
류성기(1998), 《한국어 사동사 연구》, 홍문각.
류시종(1996), 보조용언의 원형적 특성, 《한글》 234, 105-132.
박성현(1989), 국어의 부사화소 {-이}와 {-게}에 대한 사적 고찰: 기능과 분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소영(2001), 결과부사형 '-게'에 대한 연구, 《한글》 252, 한글학회, 45-77.
박소영(2003), 한국어 동사구 수식부사와 사건구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소은(2011), 국어 장형사동 구문의 의미 유형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박양규(1978), 사동과 피동, 《국어학》 7, 47-70.
박진호(1994ㄱ),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 구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박진호(1994ㄴ), 피동적 '-어 잇-' 구문, 《주시경학보》 13.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박진호(2006), 중세국어에서 형용사와 결합하는 ‘-어 잇-’의 상적 의미,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pp. 227-42.
박진희(2011), 국어 목적절의 네 가지 유형, 《국어학》 61, 국어학회.
방영심(2003), {-이}와 {-게}의 통시적 교체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방영심(2008), 한국어 부사형 어미 ‘-게’의 확장에 관한 통시적 고찰, 《한국문화연구》 1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73-299.
배영환(2012),「현존 最古의 한글편지 ‘신창맹씨묘출토언간’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국어사연구》 15, 국어사학회, pp. 211-239.
백두현(2019), 《현풍곽씨언간 주해》 증보판, 서울: 역락.
백채원(2010), 중세 한국어의 정도 부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백채원(2017), 한국어 피동문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서상규 외 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 문화관광부 한국어세계화재단.
서정수(1973),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서정수(1986), ‘-게’와 사동법,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서정수(1987), ‘게’와 ‘도록’에 관하여, 《인문논총》 14,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41-67.
서정수(1991), ‘하-’와 ‘되-’에 대하여, 《어학연구》 27-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서태룡(1988),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국어학총서 13, 국어학회.
서태룡(1997), 어말어미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석주연(2006), ‘-도록’의 의미와 문법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국어 의미학》 19, 한국어의미학회, 109-135.
석주연(2013), 신소설 자료에 나타난 어미 ‘-도록’의 의미와 문법,『우리말글』59, 25-49.
성연숙(2003), ‘되다’ 구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세모돌(1993), 국어 보조용언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석중(1977), 사동문의 두 형식, 《언어》 3-2, 한국언어학회, 1-13.
송철의 외(2004), 《역주 증수무원록 언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심지영(2016), 한국어 결과구문 연구: 한중 대조 및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연재훈(1997), 타동성의 정의를 위한 원형이론적 접근, 《언어》 22-1, , 한국언어학회, 107-132.
연재훈(1997), 타동성의 정의를 위한 원형이론적 접근, 《언어》 22-1, 한국언어학회, 107-132.
연재훈(2011), 《한국어 구문 유형론》, 태학사
오윤경·신연수(2015) '-도록'의 의미: 도급에서 온 목적, 《국어학》 74, 국어학회, 267-302.
오충연(2010), 국어 결과 구문의 범주 설정에 대한 연구, 《언어연구》 26-3, 한국현대언어학회, 595-619.
와시오 류이치(1997), 결과표현의 유형, 《어학연구》 33-3, 435-462.
왕력(1997), 박덕준 외 공역, 《중국어 어법 발전사》, 사람과 책. [王力(1980), 《漢語史稿》(修政本), 中華書局.]
우인혜(1993), "되다" 피동 표현의 통시적 고찰, 《한양어문연구》 11,
우인혜(1993가), '되다' 피동 표현의 통시적 고찰, 《한양어문연구》 11, 한양어문학회, 79-100.
우인혜(1993나), '되다'와 '지다'의 비교 고찰, 《한국학논집》 23, 한양대학교출판부, 439-467.
유현경(2003),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에 대하여, 《한글》 261, 한글학회, 123-148.
유현경(2004), 국어 소절(small clasuse) 구성의 복합술어 분석, 《국어학》 44, 국어학회, 133-158.
유현경(2006), 형용사에 결합된 어미 '-게'의 연구, 《한글》 273, 한글학회, 99-123.

유혜원(2007), '-게'에 대한 형태론적 고찰, 《형태론》 9-1, 25-45.
윤평현(1988), '-게, -도록'의 의미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0, 국어국문학회, 307-318.
윤평현(2005),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박이정.
이광정(1983), 15세기 국어의 부사형어미 「-게」 와 「-이」 에 대하여, 《국어교육》 44, 207-220.
이광호(1991), 중세국어 부동사 어미 '-게'와 '-긔'의 의미기능, 《語文學論叢》 10,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이기갑(1987ㄱ), 의도 구문의 인칭 제약, 《한글》 196, 한글학회, 296-308.
이기갑(1987ㄴ), 미정의 씨끝 '-으리-'와 '-겠'의 역사적 교체, 《말》 1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이병기(2006), '-겟-'의 문법화와 확정성, 《진단학보》 102, 진단학회, 163-179.
이상규(1981), 東南方言의 使動法: 永川 地域語를 中心으로, 《문학과 언어》 2, 15-30.
이상억(1970), 국어의 사동·피동 구문 연구, 《국어연구》 26.
李相億(1980), 「使動·被動語幹形成接尾辭에 대한 多角的 考察」, 안암어문학회, 『어문논집』, pp.121-38.
이선웅(1995), 현대국어의 보조용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재(1990), 高麗本 梵網經의 口訣, 《애산학보》 9, 애산학회, 117-147.
이승희(2004), 명령형 종결어미 '-게'의 형성에 대한 관견, 《국어학》 44, 109-131.
이은경(2000), 국어의 연결 어미 연구, 태학사.
이은섭(2006), 굴다 구문의 유형과 통사 구조, 《국어학》 48, 국어학회, 203-231.
이익섭(2003), 《국어 부사절의 성립》, 태학사.
이정택(1991), 사동과 문법 범주: '-게 하-'를 중심으로, 《국어의 이해와 인식》 갈음 김석득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한신문화사, 471-481.
이정택(1992), 용언 되다와 피동법, 《한글》 218, 한글학회, 139-167.
이정택(1994), 15세기 국어의 입음법과 하임법: 'ᄃᆞ외-'와 'ᄒᆞ-'의 통어, 의미 현상

을 중심으로, 《한글》 233, 한글학회, 7-48.
이정택(1996), 16세기 국어의 피 · 사동법 연구, 《국어교육》 91, 한국어교육학회.
이종희(1991), 부사형어미 {-게}의 통어적 기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지수(2008), 타동성과 국어 사동표현의 의미, 《어문연구》 36-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45-170.
이태영(1997), 《譯註 捷解新語》, 태학사.
이한민·조은영(2015), 반말체 어미 '-게'의 의미기능 연구, 《국어학》 74, 국어학회.
이현희(1994), 《중세국어구문연구》, 청구문화사.
이현희(2006), '멀리서'의 통시적 문법, 《관악어문연구》 3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5-93.
이홍식(1991), 피동과 피동구문, 《주시경학보》 8, 주시경연구소, 113-118.
이홍식(2000),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월인.
이희자·이종희(2001), 《한국어 학습용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임동훈(2001), '-겠-'의 용법과 그 역사적 해석, 《국어학》 37, 국어학회, 115-147.
임지룡(1992),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임홍빈(1974), 부사화와 대상성, 《국어학》 4, 국어학회.
임홍빈(1980), "겠"과 대상성, 《한글》 170, 한글학회.
장고은·김영(2019), 16세기 후반 한글자료인 <청풍김씨묘출토언간(이덕열언간)>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29, 국어사학회, pp. 125-156.
장영준(1997=2000), 한국어의 부사형 서술어와 보문자 '-게', 《한국어 통사구조 새로 보기》, 박이정, 133-161.
장영준(2000), 한국어의 부사형 서술어와 보문자 '-게', 《한국어 통사구조 새로 보기》, 박이정.
張允熙(2002), 國語 動詞史의 諸問題, 《한국어의미학》 10, 한국어의미학회, 97-141.

장윤희(2010), 中世國語 連結語尾 形成의 文法史, 《어문연구》 14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61-90.
정성여(2005), 규범적 사동구문과 비규범적 사동구문, 《어학연구》 41-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 49-78.
정언학(2006), 《상 이론과 보조 용언의 역사적 연구》, 태학사.
정연주(2015), '하다'의 기능에 대한 구문 기반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정연주(2017), 《구문의 자리채우미 '하다' 연구》, 국어학총서 75, 태학사.
정재영(1995), 기림사본 능엄경 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口訣資料集》 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재영(1996), 順讀口訣 資料 <梵網經菩薩戒>에 대하여, 《구결연구》 1.
정재영(1998), 合部金光明經(卷三) 석독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 《구결연구》 3, 113-193, 구결학회.
조은영·이한민(2011), 반말체 어미 '-게'의 문법화와 의미 변화 《한국어 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391-417.
조항범(1998), 《註解 순천김씨묘출토간찰》, 서울 : 태학사.
주지연(2008), 한국어 'V1어V2' 구성의 사건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최동주(1998), 중세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 국립국어연구원.
최동주(2000), 국어 사동구문의 통시적 변화, 《언어학》 27, 한국언어학회.
최정은(2009), 《국어 부사화소 '-이'와 '-게'의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현배(1937/197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최현배(1971), 《우리말본》 네번째 고침판, 정음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口訣資料集》 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口訣資料集》 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9a), 『은진송씨 송준길 가문 한글 간찰』 조선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4 , 파주: 태학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9b), 『은진송씨 송규렴 가문 한글 간찰』 조선후기 한글 간

찰(언간)의 역주 연구 5 , 파주: 태학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9c),『의성김씨 김성일파 종택 한글 간찰』조선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6 , 파주: 태학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9d),『전주이씨 덕천군파 종택 한글 간찰 』조선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7 , 파주: 태학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9e),『대전 안동권씨 유회당가 한글 간찰』조선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8, 파주: 태학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9f),『광산김씨 가문 한글 간찰』조선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9 , 파주: 태학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9g),『의성김씨 천전파·초계정씨 한글 간찰』조선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10 , 파주: 태학사.
한송화(1997), 국어 자동사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재영(1984), 중세국어의 피동구문의 특성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61.
한재영(1996), 《十六世紀 國語 構文의 硏究》, 신구문화사.
허웅(1975), 《우리 옛말본: 15세기 형태론》, 샘문화사
허웅(1989), 《16세기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홍기선(2011), 영어의 결과구문과 한국어의 “게” 구문, 《언어》 36-4, 한국언어학회, 1143-1169.
홍석준(2005), 현대국어 ‘A+-이’ 및 ‘A+-게’ 형 부사와 부사형의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홍재성 외(2004),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국립국어연구원.
황국정(2009), 『국어 동사 구문구조의 통시적 연구』, 서울: 제이앤씨.
황문환(2015),『조선시대의 한글 편지, 언간』, 서울: 역락.
황선엽(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 한글 창제 이전 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황주원(2011), 한국어 결과구문의 의미 특성, 《한국어 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531-556.

Bybee, J., R. Perkins, & W. Pagliuca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ybee, Joan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John Benjamins.

Comrie, B. & M. Polinsky ed. (1993), *Causatives and Trnasitivity*, John Benjamins.

Comrie, Bernard (1981),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Basil Blackwell.

Dixon, R. M. W.(2010), *Basic Linguistic Theory* v.2, Oxford.

Dixon, R. M. W. & A. Y. Aikhenvald ed. (2000), *Changing Valency Case Studies in Transi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xon, R. M. W. & A. Y. Aikhenvald (2009), *The Semantics of Clause Linking: A Cross-linguistic Typ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Evans, Nicholas (2011), Semantic typology, Jae Jung Song ed.,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Typ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pp.504-33.

Goldberg, A. (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oldberg A. & R. Jackendoff (2004), The English resultative as a family of construcions, *Language* 80, 532-569.

Haiman, J. (1980), The iconicity of grammar: Isomorphism and motivation, *Language* 56, 515-540.

Hopper, Paul, & Sandra Thompson (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2, pp.251-99. Press.

Hopper, Paul, & Elizabeth Traugott (2003), *Grammaticalization* 2nd 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ttilä, Seppo(2011), Transitivity typology, Jae Jung Song ed.,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Typ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pp.346-67.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London.

Langacker, R. W. (1986),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1, Stanford University Press.

Langacker, R. W. (2008), *Cognitive Grammar: A Basic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Lyons, J. (1977), *Semantics* Ⅰ,Ⅱ, Cambridge University Press.

Næss, Åshild(2007), *Prototypical Transitivity,* Amsterdam: John Benjamins.

Palancar, E.(2001), Emergent markers : The relation of instruments, causes, and agents in grammatical constructions. *Language Typology and Universals* 54/4, pp. 365- 84.

Shibatani, Masayoshi(1973), Lexical vs. periphrastic causatives i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9, pp.281-98.

Shibatani, M. (1976), On the nature of Synonymy in causative expressions, 《어학연구》 11-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Silverstein, M. (1976), Hierarchy of features and ergativity, R.M.W. Dixon, ed., *Grammatical Categories in Australian Languages*, 112-171.

Song, J.J. (2000), *Linguistic Typology: Morphology and Syntax*, Harlow, New York: Longman.

Song, J.J. ed.(2011),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Typ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Talmy, L. (1976), Semantic causative types, The Grammar of Causative Constructions (*Syntax and Sementics* 6), New York: Academic PRess, 43-116.

Talmy, L. (1985), Lexicalization pattern: semantic structure in lexical forms, Timothy Shopen,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3: Grammatical categories and the lexicon*,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71-149.

Talmy, L. (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2 Typology and Process in Concept structuring, The MIT Press.

Tuggy, David(1993), Ambiguity, polysemy, And vagueness, *Cognitive Linguistics* 4.3, pp.273-90.

Yang I.S. (1974), Two causative forms in Korean, 《어학연구》 10-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83-117.

Zubizarreta, Mari Luisa, Eunjeong Oh(2007), *On the Syntactic Composition of Manner and Motion,* MIT Press.

志部昭平(1990), 『諺解三綱行實圖硏究』, 東京:汲古書院.

籾山洋介(2001),「多義語の複数の意味を統括するモデルと比喩」,『認知言語学論考』1, 東京: ひつじ書房, pp.29-58.

山梨正明(2000), 『認知言語学原理』, 東京：くろしお出版.

仁田義雄(1983), 結果の副詞とその周辺、渡辺実編, 『副用語の硏究』、明治書院.

사전류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2003), 『중한사전』 2판, 서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김민수 외(1991), 『금성판 국어대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사서편집국 편(1994), 『(동아)프라임 韓日辭典』, 두산동아 사서편집국.

두산동아 사서편집국 편(1996), 『(동아)프라임 日韓辭典』, 두산동아 사서편집국.

박재연·이현희 주편(2016),『고어대사전』,(21권) 선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 연구원(1998), 『연세 한국어 사전』, 서울: 두산.

劉昌惇(1964), 『李朝語辭典』, 연세대학교출팔부.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서울: 어문각.

황문환, 김주필, 배영환, 신성철, 이래호, 조정아, 조항범 편(2016),『(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 서울: 역락.
황문환, 임치균, 전경목, 조정아, 황은영 편(2013),『(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1·2·3, 서울: 역락.

Abstract

A Historical Study on '−*key*' Construction in Korean

JANG, Goeu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yntactic and semantic features of '−*key*(−게)' construction and its historical development in Middle Korean and Modern Korean. The '−*key*' construction refers to a set of construction that shares not only the form of 'V_1P−*key* V_2' but also close relativeness in terms of transitivity and the event structure. We examined the aspect of the prototypical characteristics of '−*key*' construction and its development in historical perspective from the Middle Korean. We argued the affinity between causative construction, resultative construction, psychological judgement construction and purpose construction of 'V_1P−*key* V_2' construction by comprehensively examining the examples in historical materials.

Each chapters are organized as follow. In Chapter 1,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subject of the study, and the research method were presented, and previous studies were reviewed. Chapter 2 discusses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the verb ending '−*key*' in meddle Korean, and examined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V_1P−*key* V_2' construction. It was discussed that the '−*key*' adverbial was mainly used as part of a construction indicating the meaning of 'result' in Middle Korean. Chapters 3 to 6 described the causative construction, resultative construction, psychological judgment construction, and purpose construction, respectively.

Chapter 3 discusses the syntactic and semantic features of causative construction, which appears as '−*key ho*−', especially in terms of syntactic structure and case realization. We examined that the causee was mainly realized as an instrumental case in the 14th century, and then appeared as a subject, object, or dative, instrumental case after the 15th century.

Chapter 4 discusses the syntactic and semantic features of the 'V_1P−*key* V_2' resultative construction. We regard the case in which a transitive verb is used for V_2 as a typical resultative construction. The case in which a intransitive verb is used for V_2 was treated as a non−typical resultaitve construction. The case in which the verb '*kul*−(굴−)' is used for V_2 was also interpreted in the framework of the resultative construction and was discussed its multilayered characteristics of '−*key kul*−' construction in Contemporary Korean is the product of the synchronic change.

Chapter 5 discusses the syntactic and semantic features of the 'V_1P−*key* V_2' psychological judgment construction. We argued that the '−*key*' adverbial of the judgment construction is related to the resultative construction in that it represents the speaker's judgment result on the object. We examined the typical cases of psychological judgement construction of V2 as '*neki*−(너기−)', '*soyngkakho*−(싱각ᄒᆞ−)', and discussed its development of using other verbs.

Chapter 6 discusses the syntactic and semantic features of the 'V_1P−*key* V_2' purpose construction. We argued that the purpose construction of Middle Korean was closely related to the causative construction, because the

V2 was restricted in caused motion verb and speech verb. We examined the development of '−*key*' as a subordinate connective verb ending of purpose.

Chapter 7 summarizes the main points revealed so far as a conclusion and presents the remaining questions.

keywords : construction, construction grammar, causative, resultative, judgement, purpose, −key, adverbial
Student Number : 2012−30806